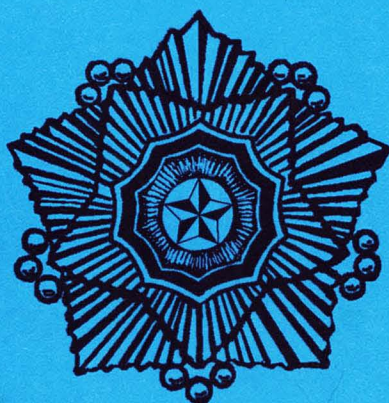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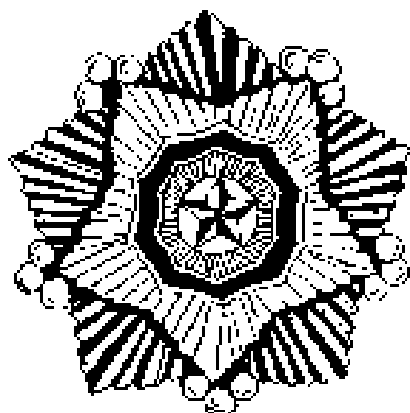
조선문학



1

주제 95(200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5(2006)년 제1호

(루계 제 699 호)

차 례

우리의 설날	4
눈부시다	5
그해는 신년사가 없었던가	13
선군길에 부치여	14
산들이 접혀들어오다	16
백 두 산 찬 가	18
해 저물고 찬바람 불 때면	22
병사의 눈세계	23
영웅의 고지여	23
헌시창작에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	24
만강에서의 정치사업	25
물어보라 전호에 선 병사들에게	25
이 나날들을 간직하라	26
백두의 눈보라길을 걸으며	26
잠 못드는 밀림의 밤	27
천지의 푸른 물아	27
평양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28
이 나날들을 간직하라	28

력사의 행군길에서	29
제대병사 마중가자	30
영원한 메아리	31
숫눈길을 밟으며	32
보 통 날	33
광부의 소원	33
이 땅우에 새 날이 밝을 때	34
백두산 3 대장군의 형상창조에서 혁신을 이룩하겠다	35
선군의 붓대를 힘있게 틀어쥐고	36
더 높은 창작적열정을 발휘하겠다	37
작품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 더 좋은 평론을... ..	38
만 년 성 벽	39
조국이 기억하는 장한 딸이여	47
웃으며 가는 길에 행복이 온다	48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왔는가	48
웃으며 온 길 웃으며 가자	48
초소에서 편지가 왔네	49
우리 집 부엌이 밝아졌어요	50
꽃을 피우는 처녀	50
룡 산 이 여!	51
소경제국	52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	53
버들꽃	57
아무도 모를겁니다	66
토스레웃	66
금강산	67
우수한 우리 말 - 평양문화어	78
의사로부터 작가가 된 사연	78
조선로동당창건 60 돌과 조국해방 60 돌	79
전국문학축전 시상결과	79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80

우리의 설날

서봉제

설날은
세배의 날입니다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삼천리 이 나라 강산이
우리 장군님 우러러
삼가 옷깃을 여밍니다

경모의 마음들이 거리에 흐르고
일터와 마을이 벅차게 끓는
내 조국의 설명절
가슴그득히 먼저 차오르는것은
간밤의 설달그믐날까지
선군길을 달려오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생각

무거운 이삭들이 설레이는
끝없는 들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흰눈아 내릴 때면
고지의 병사들을 생각하시는
장군님 바치시는 끝없는 심혈

우리 다 알지 못하는 그 전설
사랑의 손길은 얼마나 자애로웁고
미래를 펼치시는 어버이의 그 고마움
천만년 세월이 흐른들
어찌 다 갚으렵니까

행복의 전부이시고
우리 운명의 하늘이신
장군님의 그 품을 떠나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어이 있을것입니까

새해 이 설날도
인민의 세배먼저
장군님은 밝은 미소 보내십니다
최고사령부의 창문을 활짝 여시고
태양의 축복을 먼저 보내십니다

지니간 해
그 365일을 이어
다시 또다시
그리움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설날
10월의 경축광장을 지나온 그 걸음으로
장군님 받들어
더 질풍같이 달려갈 우리의 설날

비약하는 내 나라의 강성부흥과
통일의 밝은 앞날속에
하늘땅이 환희에 싸여
우리 맞는 새해는
이 세상 단 한분 장군님만을 따르는 군민을
새해의 총진군으로 불러세우나니

아 조국이 큰절을 드립니다
해가 바뀔수록 더더욱 불타는 마음
이 아침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
온 나라, 온 세계가 바라는 소원
김정일장군님이시여 부디 안녕하시라!
민족의 어버이이시여 부디 건강하시라!

눈부시다

최학수

나는 열대의 나라가 처음이다.

이토록 지독스러운 무더위도 처음이고 그 무더위를 삼시에 말끔히 가셔버리는 스코르(열대소나기)도 처음이며 갖가지 모양의 피상한 짐승들이 육식거리는 장글도, 기기묘묘한 아름다움으로 이채로운 해변가의 망그로브숲도 처음이다.

푸르청청한 적도의 하늘아래서 내 몸그림자가 감쪽같이 없어진 현상도 처음 당해보았다. 그랬을 때 나의 머리속에는 퍼그나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 중편소설 《그림자 없는 사나이》가 문득 떠올랐다. 제몸그림자를 판돈으로 실컷 환락을 누리보자던 한 벼락신사가 마귀로 몰려 갖은 봉변을 다 겪다 못해 그림자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태어난것은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와 덕이라더니 누구나를 그림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적도대자연의 마술같은 조화야말로 그렇게 기발하고 엉뚱한 환상적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한것이나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생소한 이 열대세계에는 아득한 태고적,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방불케 하는 벌거숭이사람들의 야생초막으로부터 현대의 고도최첨단, 과학문명이 창조해낸 로보트안내원이 반겨맞아주는 최신식호텔에 이르기까지 별별 희한하고 진기한 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빛다른 이 먼 남방나라에서 정작 나를 깜짝 놀라게 한것은 나에게 전혀 생소한 그 모든 희한하고 진기한것들이 아니었다.

…그 일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있다는 열대식물원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리게 된 어느 한 다방에서 있었다.

코코야자나무들과 종려, 바나나나무들이 늘씬한 키들을 솟구며 널려서있는 풍치아름다운 호수가의 별장촌에 자리잡은 그 아담한 단층건물은 네 벽이 온통 록회색투명유리로 되어있는데다 지붕에 떠이고있는 《스코르》라는 이름자마저 시원한 열대의 소나기라는 의미를 띠고있어 그안에 들어가지만 해도 대뜸 선선한 기분을 느낄것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나들표식이 찍혀있는 자동개폐식유리문앞에 다가서자 소리없이 절로 문이 열으로 밀리면서 선기를 느낄만큼 차거운 기운이 쏟아나왔다.

순식간에 김이 뿔양게 서리어 타래치는 문간으로 무심중 들어서던 나는 그안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소리에 놀라 멈춰섰다.

이 어인 일인가?

나는 직업적인 전문음악지휘자다. 남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나 더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나의 귀가 사랑하는 제 딸자식이 부르는 노래소리와 내 온몸의 신경계통과 근육조직마저 그 선율모양대로 패버렸다고 할만치 나에게 익혀져있는 내 나라의 음악을 빗들올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허둥거리는 눈길로 넓지 않은 홀안의 여기자기 널려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가지 피부색, 여러가지 모양으로 생긴 여러가지 차림새의 그 많지 않은 손님들속에 머나먼 조국땅 한끝에 두고온 내 딸이 끼여있을리는 만무했다. 그대신 내 눈에 잡혀든것은 간이매대의 한 옆에 놓여있는 은백색립체록음기였다.

나는 한동안 자리에 앉을념도 못하고 거기서 울려나오는 음악소리에 귀기울인채 서있었다. 몇만리 타국땅에서 내가 무척 사랑하는 내 나라의 노래를 대하노라니 어쩐지 울음이 복받쳤다. 도대체 저 소리를 누가 여기까지 날라왔을까?

아쉽게도 그 노래가 끝나자 잠깐 사이를 두고 록음기에서는 다른 음악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유명한 빼루민요전주곡이었다.

나는 아무데나 가까이에서 눈에 띄는 빈자리에 앉았다. 기다렸던듯 접대원이 곁에 다가오더니 레절스럽게 주문식사안내서를 내밀었다. 얼음보숭이를 청했다.

《방금전에 지나간 그 음악이 다시 요구되지는 않습니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여주는 접대원을 나는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한때는 금발의 미청년이였겠음을 아직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는 반백의 백인계 중늙은이었다. 선량한 푸른 눈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알았다는 표정만 보이고 물러가더니 테프를 후진시켜 내가 바란대로 해놓은 다음 주문음식을 담아들고 되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짹막하나 진정어린 나의 인사에 그는 약간 어줍어하는듯 한 겸손한 미소를 보이면서 더 요구되는것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만일 지장되지 않는다면… 한두가지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뭘지 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묻기 전에 그가 앉기를 권하였으나 그는 사양하고 그냥 서서 응대했다.

《당신은… 실례되는 질문같습시다만… 내가 저 음악을 다시 들었으면 하는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파랑눈은 칭찬을 받았을 때의 어린애처럼 반짝였다.

《그건… 여기에 들어서시면서 저 음악에 귀를

기울이던 손님의 표정이 말해주었습니다. 표정 < 문자>도 음악처럼 순 감정언어로 쓰여지는것이어서 말없이도 통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저 음악을 무척 좋아하기때문에 매일 몇번씩 들곤 합니다. 여기에 오는 많은 단골손님들도 저 명곡을 각별히 좋아해서 다시 틀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곡입니까? 그야말로 세 계명곡이지요.》

머리가 비어있지 않은 사람다운 대답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노래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음악기재상점에서 사온 <현대세계명곡알범>중에 있는 한 테프입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다른데서는 사기 어렵지만 음악기재상점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복사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물러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세계명곡!

어쩐지 나는 자기 몸이 차츰 허공중에 둥 떠오르는것 같은 느낌속에 빠져들어갔다. 광활한 우주공간에 나와 오직 그 음악만이 존재하고있는듯한 환각의 세계가 나를 지배했다. 자신의 창조물이 세계적인 찬탄을 받을 때 그 당자가 감동하게 되는 최상의 희열이 과연 어떤것이겠는지를 나는 형용할수 없이 가슴부푸는 야릇한 쾌감속에 난생 처음 맛보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하나의 가슴저미는 추억이 나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래웠다. 우둔하기 짝없던 내가 과연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른번 했는가? 그 일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5월이 되면 공원속의 도시, 꽃의 도시인 평양은 어디서나 신록이 무르익고 꽃향기가 짙다. 특히 5월중 하순에 만발하는 아카시아꽃들은 더없이 짙고 풍만한 향기로 꿀벌떼, 나비떼들을 유혹하여 나뭇들인다. 그 취할듯 한 꿀원천을 찾아서 5월이면 먼 북방땅의 양봉공들도 술한 꿀벌들을 거느리고 평양교외지역으로 몰려든다. 밤에도 꿀벌들이 잉잉거리는 향기로 포인 아카시아나무밑으로 거니는 봄밤의 산보멋은 또 어땠하랴. 실로 평양의 5월은 꽃향기와 꿀냄새, 거기에 더하여 아름다운 수도의 너인들이 풍기는 향수냄새로 차고넘친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창조집단인 우리 도예술단성원들이 평양으로 올라간 때가 그런 5월, 바로 1973년 5월말이었다.

꽃계절의 절정기를 맞고있는 아카시아나무들은 끊임없이 몰려드는 꿀벌떼들에게 뒤덮여 오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적인 수도의 향취를 한가로이 즐길만 한 마음의 여유를 못가지고있었다. 우리가 평양에 올라간것은 지난해 봄의 첫 시연회에서 실패한 다음 웅근 한 해동안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여 완전히 새롭게 만들다싶이 한 가극을 지체없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보여드리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루라도 더 빨리, 그것도 걸작으로 완성하자는 속심에서였다. 우리는 무척 초조한 심정들이었다.

달이 멀다하게 나오는 새라새로운 혁명가극들의 탄생은 우리들의 조바심을 자아냈다.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우는 거리의 요소요소에 이미 창조된 《피바다》, 《꽃파는 처녀》등과 같은 본보기혁명가극들과 어깨나란히 대문짝보다 더 크게 우뚝우뚝 세워져있는 여러 가극의 대형간판들은 우리에게 렬등감을 안겨주었다. 그중 어떤 가극들은 우리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했었는데 우리보다 앞서 꽃피워가지고 벌떼나뭇들이듯 술한 관중들을 끌고있는것이다. 평양의 신록풍경, 대자연의 꽃향기도 손상당한 자존심과 당앞에 진 죄악감으로 하여 벅글거리며 희희낙락할수 없이 된 우리들에게는 마음이 끌리지 않는 유혹물이였다. 그 꽃향기라는것이 축복받은 승리자들을 위해서 자연이 베풀어주는 혜택임에랴.

멋들어진 풍치가 다 뭐가. 우리는 그런것에 눈을 팔 생각도 없고 경황도 없다. 산보도 없고 휴식도 없다. 우리 가극의 대형간판을 보란듯이 내걸기 전에는 오직 창조, 형상, 런마밖에 없다!

려장을 풀어헤친 대극장 안무대와 복스가 곧 그대로 식당이 되고 침실이 되고 우리 생활의 전체 령역으로 되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쪽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지휘봉을 찾아들고 목청을 돋구어 소리소리 질러가며 가수들과 악사들을 다몰아댄 낮과 밤... 팔힘이 진하여 지휘봉을 떨어뜨리고 더이상 서있을 기력이 없어 주저앉았다가도 그렇게 잠시나마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을수 없는 자기 처지를 문득 자각하고 뛰쳐일어나 다시 지휘봉을 쳐들고 다시 소리지르고 다시 다몰아대면서 맑는줄도 어두워진줄도 모른채 맞고보낸 새벽과 저녁... 우리는 바깥세계와는 스스로 높은 담을 마음속에 쌓고 지냈다.

(우리의 대형간판을 내붙이기 전에는 바깥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리라. 패자의 가공처량한 물골로는 이제 다시 제집으로 발길을 돌리지도 않으리라.)

남모르게 간직한 우리들의 이런 심정, 그 숨은 애씀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새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평양에 올라가 며칠도 지내지 않은 우리에게 각별한 혜택을 베풀어주시었다. 새로 만든 가극의 기본 음악들을 들어봐주시겠다시며 주요관계자들을 찾으신것이다.

기본가성곡들만 합격이면 가극은 다 되는셈이다.

새로 만든 가극의 성과여부가 밝혀지게 될 그 좌석의 얼마 안되는 참석자명단에는 나도 끼여있었다.

곧 떠날 차비를 하고 앞마당에 대기하고있는 소형버스에 나가 타라는 지시를 받아안은 순간 후둑! 하고 대뜸 세차지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가 들렸다. 애타게 바라보고 바라던 순간이었으나 정작 닥치게 되자 가슴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면도질하는 손이 후들거려 턱밑을 살짝 베고말았다. 갈아입는 와이사프단추조차 손쉽게 채워지지가 않았다.

소형버스가 달리는 동안까지도 그안에서는 도

란도란 말소리도 들리고 웃음뎌 얼굴도 더러 보였지만 버스에서 내려 어느 한 현관문앞에 다가갈 즈음에는 다들 긴장한 침묵속에 잠긴채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후두두해져 보이지 않은적이 나는 단 한번도 없다. 아무리 자신있게 준비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조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야릇한 위구심(불합격되면 어찌나 하는)에 짓눌려워 심장이 줄아들고 몸전체도 줄어드는듯 한 느낌이 들곤 했다.

나는 긴장으로 하여 한껏 줄어든듯싶은 몸을 웅크리고 음악계중진들의 여러 잔등들 뒤에서 주춤주춤하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시는 방에 들어섰다.

《아, 지금들 오십니까? 그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보고계시던 문건을 왼손에 그냥 드신채 우리를 반겨맞으시며 매 사람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었다. 1년전에 있던 첫 시연회날 내가 처음 뵈었던 때처럼 회색양복차림이시었다. 나는 몇번이고 큰숨을 들이그으며 차례를 기다렸다가 용기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뵈는 그이께 제자신을 소개해올리며 마음속으로 간직해온 인사말씀도 겸해 받쳐드리고 싶었지만 첫마디부터 목에 걸려 그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

《목을 너무 혹사시켰구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시는 런던의 정 넘치는 말씀이시었다.

《오늘 지휘자동무한테는 될수록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서 저리 가서 편히 앉으시오. 동무야 이런 때 좀 다리쉽이라도 해야지 언제 앉아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류달리 더 복신편신해보이는 팔걸이결상이 있는데로 몸소 나를 이끌어다 앉혀주시었다. 그 살들함에 나는 코허리가 시큰해났다.

뵈기 전에는 어려움만 앞서 어떻게 뵈오려 걱정스럽다가도 정작 뵈우게 되면 순간에 뜨거운 육친적인 친애감에 적셔들게 하시는 이 비범한 친화력과 특출한 우애심! 이래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만나뵈울수록 더더욱 마음끌리는것이 아닌가! 내 머리속에는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비껴들었다.

우리들이 다들 자리잡고앉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곁에 앉은 일군들에게 그간의 가극창조정형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시었다.

거리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집무실과는 달리 별도로 꾸려진 방이였다. 서가에 꽂혀있는 서적들과 록화, 록음테프들, 록화기와 록음기, 전축과 레코드판들이 들어있는 장... 방안에 구비되어있는 모든 비품이 숭엄한 음악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바로 내옆의 벽면에 서있는 서가에는 고전적인 작곡거장들의 이름이 찍혀져있는 장서들이 주련이 꽂혀있었다. 책표지들의 색깔부터가

그 어떤 고전적인 위압감을 주는듯싶은 그 책들은 나에게 야릇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세계적인 음악거장들도 초청을 받고 여기에 방청으로 참석하여 우리가 만든 가극의 기본노래를 어디 좀 들어보자고 귀를 강구고있는듯 한 기분이였다.

《간단히 들어봐도 그간 동무들의 수고가 여간이 아니었는데 이만하고 더 시간을 끌것없이 노래부터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윽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노래명제와 장면설명 그리고 가사들이 타자쳐있는 자료문건을 펼치시었다.

우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정숙을 지켰다. 바스락소리 하나 없는 엄숙한 침묵이 서린 가운데 그이께서 손수 록음기의 가동단추를 누르시었다.

푸른 반디불이 켜졌다.

결과를 지금은 도무지 예측할수 없는, 그래서 가슴조임을 도무지 피할길 없는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였다.

문득 먼 하늘끝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 그것이 몇차례 거듭되면서 차츰 가까이로 옮겨왔다.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세차지기 시작했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천둥우뢰소리, 포효하는 자연의 거세찬 울부짖음소리... 나에게서 수십, 수백번이나 귀에 익은 소리였다. 나의 지휘봉이 저렇게 먼 우뢰소리부터 불러낸것이 과연 옳았겠는가? 오히려 하늘땅을 진감하는 노한 우뢰소리로부터 시작하는것이 곡상을 살려주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였을가?

수십번이나 뒤편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전주곡의 시작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결정적인 이 시각에 와서 다시금 머리속에서 란투를 벌렸다.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것이 어찌하여 갑자기 동요를 일으키는가? 자기의 능력에 대한 돌연한 회의심이 나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심을 못가지게 하였다.

아무리 뛰어난 준마라 할지라도 능력없는 기수를 만나게 되면 그 뛰어난 자질을 제대로 발휘해낼수 없다.

나는 능력없는 지휘자탓으로 훌륭한 음악작품이 청중들앞에서 보잘것 없는 졸작으로 되고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것을 알고있다. 악상을 옳게 파악할줄 모르고 형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릴줄 모르는 지휘자를 만난 신작의 경우에는 거의나 파멸적이다. 대중에게 주는 첫인상을 망쳐놓음으로써 만회할수 없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저주받을 지휘자로 란인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없었다. 나는 우리의 새 가극을 위하여 골라낸 음악들이 얼마나 엄정한 선택을 거쳤는지를 잘 알고있다. 지난해의 제1차 시연회에서 가극음악이 전면적인 부결을 당한 이후 작곡가들은 무려 3천여편이나 되는 곡을 새로 작곡해냈다. 그가운데서 선택한 곡이 지금 시청이 시작된 40여편이다. 3000 대 40, 즉 80 대

1이라는 엄청난 비율로써 골라낸 곡들이다. 3000편 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낸 40개의 곡이 호평받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음악형상을 잘못 이끈 나의 둔재타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앓음새가 더더욱 불편스러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아까부터 응접탁 한옆에 쌓여있는 문건들을 검토하고 계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각 분야의 사업들과 관련한 문건들인듯 하였다. 그이께서는 시청에 방해될세라 조심스럽게 한장한장 번지시며 때때로 몇글자씩 적기도 하시었다. 녹음기에서 올라나오는 음악이 바뀔적에는 녹음기앞에 펼쳐져있는 장면설명문에 잠깐씩 시선을 돌리곤 하시었다.

그 문건들이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부단히 옮겨지면서 높이가 달라져갈수록 나의 이마와 목덜미와 거머쥔 손바닥에서는 더 진땀이 났고 입술은 탈탈 말라들었다. 땀방울이 눈에까지 흘러들어 가뜩이나 충혈된 눈이 아렸다.

나는 몇번이나 안경도 벗어담고 얼굴과 목덜미도 훑쳐냈다. 머리속이 지끈지끈 쏘았다. 귀속이 멍멍하여 나중에는 음악형상이 제대로 났는지 어떠한지 도무지 가늠할수조차 없었다. 온통 왕왕거리는 소리의 울림이 계속되고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마침내 고조되었던 관현악과 《혁명가》의 합창소리가 끝나고 방안은 불시에 조용해졌다. 녹음된 음악이 마감을 지은것이다.

금시 비여버린듯 한 귀안에서는 잉- 벌이 날아에는 소리와 흡사한 기이하고 가냘픈 소리아닌 소리가 떠돌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에 잡고계시는 싯한 원주필 뒤등으로 문건장우에 천천히 동안이 뜨게 그루를 박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가슴조이는 침묵 또 침묵...

한동안이 지나서야 좌석에 서린 숙연한 침묵을 깨치며 그이의 조용한 음성이 울렸다.

《동무들의 충혈된 눈과 부르튼 입술을 봐서는 귀맛좋은 말을 해줘야겠지만 나는 귀맛이 나쁜 노래를 듣고 귀맛좋은 소리를 할순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 자신의 피로움을 애써 짓눌러버리시는 그이의 음성에는 가는 한숨이 비껴있었다.

《수고는 수고이고 노래는 노래입니다. 수고는 컸지만 노래는 전반적으로 잘되지 못했습니다. 잘되지 못한 노래가 동무들의 큰 수고를 보람없는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웅근 한해동안 바쳐온 수많은 노력의 열매가 결국 물거품같은것에 지나지 않다니?!

나는 그이의 말씀내용을 받아적으려고 수첩을 펼쳐들고 만년필을 잡아쥐고있었지만 머리속이 어질어질하여 한자도 적지 못했다.

《원작과 영화에서 나온 노래들을 내놓고는 새로 만든 노래들은 거의모두 부르기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르기 힘들게 만들어졌기때문에 가수들도 부르기 힘들어합니다. 가수들이 부르기 힘들어하니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동무네가 한번 다시 들어보시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수 녹음기를 다시 돌리시면서 주인공의 한 독창곡을 찾으시었다. 녹음기에서는 갑룡이의 피땀한 심정을 하소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에게서 술한 성화를 받으면서 가수가 힘겹게 뽑아낸 선물을 재삼 들으면서 나는 오직 자신과 가수의 못미치는 능력에 대하여 한탄하던 지난 일을 돌이켜보았다.

《보시오. 전문가수도 부르기 힘들어하는 이런 노래를 일반대중이 어떻게 불러내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노래를 인민이 어떻게 리해해내며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몇곡 더 들어들 보시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또 다른 곡들을 찾아서 들려주시었다.

나는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몇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놀라운 천품을 지니고계신다는 말을 여러번 들은적이 있었으나 음악과는 무관계한 그 수많은 문건을 검토하시면서 들으신 음악에 대하여 그토록 정확히 가려내시는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골라서 들려주신 곡들은 정말 싯통히도 모두 부르기 까다로운 곡들이었다.

새로운 귀로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나는 좀전까지도 가곡의 성과여부가 부르기 힘든 까다로운 곡들 자체에 달린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악상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형상자들의 저급한 능력에 달렸다고만 생각해온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싯패의 원인이 형상보다는 곡 자체에 있다는 새로운 인식은 나에게 위안으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심을 덧쳐주었다. 글렀다고 지적되는 그 노래들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왔으니 얼마나 무지스러운 음악가인가? 나는 붉어진 얼굴을 쳐들지 못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고 녹음기를 끄시고 말씀을 다시 꺼내시었다.

《더 들어보나마나 피장파장입니다. 대체로 거

의 다 한본새로 부르기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저저마다 속이 한줌만 해서 눈들을 내리간채 숨소리까지 죽이고들 앉아있었다.

《그것은 동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우리 식 혁명가극의 제반창조원칙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유럽아리아식가극창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은탓입니다. 유럽고전가극은 전시대의 산물로서 유럽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그들의 미감과 정서와 발성법에 맞게 창조된 가극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과 빠다를 좋아하지만 조선사람들은 밥과 고추장을 좋아하며 국수와 김치를 좋아합니다. 풍부한 조선선물을 가진 노래라야 우리 인민들이 환영하며 즐겨부르고 사랑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듣고 이해할수 있는 까다로운 남의 식 노래는 우리 인민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며 인차 따라부를수 있는 우리 식의 통속적이며 인민적인 노래, 민족적향취와 색깔이 풍부한 부드럽고 서정적인 노래, 유순하고 우아한 조선식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나의 수첩장에는 나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치》, 《국수》, 《조선식선물》... 이런 단어들 이 적혀졌다. 후들거려 아무 글도 쓸수 없었던 손이 어느새 진정되어 그 말씀마디들을 받아 쓸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얼굴도 저절로 들려졌다. 지적받은 처지임에도 얼굴을 들기가 두렵지 않은것은 어째서일까?

나에게 있어서도 확실히 김치나 국수이상으로 맛있는게 없었다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의 진리를 새삼스레 깨우치게 된 기쁨때문일까? 아마도 그때분이었던것 같다. 나는 저오기 편안해진 몸가짐으로 또 한결 더 말을 잘 듣는 손을 부지런히 놀려 결합시정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이의 말씀을 속필로 적어나갔다.

그 말씀이 끝난 뒤였다.

《그런데 전번 시연회때 3장에 나왔던 그 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물으심을 받은 우리는 다들 어리둥절했다. 어느 노래를 두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인차 가늠이 가지 않았다. 이미 한해이상 지나간 전번 시연회때의 노래들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지도 아득했다.

몇몇 사람의 얼떨떨해하는 기색을 살피시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총지휘자인 나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전번 노래들의 사정을 잘 알리라고 여기시고 나의 대답을 기대하신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대답을 못올린채 머리속으로 망각하고있었던 노래의 더미를 맹렬히 뒤지였다. 그때의 3장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으며 그 장면장면들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그간 가극을 위해 작곡된 수천권의 곡들가운데서 어느 한때 선택되었다가 버림받은 노래들만

도 수백이나 된다. 그 수백권의 곡들도 역시 이미전에 내버린 수천권의 노래무데기에 섞여버렸다.

이미 망각의 먼지를 뒤집어쓸대로 써서 어느게 어느겐지 분간할수조차 없는 오래된 노래무데기 속에서 나는 종시 그 형체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안타까이 방황하는 나를 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귀뜸해주시였다.

《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자연주의적으로 되었던 노래말입니다. 저 산우에 두둥실 둥근달 솟아올라 어찌 어찌 한다는...》

《아!-》하는 탄성이 가슴속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 나의 눈앞에서는 거대한 섬광이 번뜩였다.

눈부신 태양의 섬광이었다!

그 눈부신 섬광이 망각의 먼지를 뒤집어쓰고있는 하나의 형체를 단박에 알아보게 해주었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치네》였다.

수십권의 노래들로 엮어진, 세시간동안이나 걸리는 가극 한 대목에서 얼핏 나왔던 그 노래를 어쩌면 이미 한해나마 지난 지금까지도 가사구절마저 잊지 않고계시는지 그 비범한 기억력에 나는 그저 놀랍기만 했다.

《생각나는 모양이구만. 오늘은 그 노래를 못들었는데 동무들이 그 노래를 슈아내버린게 아십니까?》

《네... 가사도 자연주의적으로 돼있고... 곡도 설익은감이 있어서 ...》

나는 떠듬떠듬 대답올렸다. 목선탓도 있었지만 그 노래에 대한 우리들의 처사가 혹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기때문이었다.

《았으시오.》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창밖의 푸른 공간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로 걸려있는 몇줄의 안테나선들우에 여러마리의 제비들이 여기저기 널려 앉아있었다. 그 제비들은 마치 오선지우에 자리잡은 음부기호들처럼 보였다. 만일 그 제비들을 음부기호로 간주한다면 저 푸른 공간에서도 음악은 무시로 창조되고있다. 나에게는 그 푸른 공간에서 창조되고있는 짧은 악보의 음악선물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음악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마음의 귀로 음악을 듣는 때가 종종 있다.

(바로 지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도 심중에서 울리는 음악을 듣고계시는것이 아닐까? 전번 시연회때의 3장에 들어있던 그 노래를.)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치자마자 나는 곧 창밖의 먼공간으로 향해지신 그이의 시선에서, 음악적명상에 잠기신 그이의 침중한 안색에서 확실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억속의 선물을 더듬으시며 그 노래를 새삼 음미해보고계신다는것을 직

감하였다.

한잠만ैया 그이께서는 숙연한 침묵을 지키며 앉아서 기다리고있는 우리들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리시였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동무들이 그 곡의 금새를 잘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가벼운 나무람이 비껴 어조였다.

《작년에 있는 첫 시연회때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작곡가가 누군가고 물어보니 옆에서 음대를 갖 졸업한 신진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그 노래는 가사가 자연주의적으로 된 결함이 있을뿐아니라 곡도 아직 작곡경험이 거의나 없는 신인작곡가의 작품이니 동무들의 말대로 설익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에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민족적인 정서가 깃들어있습니다. 그 곡에는 독특한 자기 색깔을 가진 선율이 있습니다.》

록음기옆에 놓인 전화기에 푸른 신호등이 소리없이 켜졌다. 하시던 말씀을 일시 끊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알겠습니다.》

짙막한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전화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들춰보신 다음 다시 끊었던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그 곡을 한번 들었지만 지금도 선율이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 선율을 잘 살리게 되면 들을수록 좋고 맛이 나는 명곡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혁명가곡들을 명곡들로 가득찬 명가곡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동무들이 그런 명곡감을 내버리면 뭇을 가지고 명가곡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가곡이란 말그대로 시종 노래로 곡을 엮어나가는 예술인것만큼 명곡이 없이는 아무리 이야기거리가 좋아도 명가곡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동무들이 가지고 온 노래들을 듣고 우리가 아직 더 많은 품을 들여야 가곡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것도 명곡이라고 할만한것이 별반 없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검토를 마치고 한편에 쌓아놓으신 문건들을 간중그리시며 말씀을 마감지으시였다.

《이제 동무들이 돌아가서 그 노래를 찾아내여 다시 주의깊게 들으면서 잘 음미해보시오. 그러면 그 곡의 금새를 제대로 알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식 가곡방정식을 푸는 비결도 찾아낼수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기본적으로 할 이야기도 했고 다른 사업도 기다리고있으니 이만 헤어 집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일어나시였다. 아쉬운대로 우리들도 그이를 따라 일어났다. ...

(어찌하여 곡의 금새를 나는 제대로 헤아려내지 못했을까?)

나는 이런 의혹을 풀지 못한채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대극장으로 돌아왔다.

가곡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겠는지 가슴을

조이며 안타깝게 기다리던 전체 창조집단성원들이 와 달려들며 뺄스를 둘러쌌다. 그들은 뺄스에 실려간 무거운 침묵과 희색이 없는 우리들의 얼굴빛에서 벌써 판결이 비판적으로 내려졌으리라는 것을 알아챘겠지만 우리 입에서 직접 갔다는 사연의 전말을 듣고싶어 저저마다 달라붙었다.

나는 그 못사람들을 가까스로 떠밀치고 텅빈 극장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복스의 한구석에 처박아둔 트렁크를 열고 그안에 들어있는 낡은 악보봉테기를 꺼내 터쳐놓고 황황히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한때는 우리 가곡의 노래로 선발되어 훈련무대에까지 올랐으나 버림받았던 노래들의 악보봉테기들이였다, 뒤지는 낡은 악보장들에서는 매캐한 먼지가 일었다.

한참이나 뒤진끝에 나는 마침내 퇴색하고 구겨지고 가생이가 찢긴 그 노래의 악보장을 찾아냈다. 그런대로 악보가 있는것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그자리에 주저앉아 악보를 읽기 시작하였으나 시창으로 음미해본다는것이 아무래도 성하지 않아서 무대로 뛰어올라갔다. 그 무대 한옆에 피아노가 있었다.

나는 피아노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손놀림련습도 없이 악보가 제시하는대로 건반을 짚어가기 시작했다. 오직 나 한사람밖에는 아무도 없는 텅빈 대극장안의 넓은 공간에 울려퍼지는 피아노소리에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도사렸다.

나는 자기의 악기다루는 솜씨가 별로 신동치 못하다는것을 알고있다. 내가 나서자란 궁벽한 우리 산골에는 기타정도의 대중악기조차 시오리나 떨어진 중학교에 하나였을뿐이여서 나는 옆구리에 수수비자루를 끼안고 입소리를 내어가며 기타타는 연습을 시작했었다. 피아노는 어느 방학때 먼 읍에 있는 고모집에 가있을적에 야음을 타고 울려오는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나를 현혹시키는 소리를 찾아 몽유병자마냥 정신없이 뛰여든 고급중학교 음악홀에서 처음 구경했었다.

그 고중의 처음음악교원이 때늦은 나에게 피아노를 배워주었다. 그렇다. 너무나도 때늦은 악기들과의 접촉이 음악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나로 하여금 연주가의 길이 아니라 지휘자의 길을 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내자신의 그 변변치 못한 솜씨로 타고있는 피아노소리가 전연 서툴지도 부자연스럽지도 않을뿐아니라 그지없이 유연하고 정서적이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다는것을 느꼈다. 그 곡을 거듭 타볼수록 그런것을 더 강하게 느꼈다. 마치 스무해전 나를 그렇게도 매혹시킨 그 녀선생이 탔던 《산으로 바다로 가자》의 메아리와도 같이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충만된 음향의 황홀한 세계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내 솜씨가 기적적인 도약을 할수는 없다. 이것은 좋은 음악이 부리는 조화때문이다. 과연 이곡이 이렇게도 매혹적인데가 있었던가?)

나는 범상해질수 없는 눈으로 귀떨어지고 구겨지고 퇴색된 악보장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마리아 큐리부인이 자기가 발견한 라디움을 사람들이 내버린 광석찌꺼기에서 처음으로 추출해냈을 때 그 현란하고 신비한 빛에 황홀해졌다더니 나야말로 내자신이 내버렸던 그 낡고 구겨지고 귀떨어진 악보장에서 불현듯 나타난 아름다운 음향의 빛갈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어째서 전에는 이런 금새를 모르고 내버렸을가?

자기판으로는 음악이 뭔지를 아노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 진미를 제대로 가늠해낼만 한 자질을 채 갖추지 못했던탓으로 작곡가의 명성에 따라 작품의 우열도 판단해버리곤 했던 결과가 그런 엄청난 사태를 빚어냈다는것을 깨우쳤을 때 나는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아, 얼마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인 혜안은 무지의 버림을 받아 망각의 무덤속에 파묻혀 영영 압살당할뻔했던 이 곡과 그것을 창작한 이름없는 작곡가의 재능을 살려냈을뿐만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범인》으로 될뻔 했던 우리들까지 구원해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이를 우러러 경건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며 생각했다.

무지스러운 눈에는 금광도 막돌로 보이고 수정도 유리로 보이며 산삼도 도라지처럼 여겨지며 진탕속의 진주도 가둑일에 달린 구슬보다 못해보인다. 오로지 현명한 눈만이 무지의 업실을 받는 광석찌꺼기에서 라디움을, 막돌같은데서 금을, 진탕속에서 진주를 보아내고 찾아낸다.

…후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친히 그 제목을 《꽃피는 이 봄날에》라고 고쳐 달아주신 명곡은 그렇게 찾아지고 소생되어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광채가 지금처럼 현란하지는 못했었다. 그것은 아직 닭아지지 않은 진주였고 채 탁마되지 못한 보석이었다.

그 이듬해 초봄.

우리 가극이 마침내 마지막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어 무대미술가들이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개막을 알릴 대형간판을 한창 성수나서 그리기 시작했던 무렵의 어느날 새벽이었다.

최후의 검열시연공연을 앞두고 그 새벽에도 신이 나서 지휘봉을 휘둘러대고있던 나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몇몇 작곡가들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새벽 세시쯤 되는 시각이었다.

우리를 맞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퍼그나 쾌활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자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들 있다가에 새벽바람도 쏘일겸 잠깐 머리쉽도 할겸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사이다도 권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올려보낸 3장의 노래를 몇번 들어보았는데 노래가 아주 좋아졌다고, 동무들과 같이 앉아 다시 들어보고 악보와 테프를 가져가게 하자고 이렇게 찾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 틀어놓으신 녹음기에서는 음악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협주곡으로 편곡된 우아한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이어 청아한 녀성방창성원들의 화성이 뒤따라나왔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날은 찾아와
종달새 노래하고 실버들 춤추네
아 눈물속에 헤여지더니
꽃피는 이 봄날 다시 만났네

절이 바뀌여지자 이번에는 주인공 갑룡이의 남성독창이 선창을 하고 녀주인공 금순이의 녀성독창이 뒤를 받다가 둘이서 함께 2중창으로 후미를 장식하였다.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
아 우리 서로 일해가면
눈물어린 땅우에도 기쁨은 오리

맨 마지막에 후단을 더욱 풍만하게 채색하는 남녀소방창성원들의 합창성이 길게 여운을 끝다가 아물거리는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날아나 사라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녹음기를 끄시였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만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있었다.

《노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설익어서 좀 뽕구 시큼털털한 맛이 났는데 이제는 꽤 구미가 동하게 익었던 말입니다. 동무들이 이 노래를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익히느라 그동안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되살려낸 공로가 마치 우리들에게 있거나 한듯 우리를 치하해주시고나서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다들 만족해합니까? 무슨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들가운데는 그 노래에 대하여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노래를 수십차례나 합평해가며 다듬고 완성했던것이다.

《아무 의견도 없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였다.

《그렇다면 한번 더 들어봅시다. 조금이라도 거

슬리는데가 없는지 잘 새겨가며 들어들 보시오.》
그이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노래를 다시 들려주시는데는 필경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된 나는 바삭 정신을 도사리고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어느 한군데서도 거슬린다거나 어색하다거나 아쉽다는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무랄데가 없어보였다.

《다들 어떻습니까?》

노래가 끝나자 그이께서 물으시었다.

우리는 다들 별다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악보장을 당겨다놓고 연필로 세번째 행을 가리키시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동무들은 잘 넘어갑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행을 악보대로 시창해보았다.

아 눈물속에 헤여지더니

잘 넘어가는것 같았다. 조금도 이상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손바닥에 티같은 이빨가시가 하나 배겨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다시금 물으셨지만 우리는 머리를 기웃거리기만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곡의 매 소절, 가사의 매 구절들을 따로따로 그으시며 자신께서 느끼신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었다.

《이것 보시오. <아>하고 감정을 뿜는 부분에 한소절만 배당해주고 둘째 소절에 가서는 인차 <눈물속에>하고 넘어가니 <아>하고 감정을 내뿜어야 할 대목이 막혀서 시원스럽지 못한감이 나는 반면에 그뒤의 <헤여지더니>는 가사글자수도 몇이 안되는데 두소절에다 넣어놓으니 빨래줄처럼 축 늘어진채 탄력이 없고 맥이 빠지는감이 나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아>하는 발성부분을 두개 소절로 늘려서 여덟박자로 길게 뽑아주게 하고 나머지의 두 소절에 <눈물속에 헤여지더니>를 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손수 《아-》하는 감동사가 달린 부분을 두개 소절로 늘려놓으시고 그뒤의 가사들을 세번째 소절로 옮겨놓으시었다. 그리고 친히 곡까지 붙여주시었다.

활달하신 필체로 수정가필하시는 가사와 곡을 따라가며 시창하던 나는 부지중 《아!》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놀랍게도 노래가 한번에 확 살아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높이로 날아오른것이다.

이 무슨 신비한 기적인가!

그 경이로움에 놀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르는 순간 나의 눈앞에서는 그 언제처럼 또다시 강렬하고 거대한 섬광이 번쩍! 일었다.

눈부신 태양의 섬광이었다.

눈부신 천재성의 섬광이었다.

그 빛을 본 나는 눈이 부셨다. 접할 때마다 매번 감수하게 되는 비범한 그이의 천재적예지가 눈부시었다.

천재는 언제나 천재적지혜를 발산한다. 눈부신 태양이 언제나 눈부신 빛발을 뿌리듯이.

태양은 눈부시다.

볼 때마다 눈부시다.

언제나 눈부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천재적예지, 저 눈부신 천재성의 섬광이 없다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빛있는 존재로 되랴? 태양이 없이는 못행성들도 빛을 못가진다. 태양빛의 덕을 입어 암석덩어리가 빛을 가지는 달로도 되고 새별로도 되며 인공위성까지도 빛을 가진다. 진주보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캐내어 닦아주고 빛을 주어야 아름다움을 빛낸다. 인간의 재능도 찾아주고 아껴주고 보태주고 빛을 베풀어주어야 빛을 낸다. 우리들에게 향시 은혜로운 지혜의 빛발을 주는 위대한 광원이 있는 한 조선은 거대한 재능의 재부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리라.)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지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동반구에서 서반구까지 전파되어 오늘날에는 세계지도에 작은 몇개의 점으로만 찍혀져있는 이 머나먼 열대의 섬나라에서까지 현대세계명곡으로 그 현란한 음향의 광채를 펼치는 조선의 명곡들은 하나둘만이 아니다.

누리에 떨치고있는 현대조선의 자랑거리들도 또한 어찌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것이라.

이것은 대양에서 파도치며 튕겨오른 비말중의 하나, 한개의 물방울같은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가시는 우리 조국을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단기간에 오늘날같은 영예의 뫼부리우에 올려세워놓으신 김정일동지의 진폭이 넓은 그 위대한 령도의 다면성과 풍부성에 비한다면 이것은 단 한줄기의 빛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 하많은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하지만 한줄기의 빛의 세기만으로도 능히 광원 전체의 광도를 가늠할수 있다.

센 빛은 한줄기만으로도 눈부신 법이다.

태양은 작은 구멍으로 마주봐도 눈부시다.

그해는 신년사가 없었던가

리남준

온 한해 인민들속에 계시며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
새해의 첫 아침이면
인민들과 나누실 이야기 얼마나 많으랴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의 가르치심 등대처럼 따르며
천리마를 타고 달려온 인민들
또 한해의 위대한 구상 받아안으려
어버이수령님의 그 음성 기다리는데
온 세계가 평양의 파장에 귀 기울이는데

축원을 안고 기다리는
새해의 그 아침
우리 수령님 계신 곳은
새해의 높은 연단이 아니였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한 로투사의 침상을 찾아
새해의 첫 자욱 찍으시였다

그 아침
우주공간엔
유능한 의료진을 부르는 전파가 날고
한 전사의 생명을 위한 긴급협의회가

새해 첫 사업으로 벌어졌다

나와 함께 병을 이겨내자고
어버이수령님 전사의 맥박을 짚어보실 때
혈관을 타고 흐르던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정
전사의 피가 되고 열이 되고
삶이 되었거니

병을 털고 일어설
전사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우리 수령님 태양과 같이 환히 웃으실 때
이 나라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용암처럼 뜨겁게 굽이친것 무엇이던가

오 정녕
그해는 신년사가 없었던가
동지애로 새해의 첫 새벽을 여신
그것이 수령님의 신년사였거니
동지애로 무궁한 세월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품속에
그해의 첫 아침,
우리 조국의 새해는 이렇게 밝아왔다!

선군길에 부치여

권오준

길이여 길이여
세상에 수많은 길이여
너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그 어디나

내 다는 몰라도
인류가 생겨 첫 길을 낸 사람들이 있어
후세들이 그 자욱우에
삶을 엮고 운명을 실었음을 내 아노라

돌을 다듬어 창을 만들어
수렵하던 인간들이 낸 길은
세월의 이끼에 덮이고
봉건의 채찍아래
노예의 멍에 무겁던 수레 굴러가던 길들은
력사의 락엽속에 묻혀버리고

인류에게 자본의 철쇄를 부시고
새 사회의 미래를 예언한 그 길도
제국의 아성을 들부시고
10월 사회주의혁명이 열어 놓은 그 길도
수정주의탁류에 휘말려 흐려졌거니

오, 유일한 사회주의보루
동방조선에 결사의 대오를 이끌고
선군혁명의 길 그 진두에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백두산총대를 추켜드리고
거연히 서계시도다

이 땅에 선군길이 열려
력사의 락엽에 묻혔던
인간운명의 길 더 활짝 열리고
찬란한 미래의 기슭에 이미 닿아있어

운명의 그 선군길을
감사의 눈빛으로 쓰다듬으며
후더운 이 가슴에 품어안노라
품어안아
하늘우에 높이 쳐들어 자랑하고싶노라

보라! 세계여
동방조선에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길을
그 선군길에 별처럼 새겨진
우리 장군님의

빛나는 자욱자욱을

그 자욱은
105땅크사단
강철포신에 새겨져있더라
다박솔초소 흰눈에도 어리어있고
오성산마루에도 비껴있더라

그 자욱은
사연깊은 1211 고지
그 높고 낮은 령봉에도
적들의 총구와 맞붙은
최전연 판문점초소에도
감나무총대의 따가운 해변길에도 빛발치나니
아 그 얼마였더라
우리 장군님
이렇게 비장한 각오안고 가신 길

나는 보노라
뜻밖에 수령님을 잃고
산천초목도 몸부림칠 때
조선이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세계가 숨죽여 지켜볼 때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그 신념 그 의지를 안으시고
다박솔중대로 향하신 담대한 그 자욱을

누가 말했던가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령장의 한결음이
천백마디 연설보다 값있다고-

그러하도다
우리 그 말의 참뜻을
심장으로 폐부로 느낀 체험자 목격자
세월의 이끼에도 덮이지 않고
력사의 망각속에 지워지지 않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의 그 자욱을
자나깨나 가슴에 안고 산다

나는 아노라
원췌의 총구가 앞에 놓인
공기팽팽한 최전연초소에도
현현히 가신 그 자욱자욱이
선군길로 열려지고
《전선실록》으로 펼쳐졌나니

정녕 가볍게는 번질수가 없구나
《전선실록》의 갈피갈피를
비내리는 령길도
얼음칼린 굽인돌이도
미끄러지는 야전차의
아츠러운 그 동음소리도
무겁게 실리어있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실록》!

내 숨엄히 펼치니
뜨겁게 울려와라
최전연에만은
절대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아뢰는 일군에게
장군님 하신 그 말씀
-수령님께서 생전에
꼭 가보시겠다고 하던 부대인데
내가 가야 하오

갈리신 그 음성
가슴속에 고패치는데
또 한장을 펼치니
최전연의 아슬한 칼벼랑길에
남기신 그 음성
지금도 내 흥벽을 치노라
-자동차가 가지 못하면
차를 밀고서라도 감시다

파도높이 못가신다고
그리도 안타까이 막아나섰을 땐
날바다를 굽어보시며 하신 그 음성
-초도의 병사들이
나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 천리방선 그 어디에나 울리는
사랑넉친 그 음성이어
하늘길 바다길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선군령장의 불멸의 자욱이어

신입병사 귀속말도
다정히 들어주시고
너럭바위우에서 병사들과
소박한 야전식사도 함께 하신
전설같은 그 사연 담겨있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실록》

가슴에 안을수록
눈굽이 찢어터져 젖어들어
눈물이 앞을 가리워
네 더 번질수가 없구나
내 더 읽을수가 없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혁명재산

그 불멸의 《전선실록》을
그이께서 교묘한 서재에서 쓰시였던가

조용한 집무실도 아니고
온갖 꽃 피여웃는 정원도 아닌
적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최전방감시소에서
그리고 위장망을 친
전연초소 작전대에서 새기신
불멸의 《전선실록》이여!

오, 인류사에
그 어느 민족이
력사를 두고 자랑하는
백만장서를 가지고있다 하라

허나 우리 장군님
그이의 백만장서는
전선길에 새기신 자욱자욱
저 하늘의 억만별처럼 새겨진
《전선실록》이거니

그 《전선실록》
내 다시 펼쳐들고 생각하노라
우리 장군님
피어린 자욱으로 쓰신
이 선군대강이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은
력사의 시련속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으리
그 전선길 아니라
다른 길을 먼저 택했다면
조국의 오늘은 없으리
민족의 숨결은 멎었으리

아 길이어
장군님 불멸의 전선길이어
우리 조국의 천만운명이
이 길과 하나로 잇닿아있고
이 땅의 만년행복이 약속되어있는
위대한 령장의 선군길이어

가장 성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선군길로
조국이 씩씩하게 가고
영원한 미래가 웃으며 오나니

아 내 목청다해 노래하리라
우리 장군님의 끝없는 전선길을!
이 길에서 길이 번영할 우리 조국을
이 길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우리의 래일을
노래하리라 대를 이어 끝없이 끝없이 ...

산들이 접혀들어오다

조선독립을 위한 싸움군이 되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던 오순돌에게는 뜻밖에도 백두산대장수님이 거느리신 친솔부대에 입대하는 행운이 차례졌다.

(내가 대장수님의 친솔부대에서 싸우게 되다니?...)

오순돌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칠보산이 고향인 오순돌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북간도로 옮겨왔다. 그러나 그의 집은 이사집을 풀기 바쁘게 왜놈들의 대《토벌》로 불타버리고말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왜놈의 총창에 찔려죽었다. 순돌의 할아버지가 어린 그를 업고 백두산기슭으로 들어왔으니 망정이지 하마트면 오순돌이네는 산설고 물설은 이국광야에 영영 무주고혼이 되고말았을것이였다.

그때부터 오순돌에겐 살길이 열렸고 백두산공기를 마시면서 자라 이제는 당당한 백두산대장수님의 친솔부하로까지 될수 있었다.

이 손주가 백두산대장수님의 친솔부하가 되었다는것을 알면 할아버지는 제일 기뻐하실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할아버지는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손자에게 꼭 백두산대장수님의 술하에서 싸워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었다.

《가거든 꼭 대장수님께 축지법을 배워달래가라. ...》

할아버지는 이렇게 손자를 떠나보냈다.

그가 친솔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구대원들은 축하를 해주었고 오순돌은 새 군복을 받아입었다. 이제 어깨에 번쩍거리는 총까지 메면 자기도 당당한 싸움군이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외모가 같다고 다 똑같은 싸움군일까?

오순돌은 자기에게 들쭉뭉음을 안겨준 구대원인 덕삼아바이나 작식대일을 하는 녀대원들도 남다른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덧 백두산생활은 흘러갔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전투는 없이 그저 제식동작이나 하고 사격훈련이나 하는것이 마음에 성 차지 않았다.

(언제면 나도 대장수님의 축지법을 배울수 있을까?)

그는 자나깨나 이 생각뿐이였다.

어느날이였다.

모였나팔소리가 밀림속에 랑랑히 울려 퍼졌다.

오순돌은 장구류들을 몸에 지니고 번개처럼 대오에 들어섰다.

이때 덕삼아바이가 순돌에게 슬쩍 귀뜸을 했다.

《순돌인 늘 축지법을 배우고싶어했지. ... 그 소원이 풀려서 기쁘겠구만.》

《예? 그럼 오늘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지법을 배워주시는 훈련을 합니까?》

《허... 훈련이 아니라 대장수님과 함께 성시로 가서 왜놈들을 죽쳐버린단다.》

《그게 정말이냐요. 야!》

순돌은 날듯이 기뻐다.

《대오 모였!》

이윽고 대오가 정렬하고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앞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료해하시다가 순돌의 앞에 이르시어 백두산생활이 힘들지 않는가 물어보셨고 오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라고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밤이 깊어 대오는 소리없이 떠났다.

출진을 알리는 힘찬 나팔소리도 없었고 우뢰가 운다거나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조짐도 역시 보이지 않았다.

떠나기에 앞서 대장수님께서서는 대원들을 한줄로 세우시고 자신께서 밟으신 발자욱을 꼭꼭 밟고 오라고 하시였다. 그 말씀이 온 대오에 전달 되었고 모두가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꼭꼭 밟고가는데만 신경을 쓰고있었다.

(이제 대장수님께서 풍운조화를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축지법을 써서 깜짝 놀라게 하실테지...)

그러나 대오는 어둠속에서 한결음한결음 전진할뿐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이상한것은 귀전에서 뭔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이게 무슨 소릴까? 바람소리같은데 ...

순돌은 귀속을 우버보았으나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때 대오의 앞장에서 나가시는 대장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발자욱을 헛짚으면 안된다고 다시 말씀하시였다. 대오는 오직 대장수님의 발자욱 하나만을 따라짚고 전진하였다.

이 시각 순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신비한 조화속에 있는지 감감 모르고있었다.

...대장수님께서 앞장에 서시어 천천히 발길을 옮겨놓으시면 눈앞에 있는 령마루가 얼른 접혀서 들어오고 그 령마루를 디디고 서면 그 다음 령마루가 또 얼른 접혀서 들어왔다.

이렇게 첩첩히 늘어선 령마루가 대장수님의 발길아래 병풍이 접히듯 한쪽씩 한쪽씩 접혀들어오고있었다.

그 한결음이 십리가 될지 오십리가 될지 가늠조차 할수 없었다.

순돌이 조금 이상스레 느낀것은 대장수님께서 찍으신 발자욱을 따라짚으며 보니 어떤 때는 산머리에 안개가 자욱히 끼고 어떤 때는 이마가 선뜻하며 시린것이였다.

지금은 분명 무더운 한여름인데 이마가 시리고 찬서리까지 맞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일까.

하지만 사위는 자욱한 안개와 실구름이 감돌고

있어 도저히 이산저산을 분간할수 없었다. 더우기 지금은 재밌중이니 더욱 그러하였다.

다만 이따금 구름속에서 둥근달이 얼굴을 내밀 때마다 산마루에서 창끝이 번쩍거리고 어마어마하고 기폭이 장대한 장수들의 대렬이 언뜻언뜻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뿐이었다. ...

순돌은 아직 이 모든것을 모르고있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자기가 것처럼 배우고싶어 하는 축지법을 쓰시여 지금 산마루를 주름잡고 높은 령에서 낮은 령으로, 큰 산에서 야산으로 대원들을 이끌고가신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땅을 주름잡는 이 축지법은 이이께서 지니신 99 가지 축지법의 가장 평범한것이였으나 순돌에게는 감감 리해가 될수 없었다.

이리하여 순돌은 행군을 할 때 꼭 백두산대장수님의 발자욱만 짚고 따라야 한다는것을 감박 잇고 발을 헛짚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때... 오순돌은 행군길에 갑자기 찬서리가 내리는것을 알고 덕삼아바이더러 빨리 걸음을 다그쳐가서 부대의 척후가 되는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덕삼아바이는 어이없어하며 탄생각말고 꼭 대장수님의 발자욱만 따라밟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럼 아바인 언제까지나 대장수님께서 열어 주신 길로 꼭꼭 따라가겠어요? 이제는 웅당 우리가 행군의 앞길을 열어 대장수님을 편히 모셔야지 않나요?》

그러나 덕삼아바이는 굳이 도리머리를 했다.

《어림두 없는 소리다! 너나 나같은건 감히 상상두 못할 일이야. 그런 생각은 싹 집어치우구 그저 대장수님의 발자욱만 잇지 말고 짚도록 해라.》

오순돌은 구대원앞이라 탄말을 못했어도 덕삼아바이의 처사가 잘 리해되지 않았다.

(우리가 척후에 서서 가시덤불을 헤치고서 대장수님을 그길에 모시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덕삼아바이도 다른 구대원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에익 그만둘테면 그만두라지 나 혼자서라도 앞장에서 달려갈테다!

이런 생각을 잠간 굴리던 오순돌은 그만에야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꼭 따라짚어야 한다는것을 잇고말았다.

그래서 대장수님의 발자욱을 짚지 못하고 그 뒤를 밟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앞산 령마루가 싹 물러나버리고 다시는 주름을 잡혀주지 않았다.

《아! - 덕삼아바이 - 》

오순돌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으나 대오는 벌써 나는듯이 앞서나갔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는 절대로 대오에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비지땀을 철철 흘리며 앞으로 내달리고 또

내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리고달려도 그저 그 걸음일뿐 길은 도무지 축나지 않았다.

대오를 놓쳤으니 천산만악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때에야 비로소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왜 자신의 발자욱을 꼭 그대로 밟고오라고 하시였는지, 왜 한여름에 제 이마에 찬서리가 부딪쳤는지 그리고 덕삼아바이를 비롯한 구대원들이 왜 자기의 생각을 어이없어했는지를 알수 있었다.

《그러니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옮기시는 그 발걸음들은 다 천지조화를 일으키는 축지법이였구나! 아, 내가 그런것도 모르고...》

그는 대장수님의 말씀을 어진것이 천만번 후회가 되었다.

대오는 지금 얼마나 멀리로 갔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

그가 이런 생각에 잠긴사이 어느새 앞산 마루에서 실구름이 뻗어오더니 뒤이어 땅이 한번 움찔하였다.

《아! 대장수님 ... 》

오순돌은 제격 이 풍운조화가 백두산대장수님의 축지법으로 생겨난다는것을 짐작하였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새도 없이 령마루에선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어서 이 손을 잡거라.》

그는 번쩍 눈을 뜨고 일어섰다.

자기앞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대장수님께서는 오순돌을 번쩍 들어 대렬에 세워주시였다.

덕삼아바이와 구대원들이 오순돌에게 어디 갔댔느냐고 물으면서 축지법을 쓰시는 대장수님의 발걸음은 한번에 백리도 되고 천리도 된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가 이 산중에서 대오를 혼자 찾아가는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였음을 깊이 깨달았다.

《덕삼아바이! 이젠 나도 뭔가 아는것 같애요. 백두산대장수님의 보통 걸음걸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축지법이였어요. 그래서 대장수님께서 자신의 발자욱을 꼭 밟으라고 하셨는데 ...》

오순돌은 감동어린 눈으로 대장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어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행군은 벌써 왜놈들을 치고 돌아가는 행군이였다.

그날 오순돌은 자기 실수로 통패한 첫 전투에는 참가 못하였지만 백두산대장수님의 신비한 축지법을 제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 기쁨과 자랑으로 끝이 없었다.

김종석

백 두 산 찬 가

알렉산드르 브레주네프

북방의 장설을 머리에 이고
천고밀림의 청신한 정기속에
창공의 구름을 허리에 휘감았는가
지구의 축을 거머쥐고
장쾌한 산악으로 솟아
금강석처럼 빛을 뿌리는
백두산이여 !

그대 품에서 김일성동지
위대한 선군의 닳을 올렸고
그대 품에서 김정일동지
선군시대 더욱 빛내주셨나니
아시아와 세계의 지심을
틀어진 조종의 산
백두산이여 !
그대는 진정
세계의 심장과 심장
마음과 마음이 달려오는 곳
병사들과 인민들
언제나 달려가 안기는 곳!
그대는 진정
창창한 대양, 못행성들을 안고
저 넓은 우주공간에
우뚝 솟은 성지!
조선을 빛내이는
무한대한 광원!

백두산이여!
태고연한 밀림의 고요속에
내 들노라 그대의 목소리
싸움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빨찌산들 부르던
조선의 혁명가요
백두산교향곡
올려라!
내 사랑하는 백두산찬가여
높이 올려라
이 세상의 모든 관현악보다
모든 악기들보다
더 우렁차게!

조선이여 자랑하라!
그대의 빨찌산영웅들을
병사여 자랑하라!
그대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백두밀림의 혈로를 헤쳐
때로는 맨주먹으로
왜놈들을 요정내던

선대의 영웅들을!

※

백두산이여!
그대 품에서 조선의 넓은
증오의 불길로 타올라
용암처럼 끓어번졌거니
그 시절 조선의 증오
멸적의 기발되어 타번졌고
그대 품에서 김일성동지
무적의 힘 버렸더라

백두산마루에 울부짖는 바람소리
수난의 캄캄한 그 시절
조선인민의 신음소리런가
조선의 그 분노 안고
쉬 -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민족의 영웅 김대장!
김대장 빨찌산들
원쑤치는 싸움터로 나간다!

백두산마루의 회오리바람
메부리에서 휘뿌리는 부석
천년바위들에 부서진다
백두산의 김대장
용맹한 빨찌산들
결전으로 부르신다
밀림이 설레인다
항일전장에서 울리던
멸적의 그 총성인가
천군만마를 돌격으로 부르는
김대장 구령의 메아리인가
작렬하는 빨찌산의 폭탄소리
내 귀전에 들려오는듯

내 보노라
지평선 저 멀리
백두령봉에 불타는 노을
그날의 보천보의 밤하늘 불태우던

해방의 화광이런가
내 력력히 보노라
백두설령에 찍힌 그 자욱
고난의 행군길 이어간
빨찌산들의 발자욱이여!

백두산이여, 력사의 증견자여!

그대는 보았으리라
 민족과 인민의 구원자
 해방의 성인
 김대장의 거룩한 모습!
 내 듣노라
 백두밀림의 끝없는 설레임
 새롭게 안겨오는
 정겨운 바람소리-
 해방된 조선의 하늘가
 풍요한 대지우에 울려가던
 봄노래의 메아리인가
 내 듣노라
 투쟁과 승리, 영광의 년대기
 주체력사의 페이지들
 번져지는 소리
 그 력사의 창조자
 그 숨결, 심장의 박동소리
 내 귀전에 들리는듯

백두산찬가여
 힘차게 울려라
 노래부르라
 백승의 영웅
 해방의 구성 **김일성**
 위대한 수령을!
 내 조용히 듣노라
 뽕나무숲의 정겨운 설레임
 밀림의 고요속에 들리는가 그 목소리
 빨찌산밀영의 그밤
 김정숙어머님
 귀여운 아드님께 불러주시던
 못잊을 그 자장가소리
 내 듣노라
 수령님 한몸으로 웅위하시며
 어머님 올리시던 그 총성
 오늘도 밀림의 메아리되어
 이 마음도 울려주는가
 백두산마루의 메부리들
 붉은 노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금시 주위의 모든것
 한껏 밝고 정겹게 빛을 뿌리고
 백두대지와 하늘
 사품치는 계곡의 강물
김정일화의 붉은 빛에
 한껏 물든듯!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온 행성이 그대 품에 안겨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의
 탄생일을 축하하나니
 백두산이여!
 그대 오늘은 두팔 벌려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했더라
 세기의 영웅투사
 선군의 령장
 평화의 령장
 백두산이 낳은 장군
김정일동지를 맞이 했더라!

백두산이여!
 그대는 고이 간직했구나
 소박한 밀영의 귀틀집
 어린 시절의 그 놀이감
 백두대지에 찍으신 그 발자욱
 어머님 지어주신 쪽무이포단
 그 따스함을
 정히 간직했구나!

내 듣노라 그이의 목소리
 -백두산은 나의 고향입니다
 높이 솟은 정일봉
 오늘도 사랑하는 백두산의 아들
 두팔벌려 정겹게 부르는듯

정일봉을 웅위해선 푸른 밀림-
 열병대오종대들
 백두산의 영웅께 인사드리나니
 내 마음도 노래되어
 그분께 머리숙여 인사드리네

내 보노라
 정일봉우에 번쩍이는 번개
 내 듣노라
 정일봉의 우뢰소리
 이 세상의 검은 세력 짓부시는
 장쾌한 우뢰소리!
 백두봉우리들에서
 돌사태 내린다
 노호하는 천지의 물갈기
 이 세상의 요물을 쓸어버리는듯!
 백두의 아아한 산발
 역센 바위들

무적장수의 힘이런가

오! 백두의 주체사상이 안아온
 붉은 노을이 비긴 창공
 저 하늘가에 유난히도 빛나는
 선군의 붉은 노을
 이 세상의 어지러운것
 모조리 불태우며
 백두의 청신함을 안아온다

백두의 즐기찬 산발들
 금시라도 적진에 육박하는가

원썹놈들 벌벌 떨며 꼬리사린다
 양키놈들 살구멍찾아 허둥지둥
 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가련한것들-
 《야스구니진자》의 숭배자들
 불장난을 즐기는자들
 백두산의 회오리바람이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영영 지구상에서 쓸어버린다
 마가울의 락엽처럼!

세상사람들
 용맹한 거인에게 묻는다
 -담대한 영웅호걸이어
 그대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오?
 백두산은 흰갈기 날리며
 엄숙히 대답한다
 -내 이름은 선군이요!
 조선의 백승의 기치!
 싸- 밀림이 설레인다
 또다시 지축을 흔드는가
 백두산의 근엄한 목소리
 -여봐라 듣거라!
 조선을 감히 어찌려는자
 용서치 않으리라!
 조선의 자위력, 선군앞에
 악의 무리들 피할 곳 없으리라!

또다시 울린다
 수백수천만이 부르는 혁명군가
 백두산의 대교향곡 울린다
 온갖 도전의 무리들
 유혹과 위협, 회유도
 맥을 추지 못하고 사라진다
 백두산의 장쾌한 음악
 그 무엇도 더럽히지 못하리라!
 다시금 밀림을 찡찡 울리는
 백두산의 궁지높은 목소리
 -나의 붉은 기발
 김일성기치!
 오늘은 나의 아들 김정일
 그분께서 휘날리신다!
 듣거라 세계여!
 해방의 영웅투사들
 백두밀림에서 버려온 총대
 오늘은 백두산의 아들
 그분께서 틀어쥐시었다!

세상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그분은 조선의 헤라클레스
 백두산이 낳은 빨찌산!
 세계는 큰 눈으로 보았다

저 하늘에 새긴 마치와 낫과 붓
 그우에 번쩍이는 총대!

그렇다!
 그 총대 조선에 용맹을 주었고
 진군의 대로 열어놓았나니
 선군은 곧 힘!
 선군은 동지애!
 선군은 우의와 평화!

온 행성이 숨을 죽이고
 백두산교향곡 들으며 우러른다
 백두산대교향곡의 지휘자
 강철의령장 김정일장군!
 순간 일시에 터지는 찬탄의 목소리
 -김정일장군께 영광을!
 조선의 선군에 영광을!

조선의 근로하는 사람들
 선군병사들의 발걸음 따른다
 백두산대교향곡
 그 메아리속에
 발전소언제들 우뚝우뚝 솟아나고
 공장들 숲을 이루며 일떠서나니
 그 교향곡의 명량한 소리에
 대지엔 감자꽃 피어나고
 삼지연 푸른 못가엔
 아담한 마을들 키돋움한다

불도젤, 프락프르의 동음속에
 울망줄망한 빼기발들
 오늘은 눈굽이 시도록
 드넓게 펼쳐지고
 황금이삭 바람결에
 흥겹게 춤을 추나니
 대교향악의 고무적인 선률에
 석탄 가득 실은 탄차들
 지하막장에서 쏟아져나온다
 컴퓨터들 살림집설계를 한다!

그네라는 처녀들의 랑랑한 웃음소리
 저 푸른 하늘에 오르는
 아이들의 연과 연
 정답게 들려와라 노래소리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은은한 저 노래소리
 얼마나 많은 사연을 전하는가

숫눈길을 헤치시며 걸으신
김정일 동지의 전선길이어!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 어려있는
다박솔초소의 포진지여!

바다의 외진 섬 찾으신 그이
그리도 뵈옵고싶던 최고사령관
초소의 병사들
감격의 눈물속에 맞이했더라
병사들의 숨웃자락도
그이의 뜨거운 손길 간직했더라

그이께서는 걷고 걸으시였다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인민의 행복을 위해
김일성 동지 걸으셨던 그 길
칼바람 이는 겨울
찌는듯 한 여름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걸으셨더라

잊을수 없으랴
땀에 절고 소금배인
그이의 색깔은 야전복
전선길의 야전차에서
흘러간 쪽잠이여
병사들과 함께 나누신
우등불가의 야전식사여!
그 모든것 기억하리라
철령의 철쭉꽃
한여름철 들판의 비바람
병사들과 함께 심으신
초소의 잣나무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 기억하리라
그 모든 잊지 못할 사연
선률에 담아 올린다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그이 우러러 노래부른다
병사들, 군관들, 장령들모두가
백두에서 올리던 맑은 선률
모란봉극장에서 올린다
로병들의 집 창가에서도
이 나라 《왕》들의 유치원들에서도

×

백두산이여!

내 그대에게 왔노라
그대의 소중한 그 모든것
안아보고 느끼고
그대로 숨쉬려다
저 높은 백두산의 천지에
정갈한 원천을 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샘물을
내 가슴뿌듯이 마시려다
저 거창찬 흐름
사회주의조선의 대하에
온몸을 적시려다!

내 여기서 듣노라
세계의 상상봉으로 치닿는
조선의 힘찬 발걸음소리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손길아래
강성대국건설의 승리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발걸음소리!

백두밀림이여 더욱 설레라
백두산대교향곡이여
더 힘차게 울려라!
이 시인의 마음도
노래한다
정의와 평화
조선의 희망찬 미래를
영원히 울려라 백두산찬가여!
세기의 영재
김정일 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누리에 끝없이 울려가라
내 드리노라
승리와 영광의 찬가
불멸의 영웅들께 드리는 노래

빛나라 백두산의 영광이여!
성스런 총대의 숲
불패의 선군련대들과 군단들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영웅들이여
영원무궁할 조선의 새시대
창공높이 금문자로 아로새긴
절세의 령장들이여
위대하여라 그 이름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필자는 로씨야시인임)

해 저물고 찬바람 불 때면

정동찬

아버이수령님
북방의 작은 탄광마을 다녀가신지
이제는 퍼그나 세월이 흘렀는데
탄광청년합숙 아궁에 불을 지피는 어머니
해 저물고 찬바람 불 때면
얼마나 극성스럽고 하는 일 분주한지

우수수 버들잎 날아오는 부엌창너머
젊은 탄부들 퇴근길을 기다린다
이방 저방 잠자리밑에 손도 넣어보고
이 그릇 저 그릇 가마목의 밥그릇 만져도 보며
어느 구석에서
찬기운 스며들세라 창문도 똑똑
버들잎속에 첫눈송이들 하얗게 섞이니
문득 휘잡는 생각에 손길에 굳어진다

벌써 몇해째일가
그 무슨 번질수 없는 습관처럼
맘속에 다시 듣는 수령님의 음성
한글 또 한글 새긴다
《내가 간 다음에도 젊은 탄부들에게
꼭꼭 더운국을 대접하시오...》

간절히 남긴

수령님 부탁이 온몸을 휘감아
합숙을 뜨지 못하는 너인
이 저녁에도 채등너머 바라본다
벌써 몇해째일가

휘휘 손을 저으며 오는 젊은이들
알면 얼마나 알라
이 크지 않은 합숙살림살이에
속속들이 스미고 스민 따뜻함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것인지

수령님 가신 뒤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은 이 따뜻함
아버이께서 탄부들의 생활에 남겨놓으신
한평생의 소원
오는 세월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이 뜨거움

살속에 피속에
흐르는 이 뜨거움은
우리 인민 하나같이 감싸주시는
수령님 사랑
생전에 그대로이신
영생의 숨결이어라

병사의 눈세계

한송길

새해의 첫눈이 내리는구나
장군님 오시였던 여기 전호가
감시소위장망을 덮씩웠던 나무가지에도
병실앞의 아스라한 느티나무에도
희디흰 눈꽃이 덮이었구나

그 누가 내리는 눈은
추억을 불러오는 세계라고 했던가
우리 초소길에도 쌓이는 눈은
내 마음속에도 덧쌓이고 또 쌓여
그리움의 순결한 은세계를 펼치누나

그날도
이렇게 눈내리는 날이었지
내 지금 서있는 여기 보초소앞에
장군님의 야전차 멎어설적에
심장이 뛴뛴 그 환희

훈련에 험해진 나의 두손을
따뜻한 두손에 올려놓아주시고
건강은 어떠한가
팔목의 굽기까지 재여보시며
숨옷의 두터이도 가늠하실제
우리앞엔 아버지가 서계시었고
고향집뜨락에 병사들은 서있었나니

아 그리웁고나
꿈만 같은 그날이 다시 왔으면
자신의 충실한 아들들을 만나시려
경사급한 산허리를 넘으시진 않을가
아니면 병사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그 철령을 다시금 뚫으심은 아닌지

잊지 못할 설날 아침
다박솔초소를 찾으실 때도
이렇게 흰눈은 덮여있었지
만경대 원아들을 찾으시던 설날도
숫눈길에 첫자욱을 내머가셨지

아 눈이 내린다
눈내리는 이런 날은 걷지 않으셨으면
하면서도 자꾸만 기다리는 철없는 아들
이 병사의 소원처럼 쌓이고쌓여

아, 내리는 눈발은 하늘을 뒤덮고
이 땅을 남김없이 가리웠어도
그이를 그리는 우리 마음은
하늘땅을 짝 채운 눈세계보다
더없이 넓고 끝이 없어라

가사

영웅의 고지여

정 성 환

눈덮인 영웅고지에 자욱을 남기시며
생각깊이 오르시였네 아버지 우리 장군님
전화의 옛 전장 산정은 교요해도
그이의 마음속엔 사랑의 폭풍이 일었네

조국의 고지를 지킨 그날을 그려보시며
영웅들의 그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

피어린 군공을 조국앞에 빛내주실 때
고지는 창공에 머리를 높이 들었네

파사로운 사랑의 품에 병사들을 안으시고
영웅들의 높은 숨결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그 사랑에 영웅들은 끝없이 태어나리라
금벌의 봉우리 철벽의 붉은 산악아

헌시창작에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있던 주체62(1973)년 12월 어느날 한 시인은 밝아올 새해에 즈음하여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창작과제를 받아안게 되었다.

이 창작과제를 받아안은 시인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일대 전성기가 마련된 1970년대가 시작되는 첫해 설을 앞둔 때를 감회깊이 회상하게 되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깊은 설날아침 처음으로 아버지수령님께 헌시를 읊어드리도록 하시었다.

바로 이 영예로운 첫 헌시도 이 시인이 말아창작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몇해가 지난 이날 또다시 영예로운 창작과제를 받아안게 되었으니 시인의 가슴은 뜨겁게 높뛰지 않을수 없었다.

시인은 이제 자기가 창작하여야 할 충성의 새해헌시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흥모가 절절히 노래될수 있겠는가 하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러던중 시인은 몇해전 우리 창작가들이 만든 충성의 송가를 지도하시면서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말씀이 떠올랐다.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을 심려와 로고만을 안으시고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생과 시련을 겪으시며 오직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셨습니다.

...

수령님께서 이제는 환갑을 맞이하시는데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을 찾으시여 공장으로 농촌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오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아끼시지 않고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간곡한 말씀을 되새겨보며 다시금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으며 그것이 곧 자기가 창작해야 할 헌시의 내용이고 시에 담아야 할 일관한 감정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안았다. 그리하여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충성의 창작적 열정을 바쳐 시《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헌시》를 완성하였다.

감격도 새로운 이해 12월 3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연회공연 시연회장으로 나오시여 시연회를 지도해주시었다.

처음으로 헌시가 랑송되었다.

그런데 이때 문득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인을 몸가까이에 불러주시고 만족하신 음성으로 시인과 일군들에게 헌시가 좋다고, 내가 이미 헌시를 보았는데 아주 잘 썼다고, 지금까지 쓴 헌시들 가운데서 제일 잘 썼다고 과분한 치하를 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시인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이번에 좋은 시를 썼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시를 더 많이 쓰기 바란다고 크나큰 고무를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치하와 고무의 말씀에 시인은 진정 송구함을 금치 못하며 그 감격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사실 시인이 헌시를 잘 썼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말씀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에게 시랑송에 대한 의향까지 물어주시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는 헌시랑송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노래며 기악, 무용 등 모든 예술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시었다.

정녕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공연의 모든 종목이 티없이 다듬어지고 완성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가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시인이 시연회장을 나설 때는 새해의 종소리가 울린지도 이미 여러시간 지난 뒤였다.

집에 돌아온 시인은 또다시 커다란 감격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인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고 그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연회에 참가하도록 해주셨기때문이었다.

시간이 되자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뜻깊은 연회장으로 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에게 또다시 헌시를 잘 썼다고 분에 넘친 치하를 해주시고 새해에 더 좋은 시를 쓰라고 거듭 고무해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은혜로운 사랑인것이였다. 하기에 그날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앞으로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하는 우수한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 해낼 뜨거운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만강에서의 정치사업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항상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정치사업의 기본은 결국 사람들을 설복교양하고 군중을 동원하는것입니다.》

주체25(1936)년 8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부대와 함께 만강마을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을녀인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어 그들을 조국의 해방과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마을녀인들과 밭일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교양하시었고 때식을 끓일 때면 아궁앞에서 감자껍질을 함께 벗기시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알기쉽게 해설해주시었다.

그때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도 모든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알지 못하면 늙어죽을 때까지 시들어 살아야 하고 물건처럼 돈에 팔려가면서도 가슴이나 쥐어뜯을줄 알았지 이 억울한것을 반대하여 싸울 생각을 못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었다.

어느날 마을녀성들을 만나시였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사람한사람 흠어져서는 큰 힘을 낼수 없지만 뭉치면 큰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 녀성들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조직에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간다면 얼마든지 조국광복위업도 녀성들의 사회적해방도 실현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마을사람들앞에서 유격대원들의 오락회가 펼쳐졌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함께 무장춤을
가사

추시였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나와 춤을 추는 녀대원들의 모습을 본 마을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남자들도 어려운 무장투쟁에 녀성의 몸으로 뛰여든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녀대원들의 두눈과 온몸에서 뿜어져나오는 혁명적열정과 랑만 그리고 생기 발랄하고 활달한 몸가짐새들이 너무도 희한했기때문이였다.

유격대원들의 오락회를 보며 마을사람들이 한창 격동되였을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앞에 나서시어 주먹을 쳐드시며 이런 힘있는 선동연설을 하시었다.

《천대받고 압박받는 무산청년들이여! 가련하고 쓸쓸한 조선의 녀성들이여! 천대를 박차고 구속을 물리치고 항일전에 용감히 나섭시다.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광복의 큰 싸움에 모두 한사람같이 달려나와 싸웁시다!》

짧으면서도 호소성이 넘치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마을사람들의 가슴에 혁명의 녀를 심어주고 그들을 크게 감화시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연극 《피바다》 공연준비를 할 때에도 녀대원들의 연기형상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리고 공연이 한창 고조에 이를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어 《<토벌>가》를 부르시었다.

원췌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고 그러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한데 어울려 절절하게 울리는 노래의 구절구절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이날 많은 마을청년들이 무대에 뛰여올라 조선인민혁명군입대를 단원하였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만강사람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던지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주체48(1959)년 만강을 찾은 혁명전적지답사단성원들을 만난 한 로인은 김정숙동지께서 부르신 노래와 춤의 물동까지 방불히 회상하였다.

물어보라 전호에 선 병사들에게

박 영

얼마나 아름다운 내 조국의 아침인줄
이 땅에 산다하여 누구나 다 안다하랴
물어보라 총을 잡고 전호에 선 병사들에게
아 내 조국의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수호의 별이 되어 밤을 새운 병사들이
새날의 해돋이를 제일먼저 마중한다네

물어보라 총을 잡고 전호에 선 병사들에게
아 내 조국의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인민의 행복을 지켜가는 전호에서
조국의 아름다움 심장으로 안을수 있네
물어보라 총을 잡고 전호에 선 병사들에게
아 내 조국의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 나가자!

공 동 구 호 에 서

련시

이 나날들을 간직하라

박천걸

백두의 눈보라길을 걸으며

하늘가에 흰갈기를 날리며
휘몰아치는 눈보라 눈보라
노호하는 파도처럼
날려갈것 다 날려버리며
은빛세계만을 가득히 펼치는 백두의 눈보라

백두의 호협한 그 기상
칼날같이 기세찬 그 성미를 안아보며
걸음걸음 폭풍속을 헤쳐가기 험치 않아도
좋다 나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여주고
맑고 청신함을 이 가슴에 안겨주는
백두의 이 눈보라

머리에 어깨에 흰눈을 이고
백두의 이 눈보라길을 걸으며
생각하노라
내 삶의 자욱자욱 오늘토록 이어오며
그 언제 백두의 이 눈보라를 이렇듯 뜻깊게
맞아본적 있었던가
백두까지 스며드는 이 강추위를 생각깊이 겪어
본적 있었던가

부끄럽구나
행복만을 누려온 그 나날
백두의 이 눈보라도 헤쳐보지 못하고
내 오늘껏 삶의 자부 안고 살아왔음이
나무 한대 심고 풀 한포기 가꾸면서도
조국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음이

만난을 뚫고나갈
굳세인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단 한자옥도 걸을수 없는 백두의 이 눈보라길
지나온 삶을 자책하며
폭풍치는 눈보라에 인생을 가다듬나니

알아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려면
이처럼 열렬하고 깨끗한
백두의 이 눈보라맛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고귀함
시대앞에 남기는 자기 삶의 가치
투쟁과 혁명의 성스러움을 알려거든
인간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며
붉은기를 더 세차게 휘날려주는
백두의 이 눈보라맛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인생의 참다운 길동무
백두의 이 눈보라에 자신을 비쳐보며
살리라
걸음걸음 백두의 눈보라가 일어번지게
불의와 타협을 모르고
고난앞에 주저를 모르는 불굴의 정신을 안겨주며
원췌에겐 서리찬 분노를 일으키는 백두의 이
눈보라처럼

살리라
 시련의 천만리길을 간대도
 나의 심장과 넋을 불태워주며
 이 몸을 투쟁의 한길로만 억세계 떠밀어주는

혁명의 눈보라 선군의 눈보라
 아 백두의 붉은 눈보라를 안고
 한생을 줄기차게 달음쳐 살리라

잠 못드는 밀림의 밤

타오르는 우등불에 빙 둘러앉아
 누구나 잠 못드는 이 밤
 달아오른 얼굴들에 수많은 생각을 싣고
 깊어 깊어만가는 밀림의 이 밤

좌좌 설레이는
 밀림의 사연깊은 밤과도소리
 아득한 그 품이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
 이 가슴에 끝없이 속삭여주는가

누군가 조용히 부르는
 《사향가》의 은은한 선율을 타고
 험준한 백두의 천고밀림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피어린 력사가 되새겨지는
 이 밤

정녕 얼마나 험난하고 눈물겨운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붉은기 력사가
 저 아득한 밀림에 새겨지고
 오늘도 새겨지고있는것인가
 또 누군가 일어나 부르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모두가 일어나 합창으로 이으며
 어느덧 눈가에 맺히는 뜨거운 눈물이며
 아마도 이 밤 이 시각 그 어느 령길에
 달리던 야전차를 잠시 세우신 우리 장군님
 별많은 조국의 저 밤하늘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생각이 많으시라
 사랑하는 인민을 두고 조국을 두고

그 조국 그 인민을 위해
 그 누가 내 마을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또다시 전진길을 이어가실 장군님 생각에
 걱정예 목메이는 가슴들이여

서로서로 어깨결고
 다시 또다시 부르는 심장의 노래를 싣고
 하늘가 저 멀리 메아리치는 밀림의 파도소리
 파도소리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만대를 생각하며
 뜨거운 걱정예 끝없이 물결치는
 아 백두밀림의 잠 못드는 이 밤이며

천지의 푸른 물아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천지에
 천년을 만년을 셈숫아 오르며
 사시절 출렁이는 맑은물 맑은물

백두의 푸른 정기 가득히 고였는가
 호반의 깎아지른 칼벼랑들
 맑은 물속에 섬섬히 비졌구나
 아침이면 타오르는 해돋이에 붉게 물들고
 밤이면 저 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아
 신기한 전설을 속삭이는 황홀한 별천지

이 물 한모금 정히 떠마시면
 내 마음도 금시 푸르러질듯
 한웅큼 떠서 호수가에 뿌리면
 낮에도 밤에도 울려오는

저 백두밀림의 웅장한 대교향곡이
 내 마음의 금선을 튕겨줄듯싶구나

눈비와도 폭풍쳐도 흐릴줄 모르며
 언제나 한모습 변함없는 천지의 푸른 물아
 내 한생토록 이 물을 마시고 마시며
 나라위한 한마음 혁명에 몸바칠 맹세
 눈부시게 맑게맑게 댕고싶구나

삼천리 이 강토를 적시며
 또 내 마음의 호수가에 영원토록 출렁이며
 혁명의 숭엄한 노래를 끝없이 울려줄
 내 삶의 아름다운 거울
 아 천지의 푸른 물아

평양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평양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도에서 멀리 백두의 하늘아래서
그리운 정을 담아 보내는
이 아버지의 인사를 받아다오

받아다오
정든 집을 떠나올 때
중학생이 되었다고 기뻐하던 네 모습을 안고
눈비에 젖은 날과 달을 이어온
돌격대원 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척 자랐을
아들아 너는 다 모르리
내가 행복의 꽃길을 걸을 때
자옥자옥 이 아버지가 헤쳐온
백두의 눈보라길이 어떤 길인지
배움의 창가에서 기쁨의 5점꽃을 네 피워갈 때
언땅에 기초를 다지고 벽체를 안아올리며
피더운 가슴으로 헤쳐온 건설의 그 나날들을

통일거리 불밝은 우리 집 요람에서
네 아직은 행복의 고운 단꿈을 꿀 때
서둘러 백두관으로 달려나오던 이 가슴에
무엇이 간직되어있는지 아직은 몰라도 좋다
희망의 날개를 펼치고 네 마음껏 뛰놀적에
따가운 땀별에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알알이 인조석을 보석처럼 다듬어가는
이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몰라도
좋다

손꼽아 기다리던 학부형회의의 그 밤
네 작은 책상의 한자리는 비울수 있어도
순간도 비울수 없는 항일의 전구 건설장 여기다
그때문에 기쁨이 물결치는 명절의 거리를
너의 손목잡고 거닐지 못했어도
낮에 밤에 전투를 벌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부디 간직해다오

아들아
우리 삶과 행복의 만년터전인 이 땅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렬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성스런 이 대지에
우리 혁명의 만년대계의 기념비들이 꿈같이
솟아오르는 그날
아들아 이것이 너에게 안겨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인줄 알아다오

그 사랑을 안고 너도 이제 커서
애국을 알고 혁명을 알고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아 선렬들의 붉은 뺨은 런던히 이어져
우리 혁명의 명맥은 더욱 굳세여지려니

그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기에
너희들의 밝은 래일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축복하기에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청춘시절을 바쳐가는
여기 삼지연에서
너에게 줄수 있는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
아 백두산의 다함없는 사랑을 보낸다
아들아 평양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나날들을 간직하라

달아오른 가슴들을 식힐새 없이
땀젖은 희열에 랑만을 날리며
뛰고 달리는 돌격대원들 머리우에
저 하늘의 다함없는 축복인가
어디선가 갑자기 쏟아져내린
우박소나기 우박소나기

삽시에 온 전투장은 환성의 도가니
삽이며 들것들을 잠시 팽개치고
손에손에 저저마다 받아보는 사랑같은 우박
익살군들은 위병에 특효라며 입에 넣어 씹어보고
처녀들은 달아오른 두볼에 꼭 대인채
하염없이 바라보는 백두의 이 우박

허리치던 강설을 녹이며 봄도 가고

어느새 찾아온 여름도 우린 몰랐구나
두손에 받아든 우박들을 쓸어보며
서로의 눈가에 핑그르 맺히는 후더운것이며
사나운 겨울을 또다시 이겨낸
그것이 기뻐서 눈물짓는 돌격대 나의 동무들이

우리 걸어온 자옥 돌아볼새 없었고
찾아온 계절도 느껴볼새 없었거니
진정 감회도 새롭구나
평양을 떠나올 때 배낭속에 간직해온
만경봉의 정갈한 박우물에 백두산천지물을 합쳐
첫 기초에 부어넣던 그날로부터
몇천날이었던가 백두의 아들딸로 살리라며
우리 불같이 맞고 보낸 날과 날들은
잊을래야 잊을수 있으랴

굽아드는 언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언땅에 기초를 다지고
 인생의 주춧돌을 놓아가던 그날들을
 아름답리이깔들을 기둥으로 박으며
 한생 흔들림없을 신념의 대를 세우던
 건설의 그 낮과 밤들을

눈시울 후더이 돌러보면
 수많은 집들과 무지개같이 뻗어간 다리들
 강줄기를 따라 솟아난 크고작은 발전소
 그 어느것 하나 몰탈로만 다져진것 있던가
 쏟아지는 폭설과 강추위에 벽체가 얼세라
 우리는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동지애로 집을 세
 웠다
 우리모두 영원히 살아갈 인생의 크나큰 집을

얼마나 궁지롭고
 가슴벅찬 날들을 우리 살아왔던가

수필

력사의 행군길에서

나는 지금 백두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헌시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강사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선포된지 25돛
 이 되는 날인 주체88(1999)년 2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으시며 여
 기에서 력사적인 눈보라행군을 하시였습니다.》

무봉마을에 건설된 수력발전소를 돌아보시고
 삼지연으로 향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사색에 잠겨 계시다가 문득 차를 멈춰세우시고
 동행한 일군들을 돌러보시며 우리 인민들이 어떤
 고생을 하며 <고난의 행군>을 했는지 한번 체험
 해보자고 하시면서 수수한 솜신을 바꿔신으시고
 앞장에서 걸음을 옮기시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의 눈보라행군을
 련상시키듯 백두의 천고밀림이 우우 설레인다.
 나무우에 수북이 쌓였던 눈송이가 흩어져내린다.

어느덧 나의 눈앞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옷
 자락 날리시며 백두의 솟은길 헤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기상이 항일의 청년장군, 빨찌
 산 김대장의 모습으로 숭엄하게 안겨오며 생각이
 깊어졌다.

일찌기 백두산 첫 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고 향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앞을 분간할

우리 혁명의 만년뿌리가 내린 이 땅에
 나무 한대 심고 하루를 바쳐도
 한생의 공지로 간직할 그 순간들이 홀러홀러
 백두대지에 새겨진 우리의 자서전이며
 먼 후날 후대들앞에 떳떳할 우리의 청춘시절이며
 정녕 지나간 날들은
 추억의 물결을 타고 온다지만
 백두에서 백두의 눈보라를 헤치며
 째도 없이 밤도 없이 달리고 달려온 나날들 《
 붉은기로 심장을 덥혀온 이 하늘아래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난 우리의 백두산시절
 생의 먼먼 한끝까지 삶의 리정표로 솟아있으려니
 새세기의 하늘가에
 태양의 성지를 더 높이 안아올리며
 가장 빛나는 인생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운
 아아 우리의 이 나날들을 영원히 간직하리라
 뜨겁게 뜨겁게 간직하리라!

염성영

일의 혁명전구를 찾으시여 혁명전통교양의 대강
 을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께서 무엇때문에 여기
 에서 눈보라행군을 하시였는가. 그날의 우리 장
 군님의 심중은 어떠하시였겠는가.

우리 장군님 시야에서는 그때까지도 무봉발전
 소의 전경이 사라지지 않으시였다.

원- 기세 좋게 돌아가는 발전기동음, 정갈하게
 꾸려진 구내길... 무봉로동자들이 허리띠를 조여
 가며 건설해놓은 발전소다. 그리고도 목청껏 환
 호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
 시였다. 어찌 이들만이라, 우리 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끝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생활이 넉넉치
 못하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것도 한두가
 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인민들은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이긴다고 말하지 않는가, 신심드높은 인
 민이다, 꺾이지 않는 인민이다, 얼마나 좋은 인
 민인가! 이런 인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줄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할수 있는 일은 무
 었이겠는가?

인민을 생각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이 바로
 이러하시였기에 자신의 생신날마저 백두산밀림에
 서 보내신것 아닌가!

인민들은 이날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이날마저도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것이다.
 수 없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나운 눈보라를
 앞장에서 맞받아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중

어찌 그뿐이시였으랴.

함께 걸던 일꾼들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이께서 차에 타실것을 몇번이나 말씀올렸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히려 너그럽게 웃으시면서 우리모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가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빨리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를것인가. 날로 우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봉쇄책동, 심리모략전에 무엇으로 철추를 내리고 짓몽개버릴것인가.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실 우리 장군님의 사색은 끝이 없으시였다.

그렇다, 백두령장의 행군길, 그것은 단순한 눈보라행군길이 아니였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그이께서 백두산을 잊지 않으시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담력과 의지를 더 굳게 가다듬으시는 길이었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그이께서 우리 인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처럼 억세게, 백두산처럼 존엄높게, 백두산처럼 빛나게 살며 싸워나가기로 이끌어주시는 길이었다.

해썬은 룡남산마루에 서시여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던 그날의 맹세를 걸음걸음 더욱 굳히시는 위대한 력사의 행군길이었다.

이렇듯 력사의 행군길의 의미를 더듬노라니 이 나라의 행군길마다에 수놓아진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가 더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만경대갈림길! 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리운 고향 만경대를 지나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였다. 항일전의 그날, 우등불가에서 《사향가》를 부르시며 그토록 잊지 못하시던 고향이였지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 땅우에 하루빨리 새 조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강선으로 향하시였다.

부령의 갈림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사랑하는 아드님과 함께 고향 회령이 지적

가사

에 바라보이는 부령의 갈림길을 지나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야금공장 로동계급부터 찾아주시지 않았는가.

귀기울이면 기슭을 치는 두만강의 여울물소리도 들려올듯, 오산덕에 만발한 백살구꽃향기가 풍겨올듯...

하지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회령의 고향집부터 다녀오자는 투사들의 간청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부령으로 향하시였다.

력사의 갈림길들에 부모님들이 새겨가신 높이신 뜻, 그 높이신 뜻 가슴속깊이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오늘 여기에 불멸의 자욱 남기신것 아닌가!

아, 이 나라 력사의 갈피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발자취, 그것은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불타는 애국과 끝없는 헌신의 길,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길이었다!

나의 가슴은 견잡을수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백두의 눈보라가 그냥 태동한다. 휘날려온 눈가루가 얼굴에 날아들어도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눈보라가 뜨겁다고 하는것인지...

력사의 행군길!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백두의 눈보라행군길이 있어 우리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확고히 고수되고 주체조국의 존엄이 온 누리에 찬연한 빛 뿌리고있는것 아닌가.

력사의 행군길에 수놓아진 백두령장의 눈보라행군길이며, 만경대, 부령의 갈림길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나라!

제대병사 마중가자

황련

어린 시절 우리 함께 뛰놀며 자라
군복입고 초소로 떠난 그 동무
오늘은 앞가슴에 훈장달고서
꽃피는 고향길로 돌아온단다
라 처녀들아 어서 꽃다발 엮자
동구길로 제대병사 어서 마중가자

전호에서 새워가던 별많은 밤에
행복넘친 고향마을 그려본 동무
인생의 다시 없는 청춘시절을

혁명의 총대 높이 빛내였단다
라 처녀들아 어서 꽃다발 엮자
동구길로 제대병사 어서 마중가자

선군시대병사로 위훈떨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미더운 동무
장군님 아끼시는 제대병사는
내 조국의 영원한 자랑이란다
라 처녀들아 어서 꽃다발 엮자
동구길로 제대병사 어서 마중가자

영원한 메아리

박명선

메아리!

자연계에서 울리는 메아리는 아무리 요란하다 해도 제한된 시공간속에 여운을 남기고 인차 사라지기마련이다.

하지만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심장으로 높이 웨친 그 신념의 메아리는 시공간의 한계가 없이 세월의 먼 끝까지 만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변할수 없는 이 엄연한 진리를 나는 유서깊은 땅 김형권군 파발리에 가서 새삼스럽게 절감하였다.

은 강산이 하얀 눈꽃으로 단장한 새해 1월, 구름도 쉬여 넘는다는 후지령을 넘어서니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서거 70돐을 앞두고 온 군이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참관자들의 대렬이 파발리로, 파발리로 끝없이 흘러들었다. 그들의 뒤를 따라 파발리에 들어선 나는 먼저 원상그대로 보존되어있는 경찰관주재소에 들어섰다.

수수한 농민복차림에 권총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원쑤놈들을 요정내시던 열혈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그날의 그 거룩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여기 파발리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놈은 악착하고 잔인하기 그지없어 이곳 인민들은 지독하게 따라와 쏘는 벌에 비유하여 이놈을 《오빠시》라고 불렀다, 철부지아이들이 발버둥쳐 울다가도 《오빠시》가 온다면 그자리에서 즉시 울음을 토했다고 한다.

그놈의 죄행으로 얼룩진 책상과 의자 전화기와 같은 흉물스런 증거품들을 보노라니 그날의 총성이 금시 들려오는듯싶었다.

주체19(1930)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룬회의에서 내놓으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내에 진출한 김형권동지는 조선혁명군무장소조를 인솔하고 파발리에 오시여 악질순사부장 《오빠시》놈과 원쑤놈들에게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 높이 올리신 항일애국의 력사적인 첫 총성!

그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도란에 빠진 우리 인민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총소리였으며 갈길을 몰라 가슴을 치며 신음하는 국내인민들에게 재생의 열기를 복돋아준 신념의 메아리였다.

김형권동지의 불멸의 공적을 가슴깊이 새기며 사적건물들인 경찰관주재소에 이어 양주소, 가게방들을 돌아보고 큰길에 나서니 저앞에서 힘차게 부르는 합창소리가 들려왔다. 사적관을 참관하러 오는 인민군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그들이 씩씩하게 부르는 혁명가요를 듣노라니 원쑤놈들이 벌려놓은 이른바 재판장에서 《혁명가》를 불러 놈들을 전률케 하신 김형권선생님의 숭고한 영상이 떠올랐다.

1년동안 갇은 고문과 회유로써도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조선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었던 일제교형리들은 김형권동지에게 15년의 징역형을 들썩였다.

함흥지방법원의 초판원을 이룬 재판장.

열혈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는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놈들의 죄상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시면서 배심있게 동지들과 함께 《혁명가》를 부르시였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그러시고는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지시며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힘차게 부르시였다. 방청석의 군중들도 열렬히 호응하였다.

준엄한 그 시각 김형권동지께서 높이 부른 《혁명가》! 이는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는 복수의 결의를 더 굳게 해주는 투쟁의 노래로 되었으며 원쑤놈들에게는 최후의 멸망을 선고하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참으로 김형권동지의 걸음걸음은 고난과 시련의 련속이었다. 하지만 추호의 동요도 순간의 비판도 모르시였으니 그이는 정녕 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고 한없이 고결한 인간이시였다.

파발혁명사적관에 진렬된 귀중한 사적물들과 강의를 통하여 나는 이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못을 박은 널판자와 같은 각종 흉기를 다 동원한 일제야수들의 중세기적인 고문에도 굴함없이 법정투쟁,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신 그 신비로운 비결, 그것은 김형권동지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혁명적신념과 락판이었다.

마포감옥안에서 투쟁을 벌려나가시던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한조박의 신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눈부신 투쟁소식을 보게 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에 넘쳐 감방안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시였다. 《지금 김일성장군이 수많은 무장부대를 거느리고 일제를 때려 부시고있소. 그러니 우리 나라가 해

방된다는것은 불보듯 환한 일ियो.

우리는 조국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 억세게 싸웁시다.》

이 격조높은 호소는 온 감옥안에 전달되어 애국자들의 가슴가슴에 불같은 투쟁의욕과 혁명승리의 확고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몸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여도 혁명가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드팀 없는 신념과 철의 의지를 안고 싸우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날을 보시지 못하고 31살 한창 꽃피는 청춘시절에 영웅적생애를 마치시었다.

경건하고 애석한 마음안고 사적관을 나서니 눈부신 햇빛이 쏟아져내렸다. 교양마당두리에 늘어선 나무가지들에 피어난 눈서리꽃들은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추복하는것만 같고 하늘높이 날아에는 못새들의 지저귐소리도 그이의 불멸의 공적을 노래하는것만 같았다.

정녕 조국이 기억하고 우리 인민이 잊지 못하는 김형권동지이시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그이의 충실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혁명렬사릉 영생의 언덕에 김형권동지를 내세워주시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예술영화 《누리에 불는 불》에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을 형상창조하도록 하신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사적관참관을 마친 인민군군인들이 씩씩하게 행진해가며 터치는 《결사옹위》, 《총폭탄》, 《만세!》 소리가 메아리쳐오고 하루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온 마음에 울려퍼지었다.

그렇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그 력사의 나날들에 높이 올리신 혁명의 총소리, 락관의 노래소리는 장엄한 선군혁명총진군가에 격조높이 화음되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삶과 투쟁의 메아리로 길이 울려가리라!

숫눈길을 밟으며

한원희

한뼘이나 되는 밀보리삭을 품안고
흰 눈이불을 두툼히 덮은
들은 깊이 잠들어있습니다
흰김이 피어오르는 두엄을 지고
이른새벽 숫눈길을 헤쳐가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농장벌은 깊이깊이 잠든듯싶습니다

쁘드득 뽀드득 눈밟히는 소리
내 발자국소리도 모릅니다
승벽내기로 두엄을 지고 달려가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도 다 모릅니다

들끝에 노을이 찬란히 비껴오고
풍년복을 뚝뚝 울리며 아침해 떠오르고
온 농장벌이 펼쳐나 들끓어도
땅은 깊이깊이 잠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많은 대지입니까
봄내 여름내 오곡을 싹틔워 자래우며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많았던 우리의 땅입니까

쌀로 우리 장군님을 받들고
쌀로 내 조국을 빛내여갈
우리의 마음 알아
그 진정 알아

흘린 땀 바쳐온 량심을
알알이 금나락으로 안아온 땅

더 깊이 잠재우고싶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싶습니다
한줌 흙이 그대로 쌀이 되는 땅
한줌 흙이 그대로 목숨같은 땅
풍년꿈을 꾸라고 더 좋은 꿈을 꾸라고

봄이 오면 큰 기지개를 펴며
깨여날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바라볼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엄청난 두엄무지를
갈수록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봄이 오면
땅은 더욱 큰힘을 낼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에 보답하자고
온 나라에 기쁨이 될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고

아 희망찬 새해
숫눈길을 밟으며
나는 달립니다
아직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눈덮인 벌에
가을의 발자국을 찍어갑니다

보통 날

리래식

넓은 들 이랑이랑에
더운 김 오르는 거름더미 듬뿍 쌓아놓고
새해도 첫 새벽부터 바친
보람찬 하루일을 총화하며
분조원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서였네

은행나무 마을의 대문인양 서있는 길가-
전등불 환한 집집의 창문이며
밥짓는 구수한 냄새며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
정차고 따스한 그 보급자리로
로동의 기쁨넘친 하루가 들어서려는데

분조원들 약속이나 한듯
한자리에 멈추어섰네
그 앞에는 채 못나른 거름 한무지...
그냥 두고 그 어이 집뜨락에 들어서라
그들은 다시 들로 나가네

오늘은 남편의 생일날
아침엔 일어나느라
소박한 상 급하게 차려드렸지만
저녁엔 아기자기 온갖 성의 갖추어놓고
밤늦도록 부부정 나누겠노라
별이 엄마 얼굴뽀뽀 이야기하더니
그 마음 들에 있는듯 옮기는 발걸음

감나무집아바이
이웃농장 양어반에서
시집을 온 새며느리가
다소곳이 문가에서 반겨맞는 흐뭇함도
저 들 한끝에 있는듯

씨엿씨엿 옮기는 발걸음

걸어가는 길우엔 세찬 눈보라
입김마저 성에 불리우는데
아름답구나
들에서 마을까지 마을에서 들까지
누런 빛 귀중한 낱알인양
지게마다 거름을 가득 담고
집이 아니라 들로 나가는 사람들

남편앞에 고이는 안해의 정성보다
먼저 바쳐야 할 뜨거운 사랑이
저 들에 있고
살뜰한 며느리를 맞아들인 기쁨보다
더 큰 인생의 행복이
저 들에서 마중오거니

눈덮인 대지를 더없이 사랑하기에
푸른 봄날의 씨앗
풍요한 가을의 이삭도
그 마음에 싹트고 그 마음에 영글리
가정의 반복과 아름답고 창창한 미래도
그 마음 바친 들에서 마련되려니

아 장군님 지켜주신
사회주의협동벌의 한구간을 기쁨지우고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들어서리라
그들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농민들이었네
그리고 이날은
가을과 맺어진 보통날이었네

광부의 소원

김윤걸

철산봉아
새해의 첫눈을 너 선참 맞았구나
여기도 흰눈 저기도 흰눈
온통 너는 눈천지

발목이 푹푹 잠기도록

흰눈덮인 철산봉우에서
눈을 맞는 광부
내 마음은 뜨거웁다
광부의 이 더운 열기로
철산봉, 네우의 흰눈을 녹이리라

저봐라
한발과 먼저 해제긴
나의 일터에선
흰눈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구나
보기 좋게 부풀어오른 쇠돌들이
광부-나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듯

한발과 더 !
내 마음속 울림을 안고
락광정에선 어느새
신호수처녀들의 호각소리 화답하는구나
쿵쿵- 산천을 떨치며
쏟아져내리는 쇠돌들
선광장으로 선광장으로 줄달음치거니

더 많은 철을 조국에!
확확 열기뿡는
대형차들에서도
눈이 녹는구나
더운 김이 서리는구나

그래
새해의 첫눈도 철산봉에서 맞는
광부의 자욱자욱에서
흰눈은 선잠 녹으리라
그 자욱자욱에 떠받들려
이 땅 어디가나
창조의 기념비들이 하늘높이 솟으리라

가사

이 땅우에 새 날이 밝을 때

류동호

밤하늘에 동이 트고 새날이 밝을 때
전선천리 저 멀리로 이 마음 달리네
굽이굽이 령을 넘어 전선에 계시는
장군님 안녕바라며 아침인사 드리네

우리 집의 창문가에 새날이 밝을 때
그 영상을 우러르는 이 가슴 뜨겁네

조국의 위용을 떠받든
광부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은 하나
장군님 꿈만같이 오셨던
한겨울의 그날처럼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고
그이앞에 땀땀이 나서고싶은 마음

광광! 련속발파로
조국의 재부는 쌓아지리라
쇠돌을 싣고 달리는 저 자동차들의
굽이굽이 운행길에서
강성대국의 지름길은 더 가까이 보여오노라

청춘광산이라 그 믿음 주신
우리 장군님께
철산봉을 통채로 안고 가리라
조국을 받드는 강철기둥이 되어
그이앞에 땀땀이 나서리라

아 광부의 소원으로
철산봉의 흰눈을 녹이는 새해 이 아침
광광! 발파소리는 강성대국 봄우뢰다
쿵쿵! 산천을 떨치며 쏟아져내리는 쇠돌폭포는
봄날의 눈석이다
광부의 소원 꽃으로 피어
철산봉에 만발하리라
장군님 오실 길에, 장군님 오실 길에!

해빛밝은 요람지켜 눈비 헤치시는
장군님 어버이모습 사무치게 그림네

우리 사는 이 땅우에 새날이 밝을 때
선군자욱 따라서는 신념은 불타네
전선에서 강성대국 지름길 여시는
장군님 높이신 뜻을 심장으로 받들리

백두산 3 대장군의 형상창조에서 혁신을 이룩하겠다

새해의 첫 아침, 저 멀리 하늘가로 메아리치는 은은한 새해의 종소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삼가 웃기를 여민다.

지난해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시였으며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는가.

새세기의 본보기공장들로 이름떨치며 완공된 공장들과 림름한 웅좌를 자랑하는 발전소건설장들, 지난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주타격전선답게 큰 결음을 내짚은 농업전선, 우리 인민의 생활에 큰 은을 나타낼 목장들...

문자그대로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한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의 하늘가를 진감시킨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률...

그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우에 솟아난 창조물들인 것이다.

하기에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그 모든 업적을 대할 때마다 그 위대한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갈 굳은 결의를 더더욱 가다듬군 하였으며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로 준비시키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숭고한 사명감으로 가슴답히군 하였나. 결심은 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지난해 우리 4.15문학창작단에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

(《김일성상》계관인 박운작)과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북방의 눈보라》(리신현, 박태수작)를 출판에 회부하였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청산별》(김삼복작),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백남룡작),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주제로 한 《충성의 한길에서》의 속편인 장편소설 《강산의 봄》(김청수작)을 최종단계에서 추고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김일성상》계관인 소설가 최학수는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최후결전》을, 소설가 주유훈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탄생》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외에도 《김일성상》계관인 소설가 정기종과 소설가 박룡운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인 《성강의 봉화》와 《청춘대학》을 짧은 기간에 초고완성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소설

가 김성관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별들은 속삭인다》, 소설가 송상원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원시조》를, 소설가 박태수는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천지개벽》, 소설가 리동구는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성지》, 소설가 김영희는 《충성의 한길에서》의 속편인 장편소설 《녀성의 하늘》에 대한 초고집필전투를 힘있게 벌려왔다.

실로 우리 4.15문학창작단 창작가들이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는 방대하며 그로써 긍지 또한 크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수 없는것이 우리들의 심정이다. 백두산3대장군께서 조국과 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크고 방대하다. 그 크고 방대한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다 형상해내자면 너무나도 재능이 무디고 결을 또한 뜬 우리들이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자 심장의 박동처럼 재촉하고 또 재촉하는 웨침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고있다. 하여 우리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큰 창작성과를 안아올 결심에 온몸을 태우고있다.

올해 우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오던 여러편의 총서작품창작을 마무리할것이며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태양전가》(남대현작)를 출판한데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청산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봄의 서곡》을 완성출판할 결심이다.

또한 이미 완성단계에 들어선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최후결전》과 장편소설 《탄생》,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성강의 봉화》를 비롯한 여러편의 수령형상장편소설들이 독자들의 손에 가닿게 할것이다.

그밖에도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담력을 형상한 장편소설 《미국은 어디로 가나》를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의 초고를 완성할것이다.

목표는 높고 기세 또한 충천하다.

우리는 올해 우리 스스로 내세운 방대한 창작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것이며 이 길에서 수령결사옹위투사들로서의 작가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지금 우리 모든 작가들의 눈앞에는 것처럼 고심하여 창작완성한 소설들을 독자들이 기쁘게 받아 읽어보는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새해에 우리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하루를 열흘, 백날맛잡이로 달리고 또 달릴것이다.

4.15문학창작단 부단장
《김일성상》계관인 안 동 춘

선군의 붓대를 힘있게 틀어쥐고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던 해, 주체 94(2005)년이 저물고 새해의 아침이 밝아왔다.

저멀리 울려퍼지는 새해의 종소리, 종소리...

그 종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주는가.

이 시각 나의 눈앞에는 지난해 백두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들이 가슴뜨겁게 펼쳐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지금 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철령의 험한 령길을 넘으시였고 끝없는 전선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길에 우리 병사들에게 안겨주신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였던가.

그뿐이었던가. 온 한해 우리 장군님 찾아주신 공장과 농촌은 그 얼마이며 건설장은 또 얼마였던가.

눈보라길, 폭우길, 피약별길...

우리 병사들을 위하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따라 종군의 붓대를 힘있게 틀어쥐고 심장을 들먹이던 전선취재길들이 가슴후둑게 어려온다.

험한 령길,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 땅, 바다끝까지라도 찾아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취가 어려있는 전호가들과 초소들...

거기에서 우리는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갈 불타는 맹세로 온몸을 불태우는 병사들을 보았고 그들이 지닌 무적필승의 거대한 담력과 힘을 느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뜨겁고 자애로운 사랑은 우리 종군시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어지였다. 지난해 정초 우리 시인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복입은 시인인 저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지고 더 좋은 시를 쓰기를 바란다고 힘있게 고무해주시였다. 지금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깊은 그 영상,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 들리는듯만싶다.

하늘같은 그 믿음은 심장의 불길로 타올라 지난해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나

는 미숙하게나마 서사시 《총대우에 날리는 당기》와 서사시 《내나라의 맑은 하늘》을 세상에 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 서사시들을 보아주시고 수행한 일군들에게 선군시대 시인답게 시를 아주 잘 썼다는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도 주시였다.

제가 시를 썼으면 얼마나 잘 썼겠는가.

이것은 선군시대 혁명군대의 문필가답게 우리 군인작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군문학의 기수로 앞장서 나가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령장의 사랑넘친 축복이였다.

하기에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가슴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지금 우리 군인창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더 높은 창작적성으로 보답할 열의에 넘쳐있다.

지난해 건군절을 맞으며 시품 《그 이름 빛나라 백두산 혁명장군이어!》(박성일), 《장군님 그 품은 봄》(리범수), 《해빛》(원향일), 《그 사랑 총대에 새기며》(김대성), 《오중홉7련대의 기발을 날리며》(량정철), 《미제의 죄악을 총결산하리라!》(최향일)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드린 시인들은 올해 더 큰 창작목표를 세우고 새해 첫걸음을 내짚었다. 우리 군인시인들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사시를 비롯한 서정시, 가사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자랑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나갈것이며 군대와 온 사회에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팍 차넘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다.

군인소설가들의 결의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다.

《김일성상》계관인 소설가 박운은 지난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전선의 아침》을 출판에 넘긴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새로운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오성산》(가제)창작에 돌입하였다.

또한 소설가 리민택은 장편소설 《대결》, 소설가 박동운은 장편소설 《총포탄 8형제》를 세상에 내놓을것이며 소설가 조권일은 장편소설 《김광철》을, 소설가 정태연은 장편소설 《미래를 위하여》, 소설가 최영조는 장편소설 《북두칠성》 집필을 완성할것이다.

실로 선군시대 우리 군인창작가들이 지닌 임무는 무겁고 방대하다.

하지만 선군의 총대와 붓대를 그토록 중시하시며 사회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고 끝없는 열정과 힘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여 점령 못할 목표란 없다. 새해 첫 아침을 맞는 우리 군인작가들의 기세는 충천하고 신심과 용기는 백배하다.

더 세차게 뚫이자, 심장을!

더 힘차게 달리자, 우리 장군님 선군장정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자 혁명적광만이 넘치는 병사들 속으로...

이것이 새해 첫 아침에 다지는 선군문학의 최전방을 지켜선 우리들의 한결같은 결의이며 나의 결의이기도 하다.

조선인민군문에창작사
《김일성상》계판인 신 병 강

더 높은 창작적열정을 발휘하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들끓는 현실은 문화예술의 무궁한 원천이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을 가져온 지난 한해가 저물고 새로운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는 새해가 밝아왔다.

해마다 맞는 설날이지만 이해의 새해 첫아침은 류다른 흥분과 환희를 불러준다.

지난 한해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맞이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비상한 각오와 충천한 기세로 내달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실로 자랑차기만 하다.

그에 발맞추어 격동적인 한해의 날과 달들을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이어온 우리 작가들의 성과 또한 긍지롭다.

지난해 정초, 당의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우리 도의 작가들의 가슴은 선군의 붓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서 받들어나가겠다는 드높은 결의로 세차게 뚫어 번졌었다.

도작가동맹 창작지도일군들은 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우리 작가들의 양양된 창작적열정을 더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창작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무엇보다먼저 지난해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선을 농업전선으로 정한 당의 의도를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한 도의 실정에 맞게 농촌주제물창작에 총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중요한것은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글부글 들끓는 농촌현실에 작가들이 몸을 꼭 잠그고 현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며 창작하도록 하는것이였다.

도작가동맹의 창작계획을 받아안은 작가들이려장을 든든히 꾸리고 현실속으로 속속 떠나갔다.

우리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눈덮인 1월의 전야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짐을 지면서 시작되었고 봄맞이노래 흥겨운 봄들판을 지나 날알털기로 드바쁜 풍요한 가을에로 이어졌다.

결실은 나무랄데 없이 좋았다.

10여편의 단편소설들과 9편의 실화문학, 수필, 단상, 수십여편의 서정시들이 어디에도 짝지 않을 높은 수준에서 창작된것이다.

논밭에다 두벌농사의 희한한 전경을 펼쳐놓은 한 처녀의 불타는 심장을 감동깊게 그려놓은 단편소설 《백로떼 날아든다》(김명익작)와 오직 농업생산을 늘여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농민전형을 새롭게 창조한 단편소설 《불길》(김영선작)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락관이 넘치는 시초 《10월에 만나자》(오필천, 채동규, 김충기작)등이 그 실례로 된다.

아동문학부문에 새로운 이채를 던져준 동화 《은별소녀가 얻은 수정거울》과 여러편의 아동문학작품들 또한 진지한 현실체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귀중한 결실이다.

이외에도 황해남도작가동맹 소설가들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인 장편소설 《한생의 자옥》(김명익작), 《꺼지지 않는 불길》(김영선작), 《뿌리》(안홍윤작)를 창작발표하였으며 장편력사소설 《최영장군》(박종철작), 장편소설 《사라진 밀로》(송병준작)를 출판에 회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으로 지난 한해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경험을 덧쌓아준 잊지 못할 해였다.

올해 우리 도작가동맹위원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높

은 창작성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감에 선군혁명문학건설에 크게 기여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으로 모든 작가들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도작가동맹위원회는 올해에도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그들의 창작조건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나갈것다.

또한 도작가동맹위원회는 올해에 당정책을 기동성있게 반영한 단편소설들과 서정시들, 예술산문들을 집중적으로 창작하는 한편 정편소설 《조

옥회영웅》(가제)(안홍윤작), 장편소설 《사랑의 메아리》(가제)(김영선작)를 창작완성하도록 하며 당의 농업정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의 농민영웅을 형상한 장편소설 《가을》(가제)(김명익작)을 현지에서 탈고하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의 공동구호를 계속 힘있게 들고 새로운 창작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건설에 이바지해나가겠다.

황해남도 작가동맹위원회 위원장 송 병 준

작품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 더 좋은 평론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뜻깊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해를 희망에 넘쳐 바라보는 이 시각 나와 모든 평론가들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지고 심장은 세차게 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의 근본시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선군문학창작을 선도하는데서 우리 평론가들은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론설들인 《선군시대에 새롭게 정식화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의 선군문학》, 《군중문학창작활동을 적극 벌리는것은 선군시대의 중요한 요구》 등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작가들과 인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평론가들은 지난해 작가들의 창작을 추동하는 평론, 때로는 조언자가 되는 우수한 평론들도 많이 창작하여 새세기 선군문학창작에 기여하였다.

평론들인 《선군령도의 백승의 진리와 총서 <불멸의 향도>》(김성우), 《<상봉>의 비극을 더 이상 지속해야 하는가》(최길상), 《조국찬가에 바쳐진 진실한 시형상》(최희진), 《성격의 매력과 구성의 묘미》(최언경), 《류사한 주제명령에서의 개성적인 성격형상》(림창덕)...

취급한 작품과 제기한 문제들은 서로 다르지만 평론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고 작가들의 창작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우수한 창작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

지하였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 평론가들은 지난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고 작가들의 창작실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수한 평론들을 더 많이 창작해내지 못한 자책감도 느낀다. 그런것으로 하여 올해에는 더 좋은 평론들을 왕성히 창작해낼 결의도 그만큼 더 굳게 다진다.

나도 여기에 발맞추어 새해에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안아올 결심이다.

올해 우리 평론가들은 너도나도 떨쳐나 작가들의 창작생활에 깊이 침투하려고 한다. 작가들의 작품창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고충을 같이 체험하며 형상대안도 함께 토론하고 찾아주면서 그들의 창작을 적극 도와주는 립장에서 평론활동을 벌려나가겠다. 여기에 바로 실리가 있는 평론을 쓰는 길이 있다.

나는 이 해에 선군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인간문제의 탐구와 전형적성격창조문제, 생활을 진실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며 도식과 류형을 없애고 다채롭고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에 모를 박고 사색을 기울이며 이 문제에서 평론가의 독창적인 발견과 주장이 있는 평론을 쓰려고 한다.

언제나 우리 식 평론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어 실력형의 평론가로 철저히 준비하며 시대가 요구하고 문학창작실천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성있는 평론, 문학운동에 보탬이 되는 평론을 써냄으로써 선군문학창작을 선도하는 평론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것이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와 우리 모든 평론가들의 한결같은 결의이다.

평론가 박 춘 택

만년성벽

최윤철

머리시

작은것에서 큰것을
보아야함은
평범한것에서 위대한것을
찾아야함은
우리 장군님 배워주신 철리이거니
사람들이여! 내 오늘
힘겨웠던 고난의 그 나날에 태어난
창조의 산악!
여기 광포제방우에서
높뛰는 숲결에 시운을 태워
쭉 뻗어간 제방을 바라보나니

무심히 보지 마시라
거인인양 솟아오른 저 제방을
교대를 모르는 보초병마냥
수백정보 새 땅을 지켜섰다!
무심히 걷지 마시라
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영원한 조국의 재부를 성벽처럼 세웠나니
그렇다! 저 광포제방은
사회주의를
지켜싸운 청춘의 배짱
지켜이긴 청춘의 노래
변함없을 청춘의 사랑

아, 이 나라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이여!
그대들의 심장의 박동에 맥박을 맞추며
열정의 자욱에 보폭을 맞추며
하나하나 언어를 성돌처럼 고무어
우리 장군님과 더불어 영원할
성벽의 노래를 적어가려다!

제 1 장

중대장: 한병수
《제일 잊을수 없는것은
제방이 터지던 날이었습시다!》

×

함흥시의 동흥산을 감돌아
유유히 흐르는 성천강을 껴안고
함주백리벌이 푸른힘을 뻗치는데
그 끝머리에
광포호수가 잠들고있다

아침이던
높이뛰기 경쟁하듯이
수면의 해빛을 뿜어올리며

크고작은 고기들이 번쩍거린다
감탕속에 술뚜껑같은
조개들이 입 벌리고
한가함에 하품이나 하는듯
호수는 심심함을 덜려나?
철새들의 울음소리에
반겨 일어 출렁이더니
말없이 기슭을 매만지며
남시군들의 뜸부기를 희롱하더니
때로는 바람따라 물갈기 휘뿌리며
사납게 뿔머리를 터뜨렸다!
수천년 력사의 흐름속에서
아직도 이곳은 자연이 《주인》이었다

그러더니 어느날
호수가에 청년들이 나라났다
호수는 켜하니 눈을 좁히고
삼을 켜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날리는 머리칼이며
조여맨 신발이며
넓은 가슴에
호수를 통채로 품안을듯
어깨 들먹이는 그들의 모습을

썰물때면 무연히 드러나는
수백정보나 되는 땅
그 둘레에 제방을 쌓아
새 땅을 찾아내리라!
청년들의 마음엔
벌써 개간된 새 땅이 드러누운듯
수십리제방이 솟고있었다!
《이 호수에 우리는
벼를 심을것ियो!》
로동처장 김수렬의 목소리
(그는 이 공사를 책임진 돌격대장!)
50고개를 넘겼으나
젊음이 들끓는 열띤 목소리-

그 소리에 발끈한 호수는
벌써 암전을 잊은듯
바람을 불러불러
물이랑을 높이 세워
코깅을 내질렀다!

시작은 언제나 간고한 법이나니
감탕에 박혔다 일어서면
두눈만 반짝이고
하얀 이발만 보석같이 눈부신데
마주보며 손벽치며
감탕떡을 뿌리며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물기만 없으면 돌처럼 굳다가도
 물만 스며들면 풀사닥 풀리며
 희롱하듯 갈라지고 꺼져들고
 쏟아부은 자갈이며 모래 그 얼마이던가
 끝모를 식욕을 가진듯
 삼켜버린 흙과 장석은 또 그 얼마
 매끄러운 성미 그대로
 감탕은 도무지 결을 주지 않았다

배전에 (장석나르는 배)
 돌에
 감탕에
 딱딱 들어붙던
 손이며 신발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날과 달은 흘렀나니
 어느덧 개간된 새 땅의 포전엔
 모내기바람이 흥을 올렸다!
 그러더니 잊지 못할 8월 3일날
 먹구름이 짙뽀뽀히 미간을 좁히더니
 제방도 사람도 집어삼킬듯
 장마비가 짹짹
 바람도 우윳우윳
 《제방이 위험하다!》
 중대장의 목소리 불에 타는듯
 돌격대원들이
 명령받은 전사들마냥 나타났다
 《제방이 위험해요!》
 명주의 목소리
 예리한 칼날처럼 가슴을 찢는다

어제날의 병사였던
 제대군인 명주
 처음엔 식당근무 섰더니
 초소에서도 앞자리에 서던 그
 어찌 뒤자리에 설수 있으랴
 처녀는 오늘도 병사의 마음
 병사의 위치는 언제나 앞장이거늘
 굳센 생각이 움트고 맺혀
 어느날인가
 중대장을 만났다
 장석소대로 보내달라고
 몇번이고 팔을 잡았다

처음엔 머리를 젖던 중대장
 때로는 어성도 높여보더니
 처녀의 눈빛앞에
 장석소대 짙은 입심에
 그만 물러섰는가
 그날부터 명주는 장석소대로
 소대의 꽃으로 누이로 되었다

무거운 장석지고
 《부두》다리 오갈 때면 등골에서 땀이 쫄
 《이리 주오!》
 투박하나 진실하다
 심철의 목소리

힘겨움에 허리 끊어질듯 하다가도
 이런 동지들의 사랑이
 장석같이 그를 받쳤다!

《위험하다!》
 웨치는 소리 듣는둥 마는둥
 마대메고 무작정 뚝을 맞받아
 감탕을 헤쳐가는 처녀
 《죽자고 이래!》
 사나이의 억센 손이
 처녀의 옷자락을 당겼다
 후두둑 단추가 날려간다
 《심철동지! 놔줘요!》
 처녀는 정신없이 부르짖으며
 사품치는 물결 맞받아 미는대
 《철수요!》
 비통히 울리는 청년의 목소리
 어찌 이 말이 쉽게 나가랴!
 저런 불같은 청년들에게 물려서라니?
 그래도 물려서야만 하는 촉박한 이 정황
 《철-수-요》
 흐르는것 비물인가 눈물인가
 한몸 막아 한몸 덮어
 저 제방을 지킬수만 있다면
 노도치는 물살 멈출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에익!》
 처녀의 어깨에서 마대를 빼앗은 심철
 도전하듯 자신을 매질하듯
 감탕속의 물결 헤가른다
 욕몰어 비틀리듯 근육들이 울근불근
 제방을 바라보는 처녀의 눈이
 주먹만큼 커졌다!
 편듯 정신이 든듯 그제야 처녀는
 급히 달려온 시당책임일군들
 돌격대장이며 지휘관들이
 청년들을 돌려세우는
 성난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심철동지!》
 처녀의 목소리
 청년의 앞길 막는다...

그들이 안전지대로 들어서기도전에
 제방은 터졌다
 그들을 향해
 동지들이 뛰어들었다
 그들속엔 17살 막내가 창호도 보인다
 가까스로 기슭에 올라섰을제
 의례히 그렇게 될 일이 된듯이
 호수는 욱욕 소리 질렀다
 자기의 승리를 웨치고있었다

터졌구나 제방이
 잠겼구나 논벌이
 누구도
 과학자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폭우였다
 《아!...》

땅을 치며 가슴 치며
 억이 막힌 현실을 씹어삼켜야만 하는
 청년들의 분통함이어!
 어떻게 쌓은 저 제방인가
 어떻게 가꾸어온 저 벌인가
 돌격대원들이 일어설념을 못했다
 돌격전의 낮과 밤이 물속에 잠겼거늘...
 말씀드리기 힘든 소식일 때마다
 바재이는 일군들의 가슴
 타드는듯 안타까운데
 어찌하랴! 우리 장군님 아니시면
 풀릴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선시찰의 길에서
 광포소식을 들으신
 아버지장군님
 오래도록 먼 하늘을 바라보셨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그려보시는가
 모두 불러 품에 안아주시는가
 새벽빛을 전하듯
 별들이 푸른 웃음 뿌리고
 바람결에 옷자락 스적하는데
 마음속에 해가 솟는
 장군님의 말씀!

《실패가 없는 성공이란 없듯이
 자연과의 투쟁이 어찌 쉽겠소
 제방이 여러 구간이 아니라
 한구간에서만 터졌다는건
 가능하다는것을 말하오
 동무들!
 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청년들을 믿소!》

이 뜨거운것이
 일군들의 가슴속에 퍼져내렸다
 온 광포땅을 머리들게 하였다
 어떤 사랑을 안고 사는
 어떤 믿음을 받아안은
 이 나라의 청년들인가
 불같은것이 불을 태우며
 멈출줄 모르며 흘러내렸다!

눈물!
 가장 피롭고 외로울 때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플 때
 감정의 피처럼
 남몰래 흘러내려
 안타까움을 덜어주더니
 말없는 비판을 대신도 하더니
 아니구나! 오늘은
 누가 눈물은 가냘픈의 호소라고 하는가

나약함의 몸부림이라고 하는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가장 사랑하고 그리울 때
 진심의 혈관을 타고
 정이라는 뜨거운이 분출하나니
 위대한 사랑이
 참된 눈물을 날게 하였다
 돌격대원들의 저 눈물은
 감격이며 고마움이며
 억찬 신념의 불물이였다

아! 인민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한치 간격도 없이 사시는분이어서
 그 인정에 끌려
 그 사랑에 끌려
 청년들은 운명을
 장군님과 함께 하나니
 다음날 아침
 흐뭇이 밝아보던 제방길이 아닌
 푸른 물결 출렁이는 호수로
 대원들은 또다시 나아갔다
 삼을 들고 찾아왔던
 그날처럼 그날처럼
 붉은기 펄펄
 노래소리 우렁차다
 큰 산도 들어었을
 배심이 끓는다!

제2장

돌격대원;리명주
 《우리 처녀들은 안타까왔어요
 잠깐 다리쉽이나 하고
 식당으로 오겠다던 동지들이
 앉은 자리에 잠들어
 불러도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날 저녁
 오락회를 할 때엔
 온몸이 그대로 춤이 되고
 노래로 된듯싶었어요!》

×

암전한 새각시 걸음걸듯
 어둠이 차츰차츰 내리는 저녁
 엄청난 작업량 들어올린 대원들이
 걸음도 가벼이 병실로 향한다
 돌격대병실은 수수한 단층건물이여도
 깨끗하고 절도있는 생활의 얼굴이
 흰 벽체에 그대로 비껴있는듯

시간보며 잠 못들던 눈빛이
 덧국수를 놓아주던 살뜰한 손길이
 비록 없을망정
 그 모든것보다 귀중한
 더 정들고 소중한 동지애의 집
 돌격대병실 여기에는 있었다
 언발을 품에 넣어 녹여주던 동지의 사랑이

한장 모포속에서 꼭 껴안고 열을 더하던
그렇듯 진실한 마음들이
나이도
성격도
직업도 달랐던
불같은 청년들을 품안고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던
돌격대병실
식당근무처녀들의 웃음소리
가슴에 훈훈히 꽃을 피우고
굴뚝의 연기마저
깃털처럼 포근히 맴돌아 안겨드느...
아 그래서 청년돌격대원들
《우리 집》이라 정답아 부르는
돌격대병실!
이런 《우리 집》들이 대들보마냥
조국의 큰 집을 떠받들고 서있다!

우리의 청년들 식사시간마저 아가와
마대깔고 감탕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장석 실은 배우에서 한조는 노를 잡고
한조는 식사하고 때로는 비물에 말아
때로는 언밥도 먹으며
총각처럼 굳센 어깨
구워낸듯 단 얼굴
그속엔 심철이도 있었다
그는 룡성기계공장 단야공이며
제대군인!
초소에 찾아오신
장군님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은 그
지휘관들 따라 제일 힘든 곳에
제일 어려운 곳에 남먼저 뛰어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창호를 동생처럼 사랑하는 그
돌격대가정의 말이인양
행동으로 말하며 사는 평범하면서도
미더웁게 눈에 띄는 그
불굴의 군인정신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나는듯
이런 동지들과 함께 살거늘
한번 다진 맹세 흔들림 모르는
신념의 학교
맹세를 버리는 -청년돌격대!

돌격대의 제복입고 거리에 나설 때면
우리모두 동갑나이 형제 같다네 ...

출판이 터진 병실은
붐비는 대원들로 빙글빙글 도는듯
머리 획 넘기며 지휘하는 장석소대장
싱글빙글 소리통 뿜는 차반이소대장
(제방에 차가 흙을 부리면
삽으로 퍼는 소대
어떤 날엔 15명이
2천립방을 제끼곤 하였다!)
병이며 늑소랭이가
조화로운 리듬을 대신하는 여기
노래도 좋고 시도 좋아라
아껴온 재간 키를 다루며

마음 후련히 더치는 청춘의 랑만이어!

요란한 박수소리 울린다
심철이와 명주의 2중창
처녀에게 남몰래
빨간 사과 쥐여주던
아낌의 세계를 어찌 모르랴
언손을 녹여가며 깨끗이 땀 작업복
누구의 정성인지 어찌 모르랴
동지들이 떠올리는 불같은 박수소리
선창을 누가 땀들 무슨 상관 있으랴
2중창은 독창과 다름 없나니
합창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노래소리

광포바람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이들의 노래 어찌 누르랴!
광포호수가 그 아무리 요동친다 한들
이들의 어깨춤 어찌 막으랴!
오락회시간은
휴식의 웃음이며 새힘의 절정!
그래서 지쳤다가도
이 시간이면
어깨를 떠밀며 들어서며
가장 힘겨운 날에도 이 시간을 찾았다
그러면 가슴 후련히 열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돌격대의 노래와 춤
그것은 힘이었고
돌격대가정의 언어였다
돌격대의 룡담
그것은 랑식이었고
돌격대생활의 진맛이었다

밤은 바람에 시달리며
우-우 불만을 터뜨리는데
지휘관들뿐이라
돌격대원들도 머리 맞대고
래일의 작업을 토론하였다
열띠게 오가는 언어속에선
장군님의 믿음에 꿋꿋하였다
동강냉이 한이삭이
온 대오를 돌고돌던
피보다 진한것이 뛰고있었다!

이제
저 광포제방이 우뚝 솟은 다음
여기 돌격대병실자리엔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키 솟구며 들어앉으리
그들이 춤추던 자리엔
탁아소가 자리잡고
아이들의 요람 지켜주리
그들이 작업 나가던 길엔 드넓은 벌이

땅이 무거웁게 이삭을 드리우리
장공장 기름공장 파자공장들이
집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거니
아! 그날에 그토록 뵈고싶던
아버지장군님을 여기에 모시리
이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결사옹위의 대오가 뛰었고
총폭탄장석이 뻗었다

아, 식을줄 모르는 불길과 같이
마를줄 모르는 샘물과도 같이
열렬하고 깨끗한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이여!
믿음이란 그대들이다
사랑이란 그대들이다
누가 돌격대엔
힘겨움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이들속엔
우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느냐!
어느때나 첫 노래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절절히도 부르는
이런 청년들이 돌격대를 이루고있다
붉은기와 혈맥을 함께 하고
강철의 메갈이 손탁이 드센 이들
한번 주저앉으면
열번 백번을 다시 일어서는
백리를 십리로 달릴줄 아는
이런 청년들이
한지붕아래서 한마음을 나눈다!

제3장

돌격대원! 최심철
《그날은 생각하기조차 괴롭습니다!》

×

《기상!》
참모장의 목소리 벼락치듯 울렸다
얼어든 새벽공기를 깨뜨리며
병실이 흠칠 눈을 뜬다
기상소리
이속엔 기운찬 열정이 끓어
새날을 앞질러 새날을 알리나니
버석이는 얼음물에 푸-푸 열을 지필
심철의 모습도 보이는 소리
깨끗한 마음 찰찰 흐르는듯
작업복 손질하는 명주며
거울보는 처녀들이 웃음도
즐겁게 보여오는 소리
하건만 오늘은
어찌하여 저 소리 비장히 울리는가

《빨리》
《빨리》
번개같이 날랜 손
작업복 꿰며
다투어 문을 열며
생각을 일새도 없이
대원들은 정렬했다!
바람에 거칠어진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새벽별모양
대오앞엔 머리 떨군
조각으로 굳어진듯 한
창호가 서있다
한달전 사고가 어제 같은데
또 무슨 일 저질렀는가!

…한달전 어느날
식당근무 명주누이 돕는다고
짚검불로 불피우던 창호
찢러들던 추위가 사라져선가
따끈따끈 품어드는 불길에
그만 눈처럼 녹아들어
끄떡끄떡 …
하더니 버짚에 불이 달려
온 식당칸이 활활

끄슬린 머리
불에 탄 옷자락
툭기친 손
침묵
침묵
엉엉 창호만이 가슴치는데
불에 탄 병실앞에선
오직 침묵만이 주인인듯!

어떤 처벌이 내려질가
숨가쁜 침묵과 침묵만이
모두의 가슴을 조이는데
명주 한발 앞에 나서며 동지들을 돌아본다
《동지들 용서해줘요!
불은… 불은 저때문에…》
대신 죄를 막아나서는
처녀의 눈은 순하고 맑았다
그 어떤 뜨거운것이 몽클 접어든다

《됐소!
그렇잖아도
보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무들!
불이 번쩍 일게 다시 일떠세우자구!》
돌격대장의 목소리 헉헉히 울리고
참모장도 중대장도 무엇인가 의논한다
정치지도원이 다가와
창호의 어깨를 툭 친다!
그러자 온 대오에 쨍-
후더운 전류가 흐르고
불에 묻은 겁뎡이 명주가 닦아주고

이날부터 밤잠은 더욱 몰랐으니
해불을 대신할 신발마저 없어도
경쟁의 힘줄이 치질수 있으랴!
한장한장 ब्ल록는 어떻게 찍었던가
한칸한칸 벽체는 어떻게 세웠던가

눈바람에 꾸덕꾸덕 언 진흙 맨발로 이기며
 맨손으로 물매질하여 트는 손 트는 다리
 아려드는 뼈 툇 떨어져나갈듯
 앙다문 입술에 피졌다
 눈뿌리마저 들리울듯!
 《어, 시원하다!》
 진흙속에 들어서는 참모장의 목소리
 심철이 웃으며 따라서고
 얼굴마다 꽃이 핀듯 불같은 노래속에서
 병실은 다시 머리 들었다!...

창호를 바라보는 대원들
 지나간 그 일이 떠오르는데
 무슨 일이나!
 머리 떨군 창호는
 또 무슨 일 저질렀는가
 의문이 의문을 낳는다!

...으스스한 저녁
 수염이 꺼칠한
 2소대 민호가 창호를 찾았다
 (그는 제약공장에 다니는 약제사)
 떠나올 땐 호기있게 맹세도 다졌건만
 시련앞에 겁을 먹고
 힘든 일엔 요리조리
 날씨 험한 날이면 도지는 병
 《창호! 가자!
 말은 안해도 모두 너를!...》
 처음엔 싫던 소리가
 가책으로 만발로 이어지더니
 막내가마음은 움찔거렸다
 그러자 따끈한 아래목이
 더운 김 문문 나는 밥그릇이
 눈앞에 다가들었다
 (제길! 이렇게 짐이 될바엔...)

마을 어데선가
 잠을 깬 개 한마리
 웅얼 밤을 놀래우는데
 덩달아 짓는 소리 밤을 잡아 흔드는데
 두 청년은 어둠속에 녹아들었다
 바람은 차갑게 얼굴을 때리는데
 죄진 마음은 허둥지둥
 고개마루우에서 창호는 돌아봤다
 이 고개만 넘으면 다시는 병실을 볼수 없으리
 병실은 조용히 웃는듯
 말없이 창호를 마주보고있었다
 그 불빛은 채찍마냥
 그의 량심에 날아들었다

눈에 삼삼 다가온다
 목고줄 당겨놓던 심철이며
 장갑을 벗어주던 명주며
 안해가 보내준 신
 자기는 작다고 신겨주던 정치지도원
 《가자!》
 민호는 이끌지만
 창호는 뿌리내린듯 움쩍 않는다
 《창호-》

민호의 부름소리 팔을 잡는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걸음걸음 생각을 씹으며
 용서를 바라며
 다시 병실로 향한다
 얼핏 돌아서 고개 바라보니
 바람은 검불을 휘몰아
 우-우- 고개너머 날리고있었다

《동무들!
 우리 대오에 도주자가 생겼소!》
 참모장의 목소리
 마치도 얼음장을 들부시는듯
 《누굽니까! 그제!》
 웅성이는 대오
 눈빛들이 창끝처럼 일어선다
 《제가...》
 창호 두서없다
 그의 말속엔 뼈대가 없다
 《동무들!
 우리는 장군님께서
 광포제방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청년돌격대원들이요!
 도주는 곧
 그 믿음앞에 배신하는것
 고난앞에 물러서는것!
 우리가 이것을 용서할수 있는가!》
 《그럴수 없소》
 우뢰치는 화답소리

《우리 오늘은
 감탕속에서
 한치한치 저 제방을 쌓아가지만
 장군님께 기쁨 드릴 그 순간에 살고있기에
 추위와 배고픔도
 아픔과 피로움도 함께 나누며
 오늘까지 생사를 같이하지 않았소
 동무들!
 신념이 없이야 의지가 없이야
 우리 어찌 저 감탕을 정복할수 있겠소!》
 잠시 생각에 멈춰선듯
 참모장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갈 사람은 이제라도 나서오
 야밤을 탈게 있는가!
 우리는 그 길을 막지 않겠소!》
 《참모장동무!
 그건 우릴 모욕하는거요!》
 심철의 목소리
 《우릴 뭘로 아세요!》
 명주의 목소리
 《갈 사람은 가라지오!
 우리는 저 제방을 기어이 쌓을것이요!》
 또 누군가의 목소리!

《웁소!》
 호웅소리 부딪치며
 불꽃을 튕기며
 누가 선창을 떴는가
 어깨걸고 물결치는 대오

노래는 합창으로 증폭되었다!

그리운 장군님 품을 떠나
갈 길은 아득히 멀어라
...

부를수록 젖어드는 이 노래
부를수록 목메이는 이 노래
손과 손을 부서질듯 틀어잡게 하나니
틀어진 손으로 피가 흐르는듯
그날로 병실마다 눈을 뜬 구호는 쨍쨍 뒤흔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조국에!》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자!》
벽에 문열에 살아뛰는 구호는
불을 토하며 불을 지폈다

그날 밤
그처럼 부드럽고 살뜰하던
친누이로 따르던 명주에게서
아픈 말을 들었다! 창호는
민던 마음일수록
배반의 아픔은 더욱 크나니
《왜 왔니? 왜!
그렇게 돌아설 길을!》
《누이!》
창호 다가선다
머리는 숙였어도 고마움은 일어선다
진심은 어느때나 마음의 문을 여나니...

비판은 달지 않다!
인생의 길에
누구든 이 정류소 거치지 않은이 있으랴!
말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지울수 없는 굴절을 남기나니
깊은 밤 뜬눈으로 새우며
때로는 호젓이 거닐며
생각의 층계는 높았던가 낮았던가
누가 비판을 피해가느냐
누가 비판앞에 주저앉았느냐
공백은 후회라는 큰 상처를 남기나니
비판이란 그 공백의 의사
무릇 우리들속엔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어
마음의 매듭을 풀지 못할 때도 있나니
생의 매 구간 출발선과도 같이
비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느냐
진심을 소화하는 사람은
그가 비록 어리다 해도
큰 사람으로 자랄수 있다고
그가 비록 나이 많다 해도
젊음을 찾을수 있다고
그래서 힘든 말을 해준 사람은
잊지 못할 은인으로 되는 법

이날 밤
창호 차던진 이불깃 여며주며
심철이도 잠 못들었다

(내 잘못이다
형이라고 하면서도
왜 잘 이끌어주지 못했던가
더 잘 도와주지 못했던가
명주의 말은 나에게 대한 비판이다!)
창호의 심장파 속삭이는듯
그래도 우리 창호 어찌 다 알것인가
비판받은 사람은 잘수 있어도
비판한 사람은 잠들수 없거늘

이런 날
이런 밤이면
왜 그리도 장군님 그리워질까
사람들 흔히 힘들 때머는
부모며 애인을 생각한다 하지만
나라의 큰 공사 맡겨주시고
우리보다 더 마음쓰실
장군님생각
오늘의 이 일을 아신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
쳐 찬바람속에 날이 새도록
벌이라도 서고싶은
심철의 마음은 이렇다
돌격대의 생각은 이렇다!

제4장

돌격대장;김수철
《그 동무들을 생각할 때면
제일 먼저
얼음판축구가 떠오르곤 합니다!》

×

한여름에도 바람만 터지면
나무도 뿌리채 날리는 이곳
물이 많아 물광포
감탕뿐이라 감탕포
이름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이곳

그 옛날 봉건의 망돌에
가난에 갈리우며
근근히 생명을 이어갈 때도
광포의 주인은 인민이 아니었다
고삭은 이영이 가냘픈 연기처럼 스러지던
깃발한 그때에도
광포의 주인은 인민이 아니었다
저 바다 건너 일제놈들은
일장기를 여기에 박고
우리의 광포를 도마우에 올려놨다!
불판에서 타는것은
기름이었던가
피였던가
눈물이었던가
이 땅의 살진 물오리며
팔뚝같은 잉어도 성차지 않아
이곳을 개간하여
《천황》에게 바치노라고

기름진 낱알만을 먹으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리라고
왜놈의 꿈은 달기도 하였다
하였어도 끝내 개간 못한 광포
기어이 머리 숙이지 않던 광포!

그 언제부터나
네 가슴에 새봄이 움터난것은
어버이수령님 포화속에서
더 풍족할 인민의 력사 구상하실 때
비로소 너는야 생명을 받아안고
희망의 눈물 글썽하였지
해빛을 끌어안고 어리광도 피웠지
오늘은 우리 장군님
벼바다의 력사도 꽃피주려 하시나니
너는 얼마나 더 아름다와지랴!
한쪽엔 오리바다
또 한쪽엔 벼바다...

광포호수야!
정녕 너는
얼마나 큰 복을 쌓으로 받았느냐!
그 뜻을 받들어 새로운 주인
돌격대청년들이 찾아왔으니
보느냐! 듣느냐
얼어든 너의 가슴우에서
그들이 지금 축구의 불을 지켰다
축구열!
이는 짧은 휴식시간을
열정으로 충전시키는
광만의 순간이며
경쟁의 불길!
언 감탕덩어리를 놓아만든 문대
광포땅의 새로운 축구냐
돌격대식축구장에
구경군은 없어도 열기는 드높다
누구나! 오늘의 문지기는
남자인줄 알고 어깨를 치지 말라
압록강체육단에서 겨우 빼내왔다고
그네를 태우며 내세우는
그는 다름아닌 명주
일할 때도 앞자리 양보 않더니
경기에서도 뒤질수 있으랴!
그래도 그의 얼굴엔
봄웃음 입김타고 부드럽게 퍼진다...

《창호! 받으라!》
심철의 웨침소리!
어찌 판 소대에 질수 있으랴
룽말로 지는 팀은
병실까지 엮고 가야 된다고
창호가 뿔 잡았다

फल문으로 돌입한다
총알같이 날으는 뿔
फल인가?
아닌가?
뿔은 왕청같이 날아났다
부딪쳐 튕겨나며 그 자리에 핑그르르
미끄러져 넘어진 창호

기척이 없다
(요즘 몰라보게 달라져
키도 크고 가슴도 넓어진 그)
에워싸는 청년들
근심의 구름장이 실렸는데
순간 활 일어나는 창호
대원들을 헤치며 달려나간다
빈 팔문에 팔 먹인다
명주 높이 뛰며 박수친다
어안 병병 눈들이 마주치더니
그제야 와하하 웃음터치며
《괜찮아!》
툑툑 어깨 치더니
창호를 띄워안고 목마 태운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의 웃음이어!
울려라 더 크게크게
퍼져라 더 멀리멀리
식을줄 모르는 열정!
그것은 청춘이었다
생의 노래였다
우리의 돌격대원들은
이런 열정을 안고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
그리고는 다시 감탕판으로 나갔다
제방을 쌓았다
아! 식을줄 모르는 열정이어!
대나무처럼 청신하고
맑은 시내물처럼 꾸준한
쇠물처럼 티없고
하늘처럼 높고 푸른
전진의 불길이어!

말하라! 광포호수야!
손님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몰려선적 있었던가를!
주인을 손님으로 잘못본
너의 투정질은 심하기도 하였지
한여름 비줄기 퍼부을 때면
부글부글 끓는 너의 모습은
밟기도 하였고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사람의 의지에도 한계가 있는 법
너의 물결에 채워
떡심을 놓은적은 그 몇번
미친듯 뿔어대는 모래바람에
사나이들도 눈물 흘리기 그 몇번!
사시절 겨울숨옷도 벗을수 없었다
돌에 살가죽이 찢겨들었나니
그 숨옷마저 찢러드는 모기는
또 얼마나 영악스러웠던가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을 더 힘들어한 이들

말하라! 광포호수야
손님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정녕 몰려선적 있었던가를
제방에 갑옷인양
장식을 입히면
몰려있고 내려앉아

끌어내어 다시 쌓길 수백번!
 목고에 맞들이에
 흙을 담아 달리길 수만번!
 언불을 들이치는 모래파위가 무엇이랴!
 우리는 다름아닌 조선청년들
 원썬들과 관가리싸움을 선포한 장군님의 돌격대!
 발목을 물어채는 감탕도 주저없이
 가로막는 물결도 박차 헤치며
 오직 앞으로 앞으로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든
 생활의 힘겨움을 느끼거든
 마음에 고달픔이 깃들거든
 생의 열정, 참된 행복을 찾으려거든
 청춘이 끓는 여기로 오시라
 얼음이 바늘처럼 번쩍이는 물속에서
 짹짹 지려드는 아픔을
 웃음으로 가리우던 심장들이 여기에 있다
 처녀가 보내준 비웃을 두고도

못입은 동지들 생가에
 함께 비맞으며 이를 맞쫓던
 깨끗한 량심이 여기에 있다
 부풀대로 부풀어 신발을 못신은채로
 물뱀가시에 찢려 피흘리면서도
 물러설줄 모르던
 투지의 산아들이 여기에 있다

불굴의 신념이 여기서 굳는다
 고열에 밤을 지새우다가도
 동지들에게 짐이 된다면
 그 생각이 뒹겨일어
 쓰러져도 전투장 떠나지 않던
 창조의 열정이 여기서 탄다
 생의 의지가 여기서 버려진다
 그리운 장군님 맘속에 모시고
 조국의 땅을 넓히는
 전설속 장수들이 여기서 산다!

(다음호에 이음)

조국이 기억하는 장한 딸이여

신형길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흐른들 어이 잊으랴
 전화의 준엄한 그날에 떨친
 그대의 위훈은 빛나
 단발머리 애어린 처녀 간호원
 오늘도 다정히 반겨주누나
 나의 전우 안영애

눈에 삼삼 어려와라
 위생가방 산뜻이 어깨에 메고
 포연서린 전호가를 넘나들던 그대의 모습
 부상병을 지켜 산벼랑밑에서
 지새운 밤은 그 얼마이던가

병동에 줄폭탄 쏟아질 때에는
 중환자 업어나르며
 위급한 순간순간
 몸으로 덮어 구원한
 그대는 불사조!

귀에 쟁쟁
 심장을 울리누나
 환자들을 부축이고 산발을 넘어

찬바람 사나운 직후 천리길에서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목메여 부른 노래
 지금도 들리어올듯

꿈결에도 눈앞에 어려오는
 그리운 장군님
 전사의 의무 다하고저
 간절히 부른 그 노래
 신념의 붉은 기폭처럼 하늘가에 퍼져갔거니

누구나 쉽게 오르지 못하는
 삶의 그 높이에
 내 마음의 키 따라세우거니
 불같이 뜨거운 그 신념 그 의지
 오늘도 그대는 나를 불러 이끄누나

그대 목숨바쳐 빛내인 길
 그대 손저으며 부르는 길
 그 길따라 한생 보폭을 맞추며
 장군님 이끄시는 선군의 길우에
 그대와 함께 있으리
 조국이 기억하는 장한 딸 나의 전우여!

시조

웃으며 가는 길에 행복이 온다

-희천경질유리그릇공장에서-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왔는가

류동호

하얗고 가벼운 경질유리그릇 하나
소중히 두손에 받쳐드니
이 마음엔 뜨겁구나
무거웁구나

나에겐 왜서인지
그 빛갈의 유정함과 정가로움
흰눈만 갈아라
전선길에서 장군님 야전복에 내리던
그 흰눈만 갈아라

사람들은 꽃을 보며 웃는다지만
꽃보다 더 고운 그릇앞에서
이 가슴 눈물에 젖어드느냐
수령님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장군님의 절절한 그 말씀 울려와...

어이 알았으랴
희천땅에 멧쟁이로 솟아오른
경질유리그릇공장을 돌아보시던 그날
먼 세월의 못잇을 사연
우리 장군님 심중에 새기고계시는줄

추억조차 가슴아픈 그 사연
신문지우에 번번치 못한 사발을 놓고
밥을 먹는 인민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이런것을 위해 혁명을 했는가

그리도 안색을 흐리시던 수령님
긴긴세월 풍찬로숙의 길에서
그날의 그 말씀 가슴에 안고
그 어느 하루도 잊지 못하신 그 마음
오늘의 기쁨우에 실으신
우리 장군님

인민에게 주고 주시는 행복의 선물로
흐르고 흐르는 꽃그릇의 물결이어
그 하나하나에
그 추억 그 마음이 담겨져
이리도 뜨겁구나
이리도 무거웁구나

수령님 유훈을 마음에 얹으시고
시련도 슬픔도 다 이겨온
장군님 선군혁명실록의 그 하루하루
그 헌신의 날과 날들이
인민이 누릴 행복의 천만년으로 흐르고
내 조국의 무궁한 세월로 이어지거니

우리 평범한 생활속에서
날마다 밥상에 마주앉을 때마다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마음앞에
생각해보자 사람들이여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왔는가

웃으며 온 길 웃으며 가자

주광일

내 마음은 금시
봄날의 화원에 들어선것 같구나
끝없이 꽃그릇들이 줄지어나오니
하얀 백합이 피고 또 피어나는
신비로운 꽃밭에 서있는듯싶구나

컴퓨터화면앞에 서있는 운전공도
흰 위생복의 검사공처녀도
여기선 마치도 꽃을 즐기는
선남선녀같구나

너무도 희한한 저 모습들이여
우리 《고난의 행군》 길을 웃으며 왔기에
그 나날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시련은 시련으로 벗어선것이 아니구나
인민의 기쁨 행복으로 꽃피
오늘에서 래일로 흐르고있구나

기쁜날엔 추억도 많은것인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저 구내길에서 이 구호를 읽으시며
여기가 웃음의 고향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웃으며 간다고
호탕히 웃으시던 장군님

구내길의 단벚도
더욱 빨강게 무르익었던 그날
그 고난의 날 우리 웃음속에 바라본 행복을
장군님 꿈같이 펼쳐주셨구나

아름다와라
시련속에서 웃을줄 안 사람만이
존엄높고 긍지높은 최후의 승리자로
행복앞에 밝고 떳떳하게 웃을수 있나니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지지 않는
아, 행복의 봄꽃들이 여기에 만발한다
승리자의 웃음이 여기에 밝고밝다
조국이며 세상이 들썩하게
웃으며 온 길 웃으며 가자

초소에서 편지가 왔네

한광춘

이른 아침 맨드라미 붉게 타는 구내길에
까치가 울더니
편지가 왔네
병사들의 편지가 공장에 날아왔네

글줄마다 울려오는 병사들의 목소리
부업농사로 기름진 식탁
대번에 환해졌다고
고향집 어머니도 이런 그릇에
자식의 밥상 차려주지 못했다고

훈련에서 돌아온 저녁
하얀 꽃그릇에 콩비지 듬뿍 담아먹으니
그 맛이 정말 별맛이었다네
너도나도 콧배기 청에
신입병사취사원 땀줄이나 흘렸다네

북청내기배식당번
꽃구름 피는 쟁반을 들고 나른다고
그 모습 찍으면 멋진 사진되겠다고
무뚝뚝한 사관장도 싱글벙글
전사들은 온밤 꿈속에서 웃었다네

철령을 넘어 날아온 편지
그 구절구절은 끝났어도
이 가슴은 끝없이 젖어드네
병사들에게 새 그릇 선참 보내주자 하시던
그날의 장군님말씀 뜨거워

우리 장군님 공장에 오신 그날
그이의 마음 제일먼저 찾으신 곳은
전선 저 멀리 병사들의 식당이 아니었던가
정갈한 갖가지 그릇에
병사들의 기쁨부터 담아보지 않으셨던가

아, 우리 장군님
꽃그릇 흐르는 자동흐름선
병사들에게 곧바로 이어주시었나니
드리고싶네 병사들의 이 편지
그러면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랴

초소에서 편지가 왔네
행복한 병사들의 모습이 왔네
사랑의 자욱어린 구내길에
래일도 까치는
첫 새벽에 날아와 정답게 울어예리라

우리 집 부엌이 밝아졌어요

도명희

우리 집 부엌이 밝아졌어요
곱고 고운 꽃그릇들
차곡차곡 찬장가득 쟁겨넣으니
마음조차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좋아라 손뼉을 치고
남편도 들어서며 웃음이 벅글
새 집에 들어선듯
온 집안이 기쁨에 환해졌어요

이 막내딸을 시집보낼 때
다심한 친절어머니도
나에게 주지 못한 사랑이예요
정말이지 살뜰한 정 담고담아
잔치상도 차리고싶어요

한생 부엌과 인연을 맺고 사는

우리 녀인들 아니고서야
이리도 애뜻한 정을 다 알겠나요
《고난의 행군》때 풀죽을 끓이며
남몰래 부엌에서 눈물도 흘린 녀인들
아침저녁 이렇게 즐거우라고
장군님 주시는 사랑이예요

찬장은 환하게 마주 웃건만
눈굽은 찢릿이 젖어들어요
장군님 눈보라길에 꽃피운 행복이
우리 집 부엌에도 와닿았어요

그 사랑에 환한 부엌이예요
그 은정에 밝아진 생활이예요
우리 마음 정히 고여
아버이장군님께 잔치상 차려드리고싶은
그 진정이 넘치는 우리 집이예요

꽃을 피우는 처녀

박정애

구름인양 흘러내리는 옥빛 그릇마다
춤추듯 돌고 돌며 꽃을 찍는 기대앞에
밝은 웃음 짓고 서있는 처녀야
나는 네가 볼수록 사랑스럽다

유정한 목란이 천첩 만첩인듯
송이송이 피어나는
저 꽃이 네 마음이더냐
네 마음이 저 꽃이더냐
네가 하는 그 말이 참말로 곱다

-천만가지 꽃을 피워
집집에 보내고싶어요-

그 마음의 향기에
이 가슴 젖어든다
정을 담아 사랑담아
백만송이 천만송이
그 마음 집집에 흘러
웃음도 백만송이 천만송이

사계절 고운 꽃 피우는 처녀야
눈속에서 피웠대도 이렇게 진귀하랴
우리 장군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전선길에서 피우신 은정의 꽃
천년세월 피고 필 만복의 꽃

처녀야 피우고 또 피우라
네 꽃으로 천만가정을 가득 채우라
네 리상의 하늘은 창창히 푸르게 열려있고
그 하늘에 해빛은 언제나 찬란하다

아 우리 장군님 가꾸어주시는
선군시대 화창한 봄날속에
너는 삶을 즐기며 생활을 누리는
조국의 봄처녀 꽃처녀
네 마음의 그 향기가 행복의 향기란다

2005. 11. 16

룡 산 이 여!

박세일

서울 룡산땅
수십만평의 부지에 틀고 앉은
미8군사령부를
미제는 《룡산왕국》이라고 부른다

일본 요꼬다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를
《요꼬다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유독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만은
그 이름 《왕국》이란

살펴보면 《왕국》은 왕국이다
주 《한》 미군사령관에
《한》 미련함군사령관
주 《한》 유엔군사령관

이렇듯 요란한 3개의 병거지를
노랑머리에 왕관처럼 얹은
침략군의 거주지가
그래 《왕국》이 아니고 소국이라

파시 《왕국》은 왕국이다
넘겨다보지 못하게
넘어오지 못하게
키높이 빙 둘러친
철조망담벽도 안심잖아
《미군용시설, 무단출입금지》
엄숙한 경고문들 다닥다닥 붙었으니
신성불가침의 《왕국》이다

땅값만 해도
엄청난 천문학적수자라
금전으로 따져봐도 《왕국》이요
서울지도에
주택표식도
상점표식도 없는
공백의 구역
특수에 또 특수 《왕국》이다

도로의 이름
8군로, 베이츠로, 유엔로, 제스가...
미국식이름으로 불리우는 땅
게다가 그 입구엔
침략자의 동상까지 우뚝 솟아
서울시내를 한눈에 굽어보니
틀림없이 하와이주에 이은

미국의 51번째 주
남조선의 《룡산왕국》이다

진짜 《왕국》이다
상점을 털고 은행을 털고
그 주인을 목 졸라죽이고
미선이 효순이를 장갑차로 뭉개놓고
임신부를 겁탈하고 배를 갈라죽이는
살인자육성의 《왕국》이다

광주를 피바다에 잠그게 하고
우리 겨레 핵참화에 몰아넣으려는
피의 왕국이다
전쟁의 왕국이다

정말이지 룡산!
그 이름이 아깝다
인왕산의 한줄기가 남쪽으로 뻗어오다
서쪽으로 고개를 꺾 돌린것이
마치 룡처럼 생겼다 하여
그 이름도 룡산

허나 긴긴 60년세월...
그 이름 이제는
치욕의 상징
범죄의 상징
악의 상징
죽음의 상징으로 될수 없다

룡산이여!
룡의 땅이여!
언제까지 너 저주로운
《룡산왕국》이 되겠느냐

미군남조선강점
60년이 되는 이해
룡의 기상으로 룡의 용맹으로
남녘의 분노를 터뜨려
지진을 일으키라
겨레의 증오를 터뜨려
화산을 내뿜으라

하여 양키를 내쫓은 땅에
통일 통일이 숨쉬는 땅에
룡산이여 너
자주의 새 주소로 새롭게 태어나라!

소경제국

류춘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있구나
《야스구니진자》를 찾아
《야마도》족의 후예들이

검은 나비넥타이를
올가미처럼 목에 걸고
섬나라의 대신들
눈감고도 찾아갈 길이건만
두터운 도수안경을 번갈아 닦으며
점잔스레 가고있구나

줄지어 가고있구나
아이들의 신성한 교단에
외국된 역사를 목이 쉬도록 력설한
《저명》한 학자들도

서둘러 가고있구나
《히노마루》를 빼앗이 날리며
유엔상임리사국 가입의 《산업》에
밤낮으로 불을 댕
패전국의 《신사》화부들!

독도
조어도
꾸릴컬도...
온 세상이 다 제땅으로 보이는게다
대신들이
학자들이

유모아

예술지도국장의 의견

예술지도국장이 어느 한 예술단에 내려갔다.
그는 기악합주련습을 보고 지휘자와 마주앉았다.
지휘자는 국장에게 의견을 줄것을 요구하였다.
국장은 겸손하게 아는것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이
렇게 말하였다.

《모두 련습을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특히 대교
수와 바이올린수가 시간을 다투어가며 아주 열정
적으로 연주합니다. 그런데 좀 게으른 사람들도
있군요. 징을 치는 사람은 이따금씩 한번 치고는
그냥 놓고있는데 좀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손자들까지 이끌고 가는
일본은 소경의 나라!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던 조상들이
백두의 전법에 걸려들어
제편도 가려 못보고 맞불질하다
저승으로 가면서 물려준
고유한 유전병
일본은 소경제국!
력사의 흐름도 못보는
일본은 청맹파니나라!

지구가 소란스럽게
《야스구니진자》로 줄달음치는
21세기 사무라이들에게
내 엄숙히 경고하나니

곧바로 가라
한치 앞이 천길벼랑인줄 모르고
말릴수록 기승을 부리며
《기미가요》를 부르짖는 악의 제국이어!
부지런히 가라!

도조의 망령들이 손저어 부르는
《대일본》의 영원한 안식처 《야스구니진자》로
지옥의 나락으로
오늘도 가고
래일도 가고
영원히 가라!

성구, 속담

겸손성

- 굴에서 잘되고 못된것은 내게 달렸고 시비하
고 칭찬하는것은 남에게 있다.
- 버짚에도 속이 있다.
- 병에 찬 물은 저어도 소리가 안난다.
- 절하고 뺨맞는 일 없다.
-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 먹어라.
- 아는체하지 말고 모르는체하지 말라.
-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을 두고-

리용일

돌이켜보면 우리 소설문학은 조국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애국의 길에 한몸바치는 주인공들을 형상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왔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당겨오는 반가운 일이 려이어 펼쳐져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와 현실은 통일애국투사 주인공의 성격을 보다 새로운 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형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화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중요한 주제적소재로 내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오늘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 작가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비전향장기수, 통일애국투사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이 려이어 쏟아져나오고있다. 최근 몇해여간엔 거의 60편의 장편소설이 창작발표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수십여년씩 감옥생활을 하면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싸운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우리 주체의 소설문학의 면모와 풍격을 이채롭게 하고있다.

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은 선군혁명총진군길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전형적성격들인것으로 하여 커다란 형상적의의가 있으며 소설문학발전에 옹당한 기여를 하고있다.

물론 작가들의 창작기량이 각이한것만큼 소설들의 형상수준이 꼭 같지는 않다.

이 주체의 일부 장편소설들은 형상을 도식화, 류형화하여 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이 어긋비슷하며 묘사수준이 낮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실망의 그늘을 던져주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혁명절개를 지켜싸운 주인공들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소설들에서는 수십년의 감옥생활을 이겨내는 주인공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서 그치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들이 모진 악형을 이겨내는 불사신의 힘을 지니게 되였는가? 과연 그들이 간직한 불굴의 신념은 어떤것인가?

소설들에서는 여기에 대답을 줄수 있는 생활에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 파고들었다.

소설의 주인공들이 철창가에 비끼 쪼각달을 두고 그려본것은 고향의 푸른 하늘이였고 통일조국

의 아침이었다. 엄동설한에 하얗게 성애가 불리우는 감방안에서 더운 피로 심장을 끓인것은 조국분열이 가져온 슬픔에 몸부림치는 부모처자들과 겨레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전향강요의 살인적인 고문을 당할 때에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것은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 고무격려였다.

고향과 조국,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들의 신념과 의지를 강철같이 굳세게 버리어주었다.

더없이 소중한 이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난것인가?

소설들에서는 참된 조국애, 민족애를 심어주고 가꿔준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 위대한 품에 대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이 주체의 수십편의 장편소설들에 일관하게 관통되고있는것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주인공들이 세상을 놀래우는 신념의 강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자라난 생활에 대한 형상이다.

장편소설들에서는 이와 같은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나라와 겨레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닌 불굴의 인간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태어날수 있다는 삶의 진리, 생활의 철학을 밝히고있다.

여기에 소설들에 그려진 주인공성격의 깊이가 있으며 형상적매력과 시대적의의가 있다.

사실 소설문학에서 삶의 진리, 생활의 철리는 몇마디의 정치적술어로 선언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는것이다.

의의있고 비판복적이며 특색있는 생활을 형상하는것은 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반적요구이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의 경우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수십년의 감옥생활을 위주로 하여 한돌이 아닌 60여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서로 다른 주인공으로 형상해야 한다는 특수한 조건으로부터 이는 창작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소설가들은 이 주체의 장편소설창작에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여 주인공의 성격에 맞는 독특한 생활을 탐구하여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를 의의있고 감동깊게 밝혀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조국애, 민족애에 관한 내용을 정면에서 형상한 장편소설 《한피줄》, 《촉백나무》, 《나의 추억, 40년》, 《아, 조국!...》, 《조국의 아들》등 여러 작품들을 두고 이야기할수 있다.

특히 장편소설 《아, 조국! ...》(한웅빈작)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형상적해답을 주고있다.

북녘땅 평범한 사무원출신인 려호가 통일운동에 나섰다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체포되어 30여년간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혁명적지조를 지켜 싸운것은 가슴속에 조국애, 민족애가 꺼질줄 모르는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놈들의 강박과 회유에 넘어가 려호에게 전향을 권고하는 남녘의 녀인 우연희에게 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득할수 있다.

《나는 이 땅에서 35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꿈에서 보오. 청진과 평양의 거리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나를, … 그 생활을 떠난 나는 한순간도 없었소. …그게 나요 … 나는 이 땅에서 그 나라였소 … 그 나라는 나였고. …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전향할수 있소?》

그렇다. 조국은 곧 그의 육체와도 같았고 생명의 불꽃으로 되고있다. 공장 하나를 일떠세워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한줄기 내리는 비를 두고 모두가 농사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순간도 잊은적이 없는 려호였다. 《해방전의 시간》이 여전히 흐르고있는 조국의 절반땅인 남녘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아프게 여기며 통일의 새날을 위해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변함없이 신념을 지켜온 주인공이었다.

정녕 불굴의 힘의 원천으로 된 참다운 조국애가 어떻게 그의 가슴속에서 싹트고 자라난것인가?

려호에게 있어서 조국은 해외에서 부평초처럼 떠다니던 자기를 새 조국건설의 일군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통일운동의 일군으로까지 키워준 믿음이었고 사랑이었다. 그 사랑, 그 믿음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품이라는것을 그는 조국땅에 나와서 처음 만난 항일혁명투사출신의 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게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반《민생단》투쟁이야기를 들으면서 절감하게 되었다. 그후 인민경제대학시절을 통해 그것을 생활의 진리로 받아안았던것이다. 하기에 그는 철창가에서 전쟁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일떠서는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을 추억할 때에도 열병광장복구건설장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는것이다. 감옥에서 《푸에블로》호사건,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호격추사건, 7.4북남공동성명소식을 전해듣고 조국의 위력에 대한 긍지로 가슴부풀 때에도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크나큰 걱정속에 우러르는것이다.

그의 가슴속에 싹트고 자라난 조국애, 민족애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소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숭고한 조국애가 려호에게 얼마나 억센 신념과 지지를 낳았는지를 이채를 띠는 생활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려호의 혁명적지조를 지키는 투쟁을 단순히 전향장요를 거부하는것으로 형상하는

데서 그치려고 하지 않았다.

사랑의 뒤면에는 증오라는 감정이 있다. 증오한다는것은 곧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증오로 불탈수 있는것이다. 민족분열의 화근인 원수 미제에 대한 증오를 안고 주인공이 반미투쟁을 벌리는 내용을 기본으로 펼쳐보인데 이 장편소설의 생활형상의 특징이 있다.

조국통일운동,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의식형성을 위한 투쟁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모두가 거족적인 반미항전에 떨쳐나서게 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장편소설에서는 시대와 현실의 간절한 요구를 자각한 주인공 려호의 기본사상적지향을 반미투쟁으로 설정하고 형상하였다.

그가 통일운동에 나선 60년대초부터 30여년 감옥생활을 거쳐 출소이후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신념을 지켜온 생활은 전쟁시기 남녘땅에서 저지른 미제의 야만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있다.

주인공 려호와 작중인물들의 관계도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형상되고있다.

장편소설 《아, 조국!…》에 펼쳐진 생활내용은 특색있는 형상세계를 통하여 더욱 이채를 띠고있다.

재치있고 맵시있는 구성, 간결하고 정서적이며 감칠맛이 나게 언어구사를 한 단편소설들로 독자들과 친숙한 작가는 이 소설의 생활형상에서도 자기의 얼굴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서장과 종장, 8개의 장으로 된 이 소설의 매개 장들은 단편소설같이 정교하고 완결미가 느껴지도록 생활을 펼쳐보이고있다. 감성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속도감이 있는 문제, 각종 비유법들을 자유분방하게 활용하여 생활을 분석하고 전개하였다. 《금오산바람》으로 불리우는 주인공이 날파람있고 결패있는 성격이 살아나도록 생활세부들을 선택하여 묘사한것도 스쳐지날수 없는 우점이다.

소설의 이러한 형상적특징들은 주인공 려호가 전쟁시기 원수들이 감행한 《량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가는 과정, 반미투쟁으로 일관된 새로운 생활을 특색있게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되었다.

장편소설 《아, 조국! …》은 주인공 려호의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인상깊게 그려냈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이 태어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특색있는 생활로 밝혀내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들에서는 인생관문제, 참된 삶에 관한 내용이 비진 생활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를 밝히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이 있으며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것으로 여기며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보람과 긍지를 찾는 인생관이야말로 조국통일을 당겨오는데 이바지되는 참된 인생관 통일애국투사들의 인생관이다. 값높은 삶에 대한 지

향과 요구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잇닿아있다.

조국통일은 민족성원들이 애국애족의 참된 인생관을 지니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의 세계를 밝히는 데서 장편소설 《인생향로》(김대성작), 《인간의 한생》(김명익작), 《돌아오다》(리동주작) 등 적지 않은 작품들이 인생관문제가 비친 생활을 형상한 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그 가운데서 장편소설 《돌아오다》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생활의 참된 진리를 밝힌 이 소설의 특색있는 생활형상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주인공 성규와 결혼의 첫날밤을 보내고 헤어졌다가 수십년만에 감옥에서 상봉하며 그것이 영원한 작별로 이어지는 안해 보숙이와의 관계, 벗으로부터 원썬로, 다시 벗으로 동지로 되는 옛 경찰관이었던 리수성과의 관계, 남처럼 되었다가 다시 부자간의 관계로 가까워지는 아버지와의 관계 등 극적인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예상을 뒤엎는 사건조직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장편소설 《돌아오다》의 형상적특징들은 주인공 성규의 값높은 삶에 대한 요구와 지향으로 특징지어지는 생활을 특색있게 보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소설에서 주인공 성규의 가슴속에는 감옥생활의 가장 엄혹한 순간에도, 추억에 잠길 때에도 《아, 죽지 않고 살아서 위대한 장군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간절한 소원과 희망이 간직되어있는것으로 형상하였다.

그의 이 열렬한 지향을 담아 소설의 제명도 《돌아오다》라고 달은것이 아니겠는가. ...

2심공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극적인 생활국면에서 영영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볼수 없다는 애달픔, 통일조국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된 한스러움에 가슴치고 눈물을 쏟는 성규의 삶에 대한 욕망,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생명에 대한 애착에 있는것인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은 곧 투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애국사상을 빛나게 받들어 싸우려는 지향이었다. 하기에 그는 옥중에서도 법정에서도 최후를 앞둔 순간까지도 한사람이라든가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힘쓰는것이다.

경찰관이었던 리수성, 빨찌산대오의 락오자였던 리재현은 물론 강도죄를 범했던 정태목이들의 극적인 생활전환과정, 성장과정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옥중에서도 조국해방전쟁시기와 남조선빨찌산시절의 지하당사업을 중단없이 즐기치게 벌려온 성규의 값높은 삶과 투쟁을 고려하게 된다.

이밖에도 아무런 신념이 없이 목숨을 부지해오다가 체제의 손에 개죽음을 당하는 밀고자 립주상, 오랜 밀정 허영수의 더러운 한생, 반공리념을 가지고 70나이를 살았지만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저체상으로 가고마는 중앙정보부 박병배 등의

가련한 운명은 극적인 생활의 대조로 성규의 통일애국투쟁으로 빛나는 삶, 인생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를 뚜렷이 반증해주고있다.

값높은 인생관이 어떻게 성규의 가슴속에 자리잡은것인가?

소설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애국의 열정에 끓고 지성이 있는 성규의 성격에 맞는 생활형상으로 주고있다. 해방전 좌익운동에 나섰다가 왜놈들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갇히었을 때 만난 박달동지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을 알게 된 성규였다. 그가 진정한 삶의 좌표를 정하게 된것은 해방후 아버지수령님을 뵈다가 모시고 일하면서 그이의 사상을 알게 된 때부터였다.

해방된 조국땅이 세워야 할 새 정권에 대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기성관념과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 주체적인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면서 애국애족에 불타는 그이의 사상의 정당성, 진리성, 독창성을 심장으로 깨달은 성규였다.

중앙당학교에 나오시여 몸소 강의를 하시면서 만년필을 자기에게 안겨주시며 공부를 잘하라고 하시던 그이의 고매한 인간적품도에 매혹된 성규였다.

그 과정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통일애국사상을 받들어가는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한 참된 길이며 그 길에 바쳐진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값있는것임을 알게 된 성규였다.

이처럼 장편소설 《돌아오다》에서는 삶에 대한 높은 요구와 지향, 참된 인생관을 지니고 수십년간 통일애국의 길을 즐기치게 걸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비전향장기수 성규의 극적인 생활에 대한 특색있는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참된 애국의 인생관을 지닌 신념의 강자들이 태어난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히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장편소설들가운데 조국애, 민족애에 관한 생활을 기본으로 형상한 작품들과 함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굽이치는 생활을 기본으로 형상하여 사랑의 철학세계를 밝힌 작품들도 있다.

통일애국투사들은 누구나 숭고한 도덕의리, 깨끗한 량심의 체현자이다. 그들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의 강자들이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며 통일운동의 길에서 자기가 해놓은 일을 두고 스스로 자책하고 채찍질하며 분발하는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자기를 영광의 길위에 내세워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의리를 지니고있다.

장편소설 《참대는 불에 타도》(정성훈작), 《폭풍이 큰돛을 펼친다》(홍석중작), 《의리》(김덕철작), 《삼태성》(김영근작) 등 많은 작품들이 주인공의 애국에 불타는 숭고한 도덕의리가 비친 생활을 특색있게 형상하여 사랑과 신념의 철학세계를 밝히고있다.

특히 장편소설 《폭풍이 큰돛을 펼친다》에 형

상된 주인공의 생활이 이채롭다.

이 소설에서 전쟁시기 인민군대정찰병출신의 비전향장기수 주인공 박승제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것은 숭고한 도덕의리, 깨끗한 양심에 대한 지향이다. 그것을 소설에서는 출소되었던 동지들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고있는데 자기만이 남아있는데 대하여 동지들에게 미안해하고 피로와하면서 스스로 자기나약성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투쟁을 모색하는것을 통해서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더우기 마흔이 되어서야 이루게 된 가정, 안해와 자식에게 바치는 그의 애정세계를 통하여 깨끗한 룰리도덕관을 지닌 인간적면모를 보여주는데서 그치려고 하지 않았다.

소설에서는 《국가원수암살미수사건》이라는것을 꾸며내기 위하여 승제에게 로동당지도부로부터 《직접지령》을 받았다고 허위사백을 하라는 놈들과 맞서싸우는 사실들을 기본으로 승제의 생활을 펼쳐보이고있다. 그에게 있어서 놈들의 모략과 음모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단순히 《의》와 《불의》의 투쟁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 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었다. 놈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한눈을 잃고 불구로 되었으나 승제의 혁명절개는 결코 꺾을수 없었다.

사실 이 소설의 독특한 생활형상에 대하여 말할 때 명백하고 단순한듯싶은 생활과 사건전개, 몇 안되는 인물로, 그것도 주인공의에는 거의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리동지, 조동무, 목사, 5국장》 인물들과의 관계로 하여 얼핏 보면 중편분량에 지나지 않는 감을 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권위와 위신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심각한 내용이 담긴 사건과 생활이 전개되고있으며 특히 평범해보이는 작은 생활과 사건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본질적의의를 모가 나게 둔구어내는 묘사정신으로 하여 작품은 다시 읽어도 새맛을 주며 멋없이 부피가 커야만 장편소설이 되는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새겨보게 한다.

소설에서는 승제의 가슴속에 간직된 불굴의 신념, 그것은 어떤 엄혹한 정황이나 절해도에서든 어버이수령님을 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으로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깨끗한 양심이며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 작품에서 생활형상의 이채로움은 《폭풍》을 맞받아 펼치는 통일애국투사의 《큰뜻》, 주인공의 가슴속에 굳센 신념, 숭고한 도덕의리를 안겨준 위대한 사랑의 품을 보여주는 생활을 특색있게 형상한데도 있다.

소설에서는 공화국의 이름난 시인인 주인공의 아버지가 받아안은 사랑의 이야기, 주인공의 김일성종합대학시절의 이야기도 신념의 계기로 형상될수 있는 생활이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해방직후 농촌에 나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의 밭그릇을 열어보시며 가슴아파하신 사실, 문맹퇴치를 한 로인과 만나 기뻐하신 《작은》 사실들에 력점을 찍어 주인공의 분석적인 심리묘사를 안반침함으로써 그것을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감동깊고 의의있게 둔구어내는 《큰》 사실로 만들었다.

작가의 이 높은 묘사정신은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일념으로 맥박치는 주인공의 이채로운 생활을 보다 특색있게 형상할수 있게 하여 사랑과 신념의 진리를 인상깊게 밝혀내는데 이바지되었다.

장편소설 《봄날은 온다》(김종석작)도 옥중에서 주인공 최진국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이 4월 15일을 기념하는 씨콜모임을 조직하며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했을 때 추도모임을 진행하는 이 세상 감옥력사에 없는 생활을 형상하여 수령님, 수령결사옹위의 일념에 불타는 신념의 세계를 룰리도덕의 측면에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최진국이뿐아니라 남녘의 시인 방석훈, 교도관이였던 백수길의 의식발전과정도 주인공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은 감동적인 사실과 련관시켜 그림으로써 애국의 참된 룰리는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라는것을 형상으로 확증하고있다.

특히 장편소설 《봄날은 온다》나 《폭풍이 큰 뜻을 펼친다》에서는 63명의 비전향장기수 귀환이라는 세계적사변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투사들이 간직한 애국의 룰리를 안겨주신 숭고한 도덕의리, 룰리의 최고체현자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주장하고있다.

×

이상과 같이 장편소설 《아, 조국! ...》과 같은 작품들에서는 조국애, 민족애의 세계가 비친 생활, 장편소설 《돌아오다》에서는 참된 인생관이 굽이치는 생활, 장편소설 《폭풍이 큰 뜻을 펼친다》와 같은 소설들에서는 숭고한 도덕의리를 신념으로 간직한 주인공들의 생활을 서로 구별되는 내용으로 특색있는 형상세계를 담구하여 펼쳐보임으로써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만 세상을 놀태우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태어날수 있다는 삶의 진리, 생활의 철리를 밝히고있다.

이것은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그리려는 소설가들의 높은 창작정신, 지향의 발현이며 창작기량의 귀중한 열매이다.

시대의 요구에 화답해나선 이 장편소설들의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장편소설은 선군시대소설문학으로서의 풍격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 훌륭히 갖추어나갈것이다.

버들꽃



김정희

어슬넙이다. 아직은 이른 봄이라 낮에는 제법 아지랑이 아물거리며 봄소식을 전하던 산천에 지금은 쌀쌀한 땡기만이 떠돈다.

동창읍중학교 교원 한수련은 연회색봄외투깃속에 목을 깊숙이 묻고 갈림길에 선채 잠시 망설였다.

(어디부터 갈가?)

그는 지금 일부러 시간을 내어 조카애의 돌생일에 오는 길이다. 집으로 먼저 가야 할지, 아니면 부탁받은 일때문에 이곳 중학교부터 들려야 할지, 생각던 끝에 그닥 시간이 걸릴것 없는 학교부터 들리기로 하였다.

서둘러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수련은 갑자기 속이 철렁함을 느꼈다.

(가만, 내가 그 편지를 어떻게 했더라?)

수련은 가방을 황황히 뒤져보았다. 길을 떠날때면 잊지 않고 넣곤 하는 부피두터운 소설책을 꺼내들고 마구 번져보았다. 마지막장을 넘기는 순간 종이 한장이 찰쭈듯 날아 떨어진다. 혹시나 하여 집어들던 그는 다시한번 놀랐다.

(어마나, 전날 남철이가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봐달라고 하던것이 ...)

그날 떠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수련은 담임한 학급학생인 남철이가 찾아왔을 때 대충 문제를 훑어보고는 《선생님이 찾으시면 오세요. 그때 함께 볼까요.》하고 돌려보냈었다. 그리고는 손가끼이에 있는 소설책함에 끼워넣고는 감감히 고있었던것이다.

수련은 그 종이장을 다시 접어 책함에 끼우고 좁전에 찾던 편지를 다시 찾아보았다. 아무데도 없었다. 잠시 눈을 감고 서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아침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는 처녀교원이 찾아왔다. 포석리에 가는 길에 학교에 들려 대학동창생에게 편지를 주고 대신 참고서적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한 편지였다. 실것이를 한창 하고있던 수련은 그 편지봉투를 받아 찬장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생각없이 떠나온것이다.

예상치 않았던 시름이 생겨 잠시 가슴이 무거워진 수련은 그것을 애써 털어버렸다.

(이젠 하는수 없구나. 지향이나 데리러 가자.)
탁아소로 향한 수련이의 마음은 저도 몰래 가버워졌다. 한시바빠 보동보동한 어린것의 부드러운 불을 다독여주고싶은 충동에 걸음보다 마음이 앞선다.

(우리 지향이 그새 얼마나 컸을가? 고 귀여운것이 이젠 제법 재롱도 부리고 낮가림도 하겠지. 참 제 고모도 몰라보면 어쩐다? 옹지, 놀이감! ...)

수련은 큼직한 려행가방속의 생일기념품을 생각했다. 동그란 두눈이 새까맣고 복스럽게 생긴 하얀 애기곰, 토실토실한 몸통이를 조금만 눌러도 《뽁, 뽁》여무진 울음소리를 내는 이 놀이감이야말로 지향이의 마음을 사기엔 그저 그만일것이다. 어디 그뿐만이라.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 갖가지 당과류며 신선한 과일들, 곱고고운 매미옷이며 꽃양말과 해가림모자, 새빨간 방울이 달린 파아란 머리고무줄...

(오빠가 살아서 곱게 차리고 돌사진을 찍는 우리 지향일 본다면 얼마나...)

불쑥 떠오른 생각에 저도 몰래 코허리가 알싸해지며 앞이 흐려졌다. 눈앞엔 온통 오빠의 얼굴뿐이다. 서글서글한 눈매, 날이 선 코등, 고집스레 다물린 선명한 입...

《오빠! 용서해요. 늘 바쁘게 사는 형님대신 저라도 오빠곁에 있어야 하는건데... 결국은 제가 동생구실을 잘못했나봐요.》

수련은 마치 오빠가 앞에 서있기라도 하듯 조용히 입속말로 중얼거리고나서 길게 숨을 내그었다. ...

수련이와 그의 형님이 된 옥순이는 비록 산골일망정 아름답고 유정한 고향마을에서 꿈많은 소녀시절을 마감지은 동창생들이었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물론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그들은 뽕배야 뽕수 없는 련결차처럼 늘쌍 붙어다니었다. 그 련결차의 운전사는 옥순이였고 싫든좋든 그 어데나 군말없이 따라다니는 적재함은 수련이었다.

둘의 성격은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담차고 거

세고 대쪽같은 성미의 옥순이는 항상 새것을 좋아하고 사내들처럼 통이 크게 놀았다면 반대로 수련이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미에 자기앞에 맡겨진 일이나 착실히 해서 칭찬을 받는것으로 만족해하는 부류의 소녀였다.

서로 성격은 달라도 언제나 다정하게 보조를 맞추는 프락프리의 앞바퀴와 뒤바퀴처럼 늘 한마음 한뜻이었다.

그러던 둘사이에 뜻하지 않은 충돌이 생기었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대학을 지망하는 문제때문이었다.

옥순이는 뭐니뭐니해도 식량문제를 푸는것이 선차이니 농업대학으로 함께 가자고 했고 수련은 농사짓는 사람도 다 교원한테서 배운 사람이니 교원의 보람이 더 크다며 사범대학으로 함께 가자고 하였다.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바람에 한동안이나 옥신각신했다. 그러다가 역시 명철한 판결을 내린건 옥순이었다.

《종다, 둘이 대학에도 꼭 같이 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우리 서로 자기가 택한 길로 가자. 후회없이 말이다. 누가 더 보람있는 길을 걸었는가는 음- 인생말년에 총화한다. 어때?》

그후 그들은 대학을 마치고 고향의 벌과 교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언제인가 한 약속을 지켜 경쟁적으로 일했다. 곡식을 가꾸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런 그들이였기에 꿈많은 처녀 시절도 저물어가던 어느해에는 농장으로 진출한 제대군인들과 가정도 이루었다. 수련이는 땅크병출신의 우람한 청년에게 그리고 옥순이는 몸집은 비록 체소해도 말이 적고 고집이 센 수련이의 오빠한테.

그들이 서로 한가정의 부부로 된데는 수련이가 《방자와 향단이》노릇을 그럴듯 하게 한데도 있다고 말할수 있다.

손우에나 아래에 오빠가 있는 녀자들이 항용 그러하듯이 수련이도 예쁘게 생긴 처녀나 일잘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보면 오빠생각부터 하곤 하였다. 이 처녀, 저 처녀 점찍어보던 어느날 오빠가 왔다. 제대되어 남들처럼 대학이나 도시가 아니라 농장으로 돌아온 오빠! 복무의 나날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모른다며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벌로 나가는 오빠를 보고는 과연 어떤 처녀가 한생의 길동무로 될수 있는가가 석연해졌다. 종다리는 종다리와 쌍을 짓는 법이다. 벌을 못잊어 찾아온 오빠에겐 벌을 떠나 못사는 그런 처녀가 어울린다.

순간 두눈을 번쩍 뜨게 하는 처녀가 떠올랐다. 그리 크지 않은 날씬한 몸매에 남달리 반짝이는 고운 두눈을 가진 아름다운 처녀, 군소재지에서 제일 뒤떨어진 고향땅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마을로 꾸린다며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 불덩이같은 청년분조장 옥순이야말로 둘도 없는 천상배필이다.

소불은 단김에 뽀는다는 말이 생각나 수련은 오빠를 찾아 벌로 나갔다. 갓 모살이가 끝난 파아란 벼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병사를 반기듯 설레이고 개구리합창단도 《개팔개팔》열심히

환영곡을 부르는 곳에 오빠가 서있었다.

《오빠, 생각나요? 내 동무 옥순이를 올리던 일 말이예요.》

《무슨 일로? ...》

《우리가 숙제공부할 때 글짓기학습장을 훑쳐보고 ...》

《음, 그 <버들꽃을 사랑합니다> 그것말이야?》

《그래요. 이제 그 눈물값을 낼 때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는걸. 허허 ...》

둘은 나란히 앉아 이제는 아득한 먼 일로 되어버린 그 일을 생각했다. ...

언제인가 글짓기숙제로 《꽃》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문장짓기를 한적이 있었다. 그때 옥순이는 이렇게 지었었다.

《내 고향은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첩첩히 둘러싸다 남겨둔 크지 않은 공지에 자리잡은 포석리입니다. 먼 옛날부터 온통 물과 돌투성이뿐인 척박한 땅여서 사람못살 고장이라 그렇게 불려왔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우물가의 버드나무는 이 땅이 좋은지 해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웁니다. 아직은 산과 들, 음달지에는 하얀 눈이 쌓여있는데 새봄을 불러 남먼저 피여웃는 버들꽃은 찬서리와 눈바람을 이겨낸 고향의 꽃이여서 더욱더 아름다운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많아도 내 고향에 피여난 이 버들꽃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때 수철은 제가 마치 그의 담임선생님이라도 된듯 빨간 크레용으로 큼직하게 5점이라고 매겨주었다.

뒤늦게야 이것을 보게 된 옥순이는 필쩍 뛰며 당장 지워놓으라고 야단쳤다. 바빠맞은 그가 다른 종이장에 곱게 써서 붙여주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방울방울 눈물까지 흘리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그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련이가 이쪽저쪽 오가며 다리를 놓아준 덕인가 아니면 그 버들꽃이 연분이 되어서인지 어쨌든 옥순이는 그의 형님으로 되였다.

한날한시에 결혼상을 받고 나란히 선 새집에다 제각기 보금자리를 편 그들은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었다. 수련이네는 행복이 주렁지길 바라며 다 자란 사과나무를 그리고 옥순이네는 이제 금방 자प्툰한 애 어린 버드나무를.

《아이참, 같은 값이면 과일나무를 심을것이지 열매도 없고 가을바람에 잎떨어지면 그만인 버드나무를 심다니...》

호기심속에 오빠네 집을 넘보던 수련이가 너무도 어이없어 어쩔줄 몰라하자 옥순이가 너그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일나무를 심을 계획은 다 되어있어요. 그러나 넘려마세요, 누이.》

이때부터 둘사이엔 자주 충돌이 생기었다.

앞뜰에 심은 사과나무에 그해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지더니 수련이네 집엔 날마다 행복이 꽃피었다. 처녀때부터 조용하고 알뜰한 성미였던 수련은 덜통하면서 인정이있는 세대주와 곧잘 장단을 맞추었고 비둘기같은 오누이를 남보란

듯이 키우며 깨가 쏟아지게 살았다. 하지만 옥순이네는 그렇지 못했다. 늘 봐야 둘다 벌에 나가 살았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밥상을 놓고 마주 앉기가 드물었다. 그러저럭 옥순이가 작업반장을 할 때는 좀 나았다. 관리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서로 티각태각하는 일이 잦아졌다. 보다못해 수련은 조용한 기회에 옥순이와 마주앉았다.

《…너성은 어디까지나 너성다워야 해. 일단 가정을 이룬 다음엔 사회적지위야 어떻게 집안에 들어서면 안해라는 의무에 충실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는거야. 그런데 넌 농장일만 일이라고 늘 나돌아가니 어떻게 화목할수가 있겠니. 그러니 우리 오빠를 탓하지 말어 …》

그럴 때면 옥순이는 활짝 웃으며 선선히 접수 하곤 하였다.

《내 오늘부터 꼭 착실한 안해가 되겠으니 두고 보렴.》

그리고도 저녁이면 또 수련이를 찾는다.

《미안해. 회의가 있어 늦을것 같은데 오빠를 부탁한다.》

수련은 그러는 옥순이가 오히려 좋았고 교원생활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틈이 생기는데로 두 집 살림살이를 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니는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겼다.

그리던 어느날 이사문제가 나왔다. 군경영위원회 부원으로 일하게 된 남편을 따라 읍으로 가게 된것이다. 막상 떠나자니 오빠네 일이 마음에 걸렸고 천천히 가자니 합숙생활을 해야 하는 남편이 문제였다.

《오빠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 절대로 밥을 굶기지 않을테니…》

옥순이가 하도 등을 떠밀어 읍으로 이사해나오긴 했으나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여 새집에 안착되기 바쁘게 달려가 보고는 그만 두눈이 딱 감기여 아무말도 못했다.

풋김치를 담그려고 씻어다놓고도 미처 어쩔새가 없어 그냥 둔것이 있다가 하던 감자찬을 하려고 찹질을 벗기다 내버려둔것도 있었다. 오죽 빠웠으면 그랬으랴 싶어 집안귀를 거두고 저녁까지 다 지어났는데도 오빠도 옥순이도 들어올줄을 모른다. 한걸음, 두걸음 마중나온것이 어느덧 관리위원회 앞마당까지 나왔다.

불빛이 환한 창너비로 열편 옥순이의 목소리가 관리위원회안귀를 쩡쩡 울리고있다.

《…우리 고장에 흔한 물과 돌만 잘 리용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쓸모없이 흘러가는 이 물줄기들을 한데 모으고 바로 여기 직소와 증소, 룡소 세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벽에 걸어놓은 직관물을 지시봉으로 짚어가며 옥순이는 아름다운 래일의 포석리를 그려보인다.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권의봉사시설은 물론 온 마을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여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녀성들을 힘든 부엌일에서 해방…

《그리고 막돌을 금돌처럼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합니다. 크고작은 돌을 모두 모아다가 논과 밭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예까지의 전구간에 억년 드눌지 않을 강둑을 쌓도

록 합니다. 그렇게되면 큰물이 조금만 나도 물에 잠기거나 씻기우던 밭들을 보호할수 있고 마을의 풍치 또한 아름다워질것입니다. …》

깊어가는 밤과 함께 옥순이의 희망도 끝을 모르고마냥 내려친다. 현재 있는 양어장을 세배로 늘일 문제,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갈 문제, 축산, 남새, 온실 지어는 우리 고장의 흔한 석비레와 진흙을 가지고 포장도로를 만들자는 희한한 계획 …

(아이참 욕심두! 그 많은 일을 언제 다 한다구 저렇게 큰소리칠까. 계획이 너무 앞서는건 아닐까?)

수련은 그의 꿈같은 소리가 말로 남을가봐 두려웠다. …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엇그제 봄노래를 부른것 같은데 벌써 새해가 가까와왔다.

수련은 설명절준비에 여느때없이 많은 시간을 바쳤다. 갖가지 음식감들을 만드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고 공업품매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여러개의 보침을 들고 오빠네 집으로 온 가족이 내려갔다. 언제한번 오붓한 생활을 못해온데다가 결혼후 몇해가 지나도록 자식이 없는 오빠네 가정에도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불과 몇달사이에 고향땅은 많이도 달라졌다. 선참 안겨온것이 마을 한복판에 우뚝 솟은 2층짜리 학교였다. 어제날에는 하도 깊은 산골이라 단종교사도 만족했던 이 고장이었다.

《아이들은 우리 고향땅의 래일이예요. 그들이 희망을 높이 세우도록 학교부터 훌륭하게 지어주자요.》

옥순이의 발기에 온 마을이 떨쳐나섰다 한다. 제대군인청장년들을 기둥으로 한 돌격대가 무어졌고 너도나도 지원자로 나서고. 건설장엔 밤낮이 따로 없었고 그만큼 큰집은 빨리도 완공의 날을 보게 되었다 한다. …

(확실히 옥순인 일할줄을 알거든.)

수련은 거의 마감단계에 이른 1호발전소며 제법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제방뚝이머를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쁘고 즐겁던 감정은 오빠네 집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식어지고말았다. 그래도 설날만은 한가정의 주부가 되어 부엌안에 기름냄새를 풍길줄 알았건만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도 차이가 있었다. 잔뜩 벌려 놓은 건설장들에 요구되는 자재들을 구하러 떠났다는 옥순이는 설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온통 검댕이칠을 한 오빠는 실험실처럼 꾸러놓은 옷방에서 시약병들과 씨름하고있었다. 그옆에 똑같은 모양을 한 또 한명의 안경쟁이가 있었다. 이 고장의 토질에 맞는 미생물비료를 연구하는 오빠를 도우려 군에서 내려온 농업기술자였다. 옥순이가 여러번 걸음을 하여 데려왔다는 늘씬한 키에 인상이 밝은 젊은 연구사는 점잖게 자기소개를 하고 인츰 일손을 잡았다.

살림집인지 아니냐 미생물연구소인지 온통 뒤죽박죽이 된 안귀를 둘러보며 수련은 저도몰래 긴숨을 내쉬었다.

(바지를 서로 바꾸어입어야 하는걸...)

하지만 인츰 도리질을 쳤다.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오죽했으면 옥순이가 이날까지 객지에서 고생하랴. 수련은 훌쩍이려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며 구석구석까지 말끔히 치우고야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갑자기 《기상!》하고 나직이 소리치는 통에 깨어나보니 뜻밖에도 옥순이가 머리맡에 앉아 즐겁게 웃고있었다. 반가움으로 하여 어린애들처럼 서로 그러안았을 때 그는 사죄부터 하였다.

《정말 미안하게 뻘어. 빨리 온다던 노릇이 그만 차가 고장나서 이렇게 ...》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창밖이 푸름푸름 밝아왔다. 뭔가 해야 할 일이라도 있는듯 잠시 바재이는 기색이더니 아닐세라 수련이의 귀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인다.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 그러니 시간이 되면 먼저들 식사해. 밥은 다 지어놔어.》

《아니, 밥을 짓다니? 언제 벌써... 그런걸 난 정말 몰랐구나.》

《별소리. 오히려 내가 널 보기가 미안하다. 어쩌다 와서도 제손으로 밥을 차려먹군 하니... 한 끼라도 내손으로 지은 밥을 먹이고싶어 뭘 좀 차렸으니 많이 들어.》

부지런한 수담의 해치는 소리와 함께 뽀드득 뽀드득 눈발은 소리가 총총히 사라졌다.

이부자리를 포개어 이불장안에 넣고 부엌으로 내려선 수련은 저도 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설설 끓고있는 국가마와 흡이 잘 든 밥가마, 갖가지 먹음직스러운 반찬이며 단음식들에 안주인의 구실을 하고싶어하는 옥순이의 그 마음이 비긴듯싶어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먼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길로 뽕뽕 언뽕을 녹일새도 없이 깊이 잠든 식솔들을 깨울세라 가만가만 소리없이 동자질을 했을 그의 모습이 사라질줄을 몰랐다. ...

그렇게 떠나간 옥순이는 한낮이 되도록 돌아올 줄을 모른다.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뺨스정류소로 나가는 수련이네를 바래워주려고 하던 일을 미루어놓고 오빠가 따라나섰다. 옥순이를 못보고 떠나는 수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어서인지 우스개소리까지 꺼내던 그는 뺨스가 떠나자 오래도록 손을 흔들며 바래주었다.

하늘이 미여지게 평평 쏟아져내리는 함박눈, 모자도 목도리도 없이 그 눈을 다 맞으며 빗어놓는 눈사람인양 서있던 오빠가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는 순간 왜서인지 오빠가 착은하게 생각되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안해의 살뜰한 손길이나 자주 가닿지 못해서인지 별스레 꺼칠하고 결긋어보이는 오빠, 가뜩이나 체소한 몸집이 퍼그나 줄아든 듯싶은 오빠가 집앞에 서있는 앙상한 버드나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언제면 오빠네 집에 단란한 생활의 향기가 풍기겠는지 ...)

쓸쓸한 마음으로 차창너머로 흘러가는 눈내리는 고향의 들판을 더듬던 수련이의 눈앞에 어느덧 나즈막한 산말기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수가 그림처럼 보이는 룡소가 비졌다. 먼 옛날 산천경

개가 기막히게 아름답고 물 또한 맑고 정갈한 이소에서 룡이 살았다고 하여 룡소라고 부르는 곳에 지금은 아담한 건물이 일떠섰다. 거의 마감고비에 이른 1호발전소건설장이었다.

(고향사람들이 정말 큰일을 했구나!)

깊은 감동속에 오래도록 바라보던 수련은 갑자기 두눈을 크게 떴다. 룡소뜰우에 솟아올라만 목도리로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정충한 거리자로 제방길을 채어나가는 그리 크지 않은 여인의 모습이 시야에 안겨왔기때문이었다. 그가 옥순임을 알아보았을 때 수련은 저도 몰래 벌떡 일어나 뺨스의 맨 뒤쪽 창가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알아보지 못할줄 뻔히 앞면서도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왜서인지 가슴노리가 뜨거워졌다. 설날아침에도 쉬지 않고 래일의 일을 설계하는 옥순이었다.

(옥순아 잠시나마 널 섭섭하게 생각한 이 못난 일 용서해 ...)

...수련이가 것처럼 바라던 소박한 꿈은 너무도 빨리 현실로 되어 찾아왔다. 이해따라 집앞의 버들개지가 남편저 피어나더니 오빠네 집에 경사가 났다. 귀여운 딸애가 태어난것이다. 행여나 하여 오래전부터 한가지씩 마련해두었던 애기옷이며 꽃포단이며를 싸안고 날개라도 돌친듯 한달음에 달려갔던 수련은 흐뭇한 마음으로 인츰 돌아섰다.

새 생명의 출생은 잊고있었던 모든것을 순간에 되찾아주었다. 언제나 썰렁하던 집안엔 따스한 체취가 깃들었고 안해와 딸애가 밤낮으로 피워놓은 웃음꽃은 오빠의 얼굴에도 느슨한 웃음이 가실줄 모르게 했다. 오손도손 살뜰한 속삭임소리에 곁에서 시샘이 날 정도로 화목한 그들을 보며 수련은 눈물이 났다.

(이젠 뻘어. 늦게 피운 꽃이니 더 소중할걸.)

하지만 수련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창 씨뿌릴 차비를 다그치던 봄우뢰치는 날 오빠가 거름집을 진채로 포전에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불치의 병이 밤낮을 모르고 일하던 그의 육체를 끝내 꺼꾸러뜨렸다는것이다.

비통한 이 소식은 수련이의 여린 가슴을 발기 발기 찢어놓았다. 단란한 생활의 단맛을 한창 즐기 시작한 오빠! 당장 터질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살면서도 아무런 내색없이 두엄더미와 시약병들을 붙들고 씨름하던 오빠가 아닌가. 자기는 멀리 떨어져있어 몰랐다 해도 곁에 있는 옥순이야! 알았을텐데 어쩌면 이 지경이 되도록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말인가. 더구나 오빠가 운명하는 마지막 날까지 서로 어성을 높이다못해 각기 별판으로, 영농자재구입으로 떠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더는 참을수 없어 옥순이를 마구 잡아흔들었다.

《넌 어쩌면 그다지도 모지니, 응? 관리위원장도 인간이겠지. 대답해봐, 어서 ...》

《그래, 난 인간이 ... 인간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럴 이렇게 만들었어. 어쩌다 시간이 좀 생겨 부엌에라도 들어서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눈이라도 좀 붙였다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그것이 너무 고마와 집안팎이라도 좀 거두려면 이 집은 제

대병사가 다 말았으니 격정말고 농장일이나 잘 돌보라고 엄하게 꾸짖던 남편이었어. ... 오늘 아침도 앓고있는 저때문에 먼길을 떠나야 할 내 마음이 나약해질까봐 오늘은 별스레 몸이 거뜨한게 기분이 좋다며 제먼저 거름짐을 지고나서질 않겠니. 그 모습이 너무도 이 가슴을 허비여 그일 붙잡고 애원했어. 제발 이번만은 다른 사람을 내 대신 보내고 함께 병원으로 가보자고 말이야. 그러자 무섭게 성을 내더구나. <당신은 벌써 잊었소? 우리 고향땅을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들겠다던 그 결심을 말이요 그런데 중도에서 어물거리다니... 락원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소. 오직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 군인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만을 안고 뜨거운 피와 땀으로 이 땅을 걸구어갈 때 꽃피는것이란 말이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서있는 나를 보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지향일 안고 마중갈터이니 빨리 와야 한다던 그이가 어찌면... 다문 며칠만이라도 품놓고 앉아 병을 치료해주자고 달려온 이 작은 소망도 풀어주지 않고 영영 간단 말이나...

그제야 수련은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들의 다름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뜨거운 사랑때문이었고 옥순이가 푸른 들을 마음껏 날아에게 하여준 억센 두날개는 바로 다름아닌 오빠였다는것을...

×

이제는 수십년을 자란 왕밤나무들이 마치 병풍처럼 주련이 늘어선 양지바른 언덕아래 덩치큰 탁아소가 등실하니 자리잡고있었다. 그앞에 다달은 수련은 잠시 멈춰섰다. 혹시 지향이의 울음소리라도 들리지 않나 하여 마음을 조이며 귀를 강구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 수련은 바삐 충계를 따라올랐다. 애기방문을 두드렸으나 기척이 없었다. 혹시나 하여 문을 열고 휘둘러보았다. 깨끗이 정돈된 널찍한 방안에 아무도 없었다.

(지향이를 찾아갔구나.)

가볍게 문을 닫고 돌아선 수련이의 가슴엔 서운함보다 따뜻한 정이 그들먹하니 차올랐다. 일밖에 모르는 옥순이여서 제시간에 젖은 먹이든지, 혹시 늦도록 찾아가지 않아 어린것을 울리거나 않는지 짚만 있으면 이런 생각으로 애태우는 수련이었다. 그런데 이제보니 아이건사를 바로하는 듯싶어 한결 마음이 놓였다. 수련은 한시바삐 지향이도 안아주고 옥순이와 밤새워 이야기꽃도 피우리라 작정하며 반달음을 쳤다.

네귀들을 건듯 추켜들고 듬직하게 들어앉은 새로 지은 문화주택들을 지나 보라빛 제비꽃이며 노란 민들레꽃들이 다문다문 피어웃는 길 맞은편 저쪽 마을이 옥순이가 사는 웃동네이다. 집이 가까와오자 선참 안겨온것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연기였다. 부엌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때를 맞추어 아이도 찾아가고 저녁밥도 짓는 그가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오빠만 살아있다면 더 바랄게 없으련만...)

아무리 불치의 병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스스로

위안하러 해도 꼭 살릴수 있는것을 정성이 모자라 먼저 보낸것 같은 쓸쓸한 생각에 잠겨 은빛털 봉오리들을 흔들며 반기듯 설레는 소담한 버드나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때였다. 벌떡 문이 열리며 밝은 불빛이 쏟아져나왔다. 거의 동시에 문턱을 넘어서는 너자를 보고 《옥순이!》하고 반갑게 소리치려던 수련은 그만 아연해졌다. 그가 아니었다.

《어마나. 지향이 고모가 아니예요?》

너인이 먼저 소리쳐서야 아래집 별이 엄마를 알아볼수 있었다.

《그새 잘 있었어요? 우리 지향이가 집에 있었지요.》

수련은 가볍게 말을 건니며 부엌문가로 향했다.

《아니,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순간 수련이의 평온하던 마음이 바짝 긴장되었다.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예감이 뇌리를 쳤다.

《그 연구사 말이예요. 글썽 안될것 같으면 애초에 그만둘것이지 언제는 된다된다 하더니 이제 와선 난 못하겠수다 하고 편지 한장 덜렁 써놓고는 집을 싸가지고 아주 떠나갔다지 않아요. 그러니 왜 위원장의 가슴이 터져오질 않겠어요. 그를 당장 데려온다며 뒤쫓아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순간 즐겁지 못했던 지난날의 한토막이 언뜻 되살아올랐다.

언제인가 지향이가 보고싶어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을 때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수련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설날에 본 그 안경쟁이 연구사가 아직도 있을줄이야. 주인처럼 빈집에 틀고앉아 책상가득 펼쳐놓은 책들을 뒤적이는 그를 보니 왜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사람이 어찌면...)

아무리 공동으로 연구하더라도 일단 세대주가 없는 이상 딴 곳으로 옮겨앉아야 옳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그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왔던김에 따끔한 말을 좀 해주고 가야겠어.)

수련은 속으로 버리며 옥순이가 나가있다는 제방쪽 쌓는 공사장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한벌 뒤덮여 굶고있는 속에서 그를 찾아내기란 좁쌀에서 뉘고르기만큼이나 힘들었다. 여러번 불어서야 한쪽 끝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매끈하게 돌담을 쌓는 그를 불러낼수 있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잔디밭에 나란히 앉았을 때 옥순이는 그의 한쪽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부터 넘겨다보았다.

《뭘 좀 가져온게 없니? 아침을 설쳤더니 막 배가 고파 견딜수가 있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눈길은 자꾸 제방쪽 쌓는 쪽으로 돌아가곤 한다. 남들이 땀흘리며 일하는데 앉아있기가 멍한 모양이다. 어서 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듯싶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지향이에게 주려고 궁져왔던 간식을 통채로 맡긴 수련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옥순아, 그 연구사가 하는 일 말이야. 이젠
알이 보이니?》

그 말에 금방 파자 한조박을 꺼내들고 맛있게
씹던 옥순이가 툭 굳어졌다. 한참만에야 입에 문
것을 마저 삼키고나서 천천히 도리질을 한다.

《아직은... 하지만 그 연구사는 꼭 해낼거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나서 들고있던 나머지
반쪽을 가방속에 밀어놓고 일어섰다.

《달리 생각말어. 그 일이 멀었다면 이제라도
실험실을...》

수련은 차마 뒤말을 잊지 못했다. 옥순이의 열
굴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본것이다.

《날 생각하는 네 마음은 고맙게 생각한다. 하
지만 그건 오빠의 뜻이 아니야 언제인가 병원에
다녀온날 자기의 병은 이미 기운것이니 아무 소
용이 없다며 대신 우리 마을의 보배인 저 연구사
가 아무 불편도 없이 일에만 전심하도록 잘 돌봐
주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성공하는 그날까진 그를...》

옥순이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한채 목에 걸렸던
수건을 한손에 벗어두고 총총히 작업장으로 갔
다.

(내가 괜히 굶어부스럼을 만든가 봐.)

수련은 심한 자책에 잠겨 오래도록 서있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미생물비료가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오길 옥순이 못지 않게 기다려온 그
였다. 현대 집까지 전부 싸가지고 갔다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또 어데 있던 말인가.

수련은 저보다 몇배로 억이 막혔을 옥순이의
정상이 안겨와 말뚝처럼 선채 움직일줄 모른다.
결에서 보다못해 별이 엄마가 나직이 귀뜸을 했
다.

《저녁밥은 제가 넉넉히 지어놔오니 고모는 열
른 진료소엘 가봐요.》

《아니, 진료소라니? 거긴 무엇때문에요?》

수련은 영문을 알수 없어 두눈만 크게 떴다.

《모든건 다 그 연구사때문이에요. 글썄 잠든
지향일 안고 퇴근해오는 위원장을 봤는데 얼마간
지나서 애가 다급하게 울어도 기척이 없더군요.
그래 달려가보았더니 글썄 ...》

수련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필경 떠난다는 편지를 읽고 정신없이
달려나갔을 옥순이와 홀로 깨어나 엄마를 찾으려
야장아장 걸어나왔을 지향이...

《어디 많이 다쳤어요?》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턱을 기여넘다 떨어졌는데 요행 다른 상처
는 없고 한쪽팔을 다치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무
래도 미타해서 리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뼈가 상한
것 같으나 빨리 군병원으로 올라가 рент겐촬영을
해야겠더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오길...》

수련은 허둥지둥 달렸다. 다리맥이 풀려 자꾸
만 앞으로 넘어지려 할뿐 걸음이 제대로 나가질
않는다. 그럴수록 부디 그가 오는 날에 이런 불
미스러운 일을 빚어놓은 연구사가 더없이 원망스
러울뿐이었다.

(아, 그 어린것이 얼마나 놀랐을가.)

이런 생각에 가슴 한끝이 아릿해졌다. ...

렌트겐촬영도 끝나고 실금이 간 뼈에 부목까지
대고났을 때는 퍼그나 밤이 깊어서였다. 약기운
에 취해 혼곤히 잠든 어린것을 안고 깜박 잠들었
던 수련은 누군가가 슬며시 아이를 당기는 바람
에 펄쩍 놀라며 눈을 떴다. 옥순이었다.

얼굴색이 까맣게 질린 그를 보니 저도 몰래 눈
굽이 뜨끈했다.

(내 마음이 이럴진대 엄마인 그야 오죽하랴.)

그런데도 옥순이는 그저 미안한 타령이다.

《정말 고마워. 내대신 네가 수고했구나. 뭐라
고 해야 좋을지 통...》

《무슨 소릴. 내가 남이냐.》

수련은 미안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그를 보기가
오히려 민망스러웠다. 그해 우정 진료소에서 아
이를 안고 군병원으로 오던 일이며 렌트겐소견과
치료대책 등으로 이야기를 끌어갔다.

옥순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고나
서 땀에 폭 젖은 작업복주머니에서 새빨간 사과
한알을 꺼내어 지향이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뭘 좀 준비해왔어야 할걸 좀전에야 소식을 듣
구 들리다니 그만...》

《그런 걱정은 말구 내결에서 눈을 좀 붙여.》

수련은 폭신한 침대우에 베개를 놓아주었다.
했으나 조용히 웃어보일뿐 누울차비가 아니였다.
눈길은 저도 몰래 벽시계쪽으로 향하군 한다.

(비둘기마음은 콩밭에만 있다더니...)

수련은 그의 심정을 모르는척 베개 하나를 더
잇대여놓고 제먼저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옥순
이도 끄당겼다. 할수 없었는지 털썩 몸을 던지더
니 유치원낮잠시간때처럼 수련이를 꼭 부둥켜안
고 눈을 감았다.

《네가 잠들면 떠나도 되지?》

옥순이가 소곤소곤 귀속말로 묻는다.

《안돼. 이제 지향이가 깨어나면 엄마부터 찾을
텐데 한번만이라도 안아주고 가.》

수련은 두말못하게 딱 잡아챘다.

《나도 있고싶어. 하지만 애결에야 네가 있지
않니. ... 실은 그 연구사를 밖에 세워두구 왔
어.》

《뭐라구?》

둘은 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련은
너무도 억이 막혀 멍하니 옥순이만 쳐다보았다.

《아니,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집까지 싸들고 갔
다는 사람은 해서 뭇하려 그리니 까짓거 제 갈데
로 가라고 그만 내버려 뒀.》

《그러지 말어. 누가 뭐라든 그는 다시 포석리
로 가야 해. 그리고 척박한 우리 고장의 토질에
맞는 미생물비료를 꼭 성공시켜야 해. 그래야만
안전한 수확고를 담보할수 있거든 ... 수련아, 이
건 오빠의 소원이었어. 그때문에 너무도 빨리 떠
나간지도 모르는 그이의 소망이 성취되길 그렇게
바랬는데 정작 모든걸 포기한 연구사를 보았을
땐 정말이지 참을수가 없더구나. 그래 난 막 그
사람을 잡아흔들며 이렇게 정신없이 소리쳤단다.

비겁하다, 너절하다, 량심이 있는가, 말하라...
그랬더니 글썄 그가 뭇했는지 아니. <웁소. 난
비겁하고 너절하구 인정두 의리두 모르는 량심없
는 인간이요. 그래 이젠 속이 시원하오?> 알고보

니 내 잘못이 더 컸더구나 제집에 앉히고 밥이나 배끓지 않게 하면 그만인줄 알았지 그의 고충이 뭇이고 밥보다 더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물어주지 못했구나. 날은 자꾸 가는데 실패는 거듭되지. 또다시 땅에 씨앗을 물을 때가 되여 오는데 자급비로는 걸렸지. 그래 더는 참지 못하고...

옥순이는 썩은썩은 잠든 어린것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말고 수련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미안해. 연구사가 결집에 떠나오긴 했어 두 뿔가 실마리가 잡힌것 같아. 그가 이밤으로 돌아가겠다가에 나도 잔뜩 벌려놓은 일감들이 있어 함께 가련다.》

그 다음엔 천천히 문가로 향했다.

《안돼. 못가. 하루이틀 병원에 있다고 허물어 질 일도 아니지 않니.》

수련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싶었다. 했으나 입속으로 외웠을뿐 차마 막아서지는 못했다. ...

오늘은 지향이가 퇴원하는 날이다. 그사이 고정해놓았던 부목도 풀었고 시간맞추어 밥도 먹고 간식도 떴구지 않아서인지 아이가 무척 좋아졌다. 오동통하니 밥살이 오른 랑불엔 불우물이 곱게 패였고 꽃잎같은 입가엔 노상 웃음이 비껴있다. 수련은 애기품을 안고 재미나게 놀고있는 지향을 꼭 껴안고 곱게 머리를 벗어주었다. 술이 많은 까만 머리칼들을 쪽진 다음 새빨간 방울이 달린 파아란 고무줄로 가뜰하게 동여맸다. 꼭 꼬마염소의 뿔처럼 곤두선 모양이 더욱 귀여움을 자아내는 그에게 새옷과 꽃양말까지 받치니 정말 한송이의 꽃인양 이뻐다. 신동히도 랑부모의 고운점만 따다 만든듯 한 귀여운 조카애를 안고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수련이의 마음은 서글퍼졌다. 그사이 두세번 잠깐씩 병원에 들려간 옥순이여서 지향이가 퇴원하는 오늘날은 꼭 품놓고 미리 오려니 생각해온 수련이었다.

《지향아, 너의 엄마는 끝내 나타나질 않누나.》

그가 알아듣기라도 하듯 나직이 속삭이고나서 더 기다리기를 그만두고 병원문을 나섰다.

하늘은 맑고 봄볕은 그지없이 따스했다. 산과 들엔 신록이 짙어졌고 강기슭이며 산허리를 발강게 물들이며 피어난 연분홍빛진달래가 한창 무르녹고있었다.

수련은 손가까이에 핀 어여쁜 진달래 한송이를 꺾어 지향이의 손에 들려주었다.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온데다 고운꽃까지 손에 든 지향이는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모른다.

저절로 도리도리도 하고 짹짹도 하며 노래하듯 《엄마엄마》 부르기도 한다. 재롱을 부리는 지향을 바라보며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수련이의 마음은 여전히 울적했다. 왜서인지 오빠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일감을 안고 뛰어다닐 옥순이생각에 목이 메기도 했다.

(누구든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지만 인츰 도리질을 쳤다. 당치않은 생각... 이때였다.

울릉불듯한 짐작들을 한가득 실은 프락프르가 병원앞길로 달려오더니 바로 그들결에서 멈춰섰다.

《지향아!》

맑고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운전칸에서 옥순이가 뛰어내린다.

(아니?) i

수련은 너무도 뜻밖인지라 달려오는 그를 얼얼이 바라만 보았다.

《옥했지? 늦었다고... 오늘은 좀 빨리 온다던 노릇이 짐을 싣다나니 또...》

옥순이가 채 말끝도 맺기전에 귀익은듯 뒤돌아본 지향이가 《엄마!》하고 부르며 제먼저 두손을 뻗친다.

《아, 지향아!》

그다음엔 둘이 한덩어리가 되여 돌아간다. 엄마도 웃고 아이도 웃으며.

《아이참, 우리 지향이가 그새 막 무거워졌구나. 예뻐지기도 하구. 그러느라 고모가 얼마나 수고했겠니.》

《아니, 넌 별소릴... 참 의사선생님이 며칠 집에서 안정치료를 더 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셨는데 내가 마저 데리고있는게 어떨겠니?》

《고마워. 하지만 지향일 데리고갈테야.》

《그럼 잊지 말고 꼭 안정치료를 해야 해. 알겠니?》

수련이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차에 오르려는 그를 붙잡고 또 말했다.

《걱정말어. 꼭 그렇게 할것을 약속한다. 자.》

옥순이는 활짝 웃으며 어렸을 때처럼 새끼손가락을 척 내민다. 아마도 깍지를 걸려는지.

그제야 다소간 마음이 놓여 수련이도 마주 웃었다. 엄마의 품에 안긴것이 그리도 좋은지 불우물이 쾌이도록 방실방실 웃으며 두손을 들어 까닥까닥 흔드는 지향을 싣고 프락프르는 기운차게 달려갔다. ...

그때로부터 불과 닷새가 흘렀다. 하지만 이 날이 수련이에게 몇달맞잡이로 길어 보였다. 그새 얼마나 정이 들었던지 귀엽게 웃으며 재롱을 부리던 지향이가 눈앞에 자꾸 얼른거려 아무일도 손에 걸리지 않는다. 게다가 요새 일이 힘들어서인지 입술이 타실타실 마르고 동그스름하던 두볼이 푹 꺼진 옥순이의 축간 모습까지 겹쳐들어 견딜수가 없었다.

마침 래일은 일요일이라 수련은 품을 놓고 집을 나섰다. 무겁게 메고가는 큼직한 여행가방속엔 지향이에게 안겨줄 놀이감이며 간식들과 함께 자그마한 꽃단지도 들어있었다. 언제인가 상점에서 크기며 문양이랑 똑같은것으로 쌍맞추어 사다두었던것이다. 두 집에서 한개씩 나누어쓰자고 마련한 그 단지에다 닭곰을 해가지고 가는 길이다.

(식기전에 먹여야했는데 ...)

수련은 아직도 따끈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방을 만져보며 걸음을 다그쳤다.

금방 마을어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수련은 급히 마주오는 별이 엄마와 마주쳤다.

《아니, 어딜 그리 바빠 가요?》

《어마나, 지향이 고모군요. 글썽 위원장이 천수덕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다면서 아침일찍 아이를 맡기고갔는데 저녁때가 다 되여오도록 어디

와야지요. 그래 이렇게 ...》

너인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보자기에 찐 밥꾸레미를 쳐들어보인다. 순간 연제인이 배가 고프다며 꺼내들었던 과자를 반쪽밖에 못먹고 다시 넣던 생각이 났다. 오늘도 분명 또 아침밥을 설쳤을텐데 점심마저 건넬었으니...

수련은 더 생각할새없이 별이 엄마의 손에서 밥꾸레를 앗아든 다음 가방에서 닭곰단지를 꺼내어들었다.

《별이 엄마, 가방을 부탁해요. 이안에 간식이랑 들어있으니 지향이에게 꺼내주세요.》

그리고는 오던길로 총총히 되돌아섰다. ...

천수덕은 이틀그대로 높기도 넓기도 하였다. 사방으로 연줄연줄 뻗어내린 산발들로 둘러막힌 천수덕에도 봄빛이 완연했다. 물오른 나무가지마다덴 파아란 나무잎들이 뽀죽뽀죽 움뛴고 진달래꽃망울들은 이제야 때가 된듯 봉긋 망울을 터친다. 탁지씩이며 곰취며를 눈에 띄우는대로 뜯어 밥보자기속에 넣으며 정점까지 오른 수련은 그만 아연해졌다.

눈뿌리가 모자라게 펼쳐진 이 넓으나넓은 진펄에서 옥순이를 찾는 일이란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따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키높이 자란 마른 풀대들이 한데 뒤엉켜 와슬렁대는곳에 홀로 서있자니 더럭 무섭증이 났다.

(공연히 온게 아닐까? 그러다 혹시 여기에 안왔으면 어쩐다?)

불쑥 떠오른 생각뒤에 인츰 후회가 따랐다. 도대체 이런데 와서 무얼한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나 보고 올걸 ...

수련은 밥꾸레를 풀판에 내려놓고 한손으로 채양을 만들어 이마에 붙였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다시금 휘둘러보았다. 짐승이 금방 뛰쳐놓는듯 한 흔적이 점점이 널려져있는 감탕밭이며 이리저리 나자빠진 풀대들...

《지향이-》

수련은 어방대고 큰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이쪽저쪽 산들에서 저마끔 《지향이- 지향이-》하고 메아리되어 울려간다.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다. 두번다시 찾고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이젠 어쩌면 좋을가?)

한참 망설이다가 밥보자기를 들고 좀더 웃쪽으로 올라가보았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더 큰소리로 연거퍼 불렀다.

바로 이때였다. 그리 멀지 않은 뒤쪽에서 《여기 있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련은 너무 옴한 나머지 착각한것이 아닌가싶어 숨을 죽여가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와락와락 풀대들을 헤치는 소리, 철버덕철버덕 감탕밭을 밟는 소리 ...

(혹시 메돼지가 아닐까?)

불쑥 떠오른 생각에 머리칼이 곤두서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뿐 드디어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수 없는 꺼밋한것이 감탕속에 주저앉았다가는 일어서고 걷다가는 또 주저앉으며 이쪽을 향해 오고있었다.

수련은 두손을 어깨가 닿도록 목속에 깊이 잠구었다가 꺼밋한 흙덩어리를 파올려 비벼보고는 몇걸음 옮겨가는 사람이 다름아닌 옥순이임을 알아

보았을 때 저도 몰래 눈곱이 뜨끔해졌다.

(어쩌면...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저러고있다니. 농장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가, 아니면 저런 일까지 꼭 위원장이 해야 한단 말인가...)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종잡을수 없는 감정들이 한데 뒤엉켜들며 목을 짝 메워놓는다.

그래도 옥순이는 웃고있었다. 멍하니 쳐다만 보는 수련이를 향해 손까지 흔들면서.

《아니, 예가 어디라고 찾아왔니. 지금 막 내려가던 참인데. 집에서 기다릴것이지...》

흙으로 빗어놓은듯 한 로동화, 꺼먼 흙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바지가랭이며 소매를 걷어올린 팔꿈치며 얼굴에까지 게발린 감탕, 그 모양을 보고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데도 수련이를 보고 오히려 제편에서 걱정이다.

《어마나, 읍에서 떠나 예까지 오다니. 얼마나 힘들겠니.》

《넌 지금이 몇시인줄 아니. 그래 배도 안고프던... 그러니 네 몸 돼가는 꼴을 좀 봐. ... 일이야 앞으로도 실컷 할건데 시간맞추어 밥도 먹고 잠도 자야지. 무쇠덩어리로 빗어놓은들 견디겠니.》

수련은 이런 푸념을 늘어놓으며 풀밭에 밥꾸레를 펼쳐놓았다. 그사이 맑은물에 손도 씻고 세면도 하고난 옥순이가 수건으로 물기를 훔치며 그 앞에 마주앉았다.

《아니, 이건 뭐니?》

옥순이는 무척 놀라와하며 꽃단지의 뚜껑부터 슬쩍 열어본다. 기름에 절은 노란 찰밥이며 비죽이 고개를 숙인 폭 익은 통닭...

《어마나, 닭곰이구나!》

옥순이는 너무 좋아 아이들마냥 손뼉까지 친다. 그다음엔 식을세라 다시금 보자기로 뽁뽁 동여싼다. 수련은 바빠 다가왔으며 보자기를 끄당겼다.

《왜 그러니. 들지 않구. 내 속이 흐뭇하게 보는 앞에서 통채로 뜯어. 자, 어서.》

《됐어. 이 곰은 내가 먹은줄 알구 우리 집 윗방 손님이나 가져다 주자꾸나. 그러지 않아도 언제부터 생각은 하면서도... 마침 잘 됐다. 고마워.》

수련은 더 이상 우길수가 없었다. 그럴줄 알았더라면 한마리 더 해오는건데 어쩔 이리도 생각이 짧단 말인가... 미생물비료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날아들기만 기다렸지 언제한번 옥순이나 오빠처럼 그 연구사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자각이 없는 자신을 스스로 탓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쉽긴 해도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말을 들을 옥순이가 아니었다. 하는수없이 폭신한 효모빵을 꺼내어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럼 이거라도 어서 먹어. 얼마나 배고프겠니.》

《어쩌면... 넌 꼭 엄마같기두 하구 오빠같기두 하구...》

그 말에 수련은 가슴속이 뭉클 젖어들었다. 얼마나 정이 그리웠으면 저러랴.

《옥순아, 내 자주 찾아올테니 제발 몸을 돌보며 일해. 그러다 병이 나면 어쩔려고 그러니.》

《그러자구나. 잠도 싹껏 자고 밥도 제시간에 꼭꼭 먹고… 하지만 난 아직은 안돼.》

왜서인지 마지막말꼬리가 가늘게 편다. 영문을 몰라 바라보니 옥순이의 별처럼 반짝이던 두눈에 뽀얗게 물기가 어렸다.

《?!…》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저멀리 하늘한끝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 우뚝 솟은 봉우리에 걸터앉아 마지막빛을 한껏 뿌려주는 저녁해, 그 빛을 받아 붉게 타는듯이 물들어진 나무며 풀이며 바위들…

《수련아, 난 우리 수령님께서 늘 소중히 품고 다니시던 푸른 수첩의 갈피속에 물과 돌뿐인 척박한 땅이어서 사람못살 고장으로 적혀있는 포석리관리위원장이 아니냐. … 이렇게 해저무는 저녁이면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문득 마을에 들리실것만 같아 정말이지 편안히 누워 잠들수가 없구나. 농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것처럼 바쁘신 전선시찰의 길을 미루시고 찾아오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번듯하게 꾸려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릴 보신다면. 그래서 떠나가실 땐 기쁨속에 환히 웃으시며 가실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기전에 어서빨리 그이께 기쁨드릴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한초가 아까운지 모르겠어. …》

《옥순아, 넌 어쩔 그런 생각을…》

나직이 속삭이는 수련이의 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한껏 벅차올랐다. 지금껏 그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으로 남아있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이 순간과 더불어 뜨겁게 되살아올랐다.

어찌하여 앓는 오빠를 두고 먼길을 떠나야 했던지 그리고 설날마저 한지에서 보내야 했던지도. 그뿐만이라, 지향이의 입원날에도 퇴원날에도 남들처럼 살뜰한 어머니로 되어주지 못했던지도…

수련은 좁전에 빠스를 타고 오면서 범상히 보았던일마저 새로운 의미를 담아 되새겨보았다. 이 고장에 흔한 석비레와 진흙을 섞어 든든히 다져놓은 포장도로며 길랑옆에 줄지어 심어놓은 가로수들과 꽃밭들, 강기슭을 따라 만년대계로 쌓아올린 제방폭이며 사람들로 들끓는 2호, 3호발전소건설장들!

그렇다면 날마다 달라지는 고향땅의 모습은 정녕 옥순이의 소원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바로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분명 옥순이는 쉽없이 달리고있었다. 그것도 선두에서 선군시대의 기수가 되어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고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수련은 조카애에게 안겨줄 기념품들을 빠짐없

이 넣고오면서도 신임교원의 소박한 부탁도 미래의 수학박사로 되겠다는 남철이의 기특한 꿈조차 귀중히 여겨주지 못한 자기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찌하여 인생의 출발선은 꼭 같았으나 걸어온 길엔 너무도 먼 차이가 있는지…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있니. 어서 내려가자. 그러다 회의시간 늦겠다.》

밥구력을 싸든 옥순이는 제먼저 풀덤불들을 헤치며 언덕을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모임엔 여기 천수덕문제를 토론해야겠어. 글썄 요즘엔 멀지 않아 성공하게 될 자급비료의 원천인 니탄문제때문에 속을 태우었는데 뜻밖에도 이 일대에 큰 니탄발이 매장되어있다는 지질탐사대의 통보가 오질 않았겠니. 그래서 현지를 밟아보자고 왔됐단다. 야, 얼마나 굉장한지 글썄 이 넓은 진펄밭이 다 비료원천이야, 비료원천…》

환희에 넘쳐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될 래일의 포석리를 그려보이며 활기있게 걸어가는 옥순이를 보노라니 문득 유년시절 버들꽃을 사랑한다고 글을 짓던 콩지머리소녀가 떠올랐다. 고향땅에 피어난 꽃이 그리도 소중하여 소박한 글에 담아 노래한 그 소녀가 오늘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행복의 꽃, 락원의 꽃을 가꾸고있으니 진정 애국은 고향에 대한 사랑의 전부가 아닌가.

수련은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들이 어찌하여 새살림을 펴던 그날에 프락에 버드나무를 심었던지가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갔다.

버드나무! 아득히 먼먼 태고적부터 인가와 떨어져 못살 그 무슨 연고라도 있는지 높고 깊은 산속엔 편안히 서있을 자리 많고많아도 부디 고르고 골라 우물가와 샘터는 물론 씨름터와 밭머리 그리고 시내가의 빨래터에까지 자리잡고 뿌리내린 버드나무! 장난세찬 애들이 바라올라 흔들기도 하고 버들피리를 만든다며 아지를 잘라내도 아무 탓함이 없이 눈속에서 꽃을 피워 새봄을 알려주고 푸른잎새 흔들어 더위를 막아주는 이 버드나무야말로 이 땅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것을 위함이라면 목숨까지도 웃으며 바치는 아름다운 인간들의 넋이고 숨결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사랑하는 고향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이 땅을 걸구기 위해 남모르는 땀을 바친 오빠가 버드나무라면 그 나무에 핀 꽃은 다름아닌 옥순이리라.

버들꽃! 꽃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소박한 꽃, 어여쁨과 화려함은 조금도 없이 햇숨을 몽그러털강아지 모양으로 빚어놓은 모습때문에 버들개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는 이 꽃이야말로 자기자신을 깡그리 바쳐 사랑하는 고향땅에 선군시대의 붉은 새봄을 안아오는 옥순이의 참모습이리라.

아무도 모릅니다

김선화

달빛은
강물위에 고요히 흐르는데
내 마음
강물위에 가만히 실어보며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어쩌면 무뚝뚝한
그 성미갈을가
혼합물에 콧꿨해진
1중대장 작업복
달리는 대오의 앞장에서
청년돌격대기발처럼 펄럭이던 그 옷자락

살쫂이 뺨을 대이여보니
다짐봉 틀어잡고
《백두산》 시를 읊던
그밤의 우등불내음새
숨배어있는듯

이글이글 열정에
불타는 심장은
이 옷섭에 가리워
보일듯 말듯

이른봄 산골물에
새빨개진 손글을 거쳐
이 가슴에 쪼르르
흐르는것 무얼가

아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비누거품위에
그 모습 떠올리며 그려보며
비비고 행구는 내 마음의 끝은 어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중대장 그 동무의 작업복은
승벽을 다투는 처녀중대장
바로 제가 꼭 빨고싶은걸
바로 제가 매번 빨아주는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높아가는 발전소언제와 함께
나도 몰래 가슴속에 돌기돌기 쌓여지는
이 작은 언제
내 사랑의 언제를

토스레옷

곽명철

나는 지금 보고있다
계급교양실의 진렬장우에서
피눈물나던 그 세월이
응어리져 굳어진 토스레옷을

눈에 어려온다
몸에 걸칠 단벌옷도 없이
저 토스레옷 한벌을
아버지와 아들이
엇바꾸어가며 돌려입던
가궁한 그 모습이

다 해진 저 토스레옷에
스며있으리

지주놈의 빚값에
귀여운 자식을 끝끝내 머슴으로 빼앗기고
온밤 흘리고 흘리던
설움의 그 눈물이

한뼘기 제땅이 없어
외진 산관에 화전을 일구었다가
왜놈산림간수의 칼자루에
죽도록 얻어맞고
땅을 치며 목놓아울던
그날의 피눈물이 ...

저 토스레옷은
결코 가버린 그 세월이 벗어버린



금강산

리 응 수

찌르릉!-

전화종소리에 그는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소차 리운철 전화 받습니다.》

《음, 점심식사를 했소?》

《예, 방금...》

《날씨구만. 차를 보내겠으니 여기로 곧 오시오.》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찾을가?

사단장이 차까지 보내면서 직접 부르는걸 보면 대대앞에 그 어떤 긴급한 정황이 생긴게 틀림없다. 정전은 되었으나 적들의 무장도발은 계속되고있었다.

대기실에서 웬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사단장이 윤철이가 들어서자 신중한 기색으로 말했다.

《보위성(당시)에서 내려온 분이요. 동무와 담화를 요구하니 그렇게 하시오.》

사단장은 두사람을 남겨놓고 곧 자리를 떴다.

《앉으시오. 소좌동무.》

손님은 의아한 눈길로 사단장이 나간쪽에 고개를 돌린 윤철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바쁘지 않습니까?》

《전 상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흔적만이 아니거니

저 토스레웃은

대를 이어가며 우리 행복동인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입어보아야 할

계급의 유물이거니

다시금 깨우쳐주는구나

저 한벌 토스레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월에 태어났는가를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놓인 밤색 야전가방을 끄당겼다. 가방에서 누런 종이봉투를 꺼낸 그는 그속에서 사진 두장을 뽑아 윤철의 앞에 놓았다.

《이 녀자를 압니까?》

첫장은 얼굴을 반나마 가리운 커다란 흑갈색안경을 낀 녀자의 모습이었다.

윤철은 흠칫 놀랐다.

(이 녀자가 어떻게?...)

사단장이 호출한 순간부터 어쩐지 초조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바로 저 녀자때문이라는것을 그는 비로소 의식하였다.

두번째 사진은 안경을 벗은 모습이다.

선이 부드러운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어딘가 멀리를 바리보며 애뜻한 추억에 잠긴듯한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손님은 착잡한 구름이 끼는 윤철의 낯빛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름은 김성랑, 외국류학생, 1952년 초가을 금강산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신중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말하는 손님이었다.

《물론 놀랐으리라고 봅니다. 이 녀성에 대해서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건데 이야기를 들려줄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인가를

우리가 이 제도를 왜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를

오 나라없던 그 세월엔

피눈물에 절었던

저 토스레웃

한시라도 잊고 산다면

우리가 저 토스레웃을 입어야 함을

얼마나 절절히 깨우치고있는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이 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님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좌동무, 그건 후에 듣기로 합시다.》

윤철은 두손을 짝 그러쥐며 머리를 떨구었다.

이상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뜨끔하게 깨우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창밖에 멀리 솟아있는 금강산의 우중충한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비가 오려는지 재빛운무가 서서히 내려앉고있었다.

《1952년 초가을, 나는 금강산의 세존봉골안에 있는 야전군의소에 입원해있었습니다. 1년전에 적구에서 부상을 입고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후 다시 도지는 바람에 얼마간 중대를 지휘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나는 매일 외금강온탕에 내려가 물리치료를 받고는 군의소로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서늘한 공기는 온탕에서 익어버린 화끈 단 물에 얼음물처럼 끼쳐들었다. 윤철은 대뜸 온몸에 전류처럼 퍼지는 짱하고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새들이 저녁 보금자리에 드느라 야단스레 우짖는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눈이 시그러웠다.

우듬지가 락하산처럼 퍼진 아름드리 로송의 잎새사이로 저녁노을이 푸른 바늘에 꿰인 홍보석조각들마냥 무수히 반짝거리며 매혹적인 미소를 뿌리고있었다. 노을은 금강산의 기암괴봉들위로 거대한 기폭처럼 장엄하게 설레이는가 하면 청신한 골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소릿같은 안개속에 꿰비쳐 령사가루같이 반짝거리면서 포화에 찢기고 그슬린 산천을 따스하고 부드럽게 감싸는듯 싶었다.

쿵 쿵… 월비산쪽에서 들려오는 둔중한 포소리만 아니였던들 전쟁이라는 준엄한 현실을 느끼지 못할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정든 님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

전선원호를 마치고 돌아오는지 골짜기아래에서 녀인들의 유패한 노래소리와 함께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철은 눈살을 찌프렸다. 남녀로소는 물론 산천조목까지도 치를 떨며 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우는 이때 유독 자기만이 소외된듯 싶어 서글프기 그지 없는 그였다.

서울해방… 락동강도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다시 재전격… 전쟁개시이래 포연이 회오리치는 속에서도 머리칼 한오리 상한 일 없이 중대를 이끌고 사단의 앞장에서 달리던 그였다. 1년전 가을밤 적구에서 부상만 입지 않았던들 이렇게 다리부러진 《장수》신세가 되어 간호원들의 깔끔한 눈초리앞에 순종하는 일이 없었을것이다. 때없이 피어오르곤 하는 불쾌한 생각에 지그시 눈을 감으며 늙은 소나무밑동에 기대던 윤철은 문득 가까이에서 울리는 소심한 인적기에 눈을 떴다.

그가 앉아있는 바위앞을 지나 뉘엿이 넘어간 등성이길에 웬 사람이 서있었다. 저물녘에 먼발치에서 몇번인가 무심히 스쳐보았던 사람이다. 늘씬한 키에 보기드문 밤빛가죽잠바를 입었는데 얼굴에는 커다란 흑갈색의 안경을 끼었다. 유난히도 흰 살결과 어깨뒤로 굵실굵실 흘러내린 검은 머리칼을 엇비듬히 보고서야 윤철은 그가 녀자임을 깨달았다.

어깨에 화판을 멘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화가쯤되는듯 싶었다.

《실례합니다. 저… 어텐가 몹시 편찮으신것 같은데요?》

그 녀자가 말했다. 중음가수처럼 무척 부드러우면서도 청량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저 좀…》

윤철은 당황하여 엉거주춤 일어섰다. 낯선 녀인에게 고민을 엿보인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소슬한 바람이 불어왔다. 녀인의 어깨너머에서 검은 머리칼이 흐트러지며 저녁해의 후광을 받아 밝은 밤빛으로 오리오리 투명하게 반짝거렸다. 녀인은 흘러져내린 머리칼을 귀바퀴위로 차분히 쓸어넘기며 윤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색안경뒤에서 어딘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보는듯 한 예리한 눈길을 느낀 윤철은 고개를 돌렸다. 그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녀인은 서성거리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외통길밖에 없는 곳이어서 낯선 사내의 앞을 선뜻 지나치기가 점직한 모양이었다. 머뭇거리던 그 녀자는 《실례하겠습니다.》하며 고개를 소곳하고 앞을 지나갔다.

얼결에 고개를 돌린 그는 녀인과 눈길이 마주쳤다. 여전히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윤철은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었다. 잠시 그를 지켜보며 서있던 녀인은 징검다리를 건너 옆골짜기로 들어갔다. 골짜기굽이를 돌아설 때 그는 다시금 윤철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보매 교양있고 레절이 밝은듯싶은 녀인이었다. 그런데 남들은 고지의 전사들을 원호하느라 밤함지며 탄약상자를 이고지고 포화속을 복나들듯하는데 저 녀자는 어떻게 되어 유람객처럼 화판이나 메고 다닐까?

녀인이 사라진 골짜기어귀를 지켜보며 의문스러움을 느끼던 윤철은 다음순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쓰겁게 미소했다.

나 자신이 지금 휴양객처럼 매일 뜨끈한 온탕에서 찜질을 하며 흔들거리고있지 않는가. 아니, 속단하지 말자. 아무리 바빠도 사람마다 제 나름의 생활적여유가 있는것이다. 그래서 인간세계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노을이 지자 사위엔 검푸른 황혼이 깃을 내렸다. 소리없이 불타던 빨간 단풍잎이며 나무잎사귀들이 감자주빛으로 혹은 진한 검보라빛으로 색조를 바꾸며 미묘한 웃음을 남긴채 어둠속에 녹아버렸다. 길옆에서 풀벌레들이 씨룩씨룩 울어댔다.

어둠이 깃들자 산중의 정적은 갑절이나 깊어지

는듯 싶었다. 그 정적은 윤철의 가슴속에 참을수 없는 고독감과 함께 떠나온 중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1년전 그날 저녁,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후 윤철은 은폐부에서 대원들에게 금강산에 대하여 이야기해줄것을 계획하고있었다. 전선중부에서 싸우다가 얼마전에 이곳으로 교방해온 그들이었다.

입대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는 력사학교수들의 강의와 대학도서관에서 읽었던 옛 문헌들을 상기하며 입을 열었다.

《세계적인 명승으로 알려진 우리 나라 명산의 하나인 금강산은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복잡한 지질운동과정을 거쳐 …》

그때 전화종이 울렸다. 윤철은 송수화기를 들었다.련대장이었다.련대장은 대뜸 암호로 오늘 밤에 한사람을 전선너머로 안내해주어야겠다고 지시하였다.

《녀성인것만큼 중대장동무가 직접 책임지고 무사히 넘겨야겠소.》

련대장은 무슨 실수라도 있을가봐 걱정되는지 오금을 박았다.

《알았습니다.》

자정이 지나 낮선 중좌 한사람이 감시소에 들어섰다.중좌는 녀성을 안내해야 할 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나서 윤철에게 지도를 넘겨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는동안 감시소입구에 서있는 녀자가 이쪽을 유심히 지켜보고있었으나 윤철은 그것을 모르고있었다.

밖으로 나갔다. 감시소입구에 서있던 검은 머리수건을 쓰고 봄가을의투를 입은 그 녀자가 윤철의 뒤를 조용히 따라섰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별빛 한점 없이 흐려져 있었다.

《출발!》

윤철은 나직이 구령을 내렸다.

앞에 두명, 뒤에 두명 그 사이에 그 녀자가 걸었다.

이따금 해묵은 새초들이 와슬렁거릴뿐 사위는 고요하였다. 적진지쪽에서 겁에 질린 탐조등빛줄기가 파랗게 펴며 포탄구멍이가 송송한 고지아래를 내리훑었다.그럴 때면 모두 땅에 납작 엎드려 적정을 살피었다. 불빛이 지나가면 다시 전진하였다. 드디어 추위에 웅송그린채 줄고있는 적 감시병을 예돌아 은밀히 전선을 넘었다.

윤철은 행군속도를 높이였다. 캄캄한 어둠, 험한 산길이었으나 그 녀자는 할씩거리면서도 용케 따라왔다. 한시간 종이 달려서야 윤철은 휴식을 선포했다.

푸릇한 새벽빛이 다가오고있었다.

이제 산아래의 서남쪽으로 뻗어간 도로에 이녀자를 무사히 세워주면 임무는 끝난다.

순조롭던 일이 비로 그 순간에 뒤집혀졌다. 도로를 살피려고 일어서는데 가까이에서 잔돌 구르는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떨기나무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얼씬거렸다. 도로를 지키는 적경비병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조

여들고있었던것이다.

좌- 세찬 바람이 불면서 시꺼먼 숲이 부르르 떨었다. 윤철은 입속말로 《얼드렷》하며 총을 휘둘렀다. 적들속에서 어지러운 비명이 터지면서 산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갑자기 사위가 하얗졌다. 엉성한 숲, 꺼먼 하늘, 그 복판에 새겨진 불뿔같은 번개빛, 이어 파광! 산아래를 내리찍는 천둥소리 …

윤철은 급히 그 녀자를 찾았다. 보이지 않는다. 가슴이 덜컥했다. 또다시 푸른 섬팡! … 사위를 재빨리 눈빛질하던 그는 저만치 뒤에 솟아있는 바위를 발견하였다. 그 녀자는 거기에 있었다.

《산마루를 타고 가시오. 목적지에 이르면 이걸 래위버리시오.》

윤철은 가방에서 꺼낸 지도를 주고 급히 돌아섰다. 하다가 그 녀자에게 성냥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피곳 들어 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냈다. 군단병기수리소에 있는 친구가 기관총탄깍지를 잘라서 만들어준 만년필처럼 생긴 라이타였다. 짧은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이 신령스러워 그는 빙그 미소했다.

뽕뽕! - 적탄이 날아오며 바위에 도탄되었다.

《빨리!… 잘 가시오.》

윤철은 그 녀자를 막아서며 대응사격을 거부였다. 순간 그는 갑자기 쇠몽치에 허리와 오른쪽다리를 후려맞는듯한 띠끔한 충격을 느끼며 풀썩 주저앉았다.

《음-》 저도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갔다.

《아니?…》

그 녀자가 돌아섰다.

《뭘 꾸물거리오? 빨리!》

윤철은 매몰차게 소리쳤다. 그 녀자는 총소리보다도 그 목소리에 더 놀란듯 무춤 굳어졌다.

또다시 번개불이 번쩍… 하늘을 찢어발겼다. 파아란 번개불아래서 그 녀자는 타는듯 한 커다란 눈동자로 윤철을 지켜보고있었다. 초조와 우려,련민의 정이 가득 어우러진 그 눈은 전선길에서 우연히 맞닥들린 이 군관을, 이 은인을 자기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넣기라도 하려는듯 황황 불타고있었다.

윤철이가 《빨리! 쟈장…》하고 소리쳐서야 그 녀자는 핵 돌아서더니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대원들이 윤철이를 둘러업고 그 녀자의 안전을 위해 반대편 산경사지로 적들을 유인하였다.

번쩍, 우르릉 땅땅! 또다시 터지는 번개와 우뢰소리 … 비가 쏟아졌다.

윤철은 꺼져가는 의식속에서 얼핏 건너편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꺼먼 나무들사이로 봄가을의투자락을 날리며 바빠 달리는 그 녀자의 모습이 번개빛에 관화처럼 드러났다가 사라지는듯 싶었다.

다시금 닥쳐든 어둠, 비, 바람, 퇴성… 놈들을 달고 얼마를 날렸던지… 이윽고 추격의 총소리가 뜸해졌다. 대원들이 나무를 찍어 만든 들것에 실려 윤철은 의식을 잃은채 다음날 밤에야 부대로 돌아올수 있었다.

군요소에서 구급처치를 받자 곧 후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수술, 봉합, 약물치료… 비로소 회

복되어 중대에 돌아왔으나 또다시 입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파로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면 부상처가 말썽을 일으키곤 하였다. 자칫하면 하반신마비가 올수 있다는 립상학적결론이 떨어졌다.

전쟁이 한창인 때에 이게 무슨 꼴이람... 쓰거운 환멸이 뇌리를 스쳤다.

군의들은 신심을 잃지 말고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도 부지런히 할것을 권고하였다. 어쨌든 대오에 다시 서느냐 아니면 총대를 놓고 영영 물러서느냐 하는 아직은 분명치 못한 안개자욱한 갈림길이 앞에 놓여있었다. ...

《그러니 소좌동무가 부상자리뿐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고통을 느끼고있을 때 이 녀자가 나타나구만.》

손님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매일같이 군의들에게 중대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떼질을 쓰던 때입니다.》

《전신을 넘겨준 그 녀자의 얼굴은 기억되지 않소?》

윤철은 머리를 흔들었다.

《정찰이 급한데다가 어두운 밤이어서 ...》

《음.》

고개를 끄덕이던 손님은 사진을 보며 다시 물었다.

《이 녀자는 그후 다시 만났는가요?》

《예, 바로 그 외통길에서 또 마주치게 되였습니다.》 하고 윤철은 계속했다.

《그날 온탕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나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중대에 돌아가면 대원들에게 금강산의 고색창연한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계획하고 낮동안 신계사며 발연사, 유점사를 돌아본 나는 치를 떨었습니다. 발목을 잠그는 재가루, 부서진 돌탑들, 개구리가 켜벙거리는 어웁한 폭탄구멍이들...

그 누가 상상할수 있었겠습니까?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은은한 풍경소리와 울긋불긋한 단청이 새겨진 화려한 절간의 합각지붕과 기묘하고 섬세한 돌탑들이 천여년을 두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며 하늘높이 솟아있었다고...

먼 옛날 막대한 재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년간에 걸쳐 하나하나의 걸작품으로 완성한 창조물들을 미제공중비적들은 한순간에 꺼먼 솟과 돌가루로 퇴화시켜버린것이였습니다. 놈들은 이 땅에서 현재뿐아니라 력사까지도 없애버리려고 발광하고있었습니다.

<야만들!>

당장 고지로 달려가 놈들을 향해 기관총이나 한바탕 휘둘렀으면 속이 후련할런지... 답답하고 번열이 나는 가슴을 안고 늘 앓았다가곤 하는 녀력바위에 이른 나는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앞을 지나간 그 외통길등성이우에서 사흘전에 마주쳤던 그 녀자가 서성거리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웬일인지 나무막대기를 쥐었다놓았다하면서 몹시 안절부절하는것이였습니다. 예돌아갈수

도 없고 더우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타까와하는 상대방이 녀성인지라 모른체 할수도 없고 해서 나는 헛기침을 하며 스적스적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녀인이 얼른 색안경을 끼며 돌아섰는데 잠바 앞섶은 온통 흙매닥질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이 마침... 좀 도와주세요.>

녀인이 반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길가에 놓여있는 물동이만 한 바위돌때문에 속을 쓰고있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졌었는데 아마 그때 산비탈에서 굴러내린 모양입니다. 가까이에 화판이랑 있는것으로 보아 그림도구가 그 밑에 깔린것 같았습니다.

<아예 저 아래로 굴러버십시다.>

나는 팔소매를 걷어올리며 등성이아래 신계천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녀인이 <그런데 꽃들이...>하며 주뭉거렸습니다. 강기슭에서는 파랗게 피어난 연보라빛의 청초한 들국화송이들이 살래살래 고개를 흔들며 <그러면 안되지요.>하고 속삭이는듯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한마디 던졌던 나는 그만 무안해졌습니다.

<제 자리에 놓으면 어떨까요?>

그 녀자가 산경사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대답은 선선히 했으나 나는 속이 편안치 않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나는 끄 하고 힘을 쓰며 바위돌을 안아올렸습니다. 그 바위돌이 그 녀자에게는 아름답것이였겠지만 나에게서는 하찮은것이였습니다. 했으나 나는 그만 무딘 칼로 찌르는듯 한 부상처의 아픔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수많은 별씨들이 눈앞에서 탁탁 튀었습니다. 그러나 바위돌을 놓을수가 없었습니다. 녀자앞에서, 더구나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과는 섞여지지 않는 이 별스런 녀자앞에서 전선군인의 약골을 보일수는 도저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인이 거들어주어서야 간신히 산경사면까지 날라갈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굴러내리지 않도록 흙다짐을 하고나서 내려온 나는 또다시 얼굴이 화끈거리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바위돌을 들어낸 자리에는 그림도구가 아니라 어린 꽃나무가 깔려있었는데 녀인은 껌질이 벗겨진 그것을 <치료>하고있었습니다. 마치도 부상병의 상처를 처치하는 살뜰한 간호원마냥 송진을 바르고 새초잎을 뜯어 꼼꼼히 감싸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인차 나을까요?>

마치 사람을 두고 하는 걱정같았습니다. 나는 그만 저도 모르게 감동되어 <그럼요. 아마 래일 아침엔 다시 싱싱해질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감하고 사려깊은 녀자였습니다. 이윽고 손을 씻으려고 내가로 내려갔습니다.

<힘드셨지요? 몸이 편찮으실텐데 ...>

미안한듯 녀인은 입가에 수집은 미소를 방긋 피웠는데 그 미소속엔 나의 건강을 두고 무척 녀

려하는 류다른 색조가 비껴있었습니다. 파스한 입김마냥 흘러나오는 그 미소를 대하는 순간 나는 어쩔지 갑자기 무거운 돌을 들다보니 빠른 나라는 허리의 아픔도, 불타버린 절간들을 돌아보며 울적했던 기분도 붉은처럼 사그라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너인의 미소속엔 확실히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깨닫이 정화시켜주는려과제와도 같이 부드럽고 살뜰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색안경은 왜 껴올가? 혹시 눈을 상한게 아닐가. 그렇다면 화가로서 얼마나 큰 불행인가... 습관되지 않은 그 물건에 은근히 신경이 쓰이면서 나는 동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리운철중대장동지이지요? 전 김성량이라고 부릅니다. 레벤미술대학 류학생인데 요즘 방학이 돼서 조국에 왔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제야 나는 그가 기껏해서 스물두셋났을 처녀이며 류다른 옷차림에 화판을 메고 다니는것이 리해되어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며 직무를 어떻게 일가? 나는 놀랍고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리너맹위원장을 아시지요?>

처녀가 물었습니다.

<예, 고지에 원호대를 이끌고 오기도 하고 군의소에도 자주 들리지요.>

두팔을 부상당한 환자에게 밥을 떠먹여주던 너맹위원장의 후덕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저의 이모랍니다. 금강산을 지켜 싸우는 용감한 중대장이 군의소에 입원해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런데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꼴이 되었지요. 허허...>

<아이, 무슨 말씀을... 저 좀 있다 가셔도 되겠지요?>

나는 처녀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가싶어 <예>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처녀는 마치고 내가 금방 돌아서 가버리길라도 할듯 덤벼치며 등성이에 올라가 받침대며 화판을 퍼놓았습니다.

<저녁마다 여기서 그리곤 하는데 변변치 못합니다. 의견을 좀 듣고싶어서...>

<의견... 말입니까?>

처녀의 안경과 뒤통수 눈길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신경쓰던 나는 뜻밖의 청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웃고 말았습니다. 두손을 앞에 모아쥐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있는 처녀의 눈같이 흰 오른뺨에 푸른 안료가 꼭 찍혀있었는데 그것은 마치고 그를 장난군소녀처럼 만들어놓았습니다.

<화판을 얼굴에까지 옮긴가 봅니다.>

<네?> 반쯤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보던 처녀는 얼른 돌아서며 잠바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어마나- 호호호호...>

인상깊은 청량한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울리는것 같습니다.

웃음소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러하듯 서먹서먹하던 둘사이의 공간을 메꾸면서 대번에 오랜 지기처럼 스스럼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허리에 차고있던 세수수건을 뽑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발그레 얼굴을 붉히며 <고맙습니다.> 하면서 수건을 받아킨 처녀는 돌아서서 그 푸른 자욱을 꼼꼼히 지웠습니다.

나는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거리를 조절하고 서서 말없이 감상하였습니다.

화폭의 오른쪽엔 근경으로 금강산의 거악한 산봉우리를 얹히고 나머지 넓은 공간은 붉은 노을로 처리하였습니다. 벼랑에서 텅겨나온듯싶은 몇마리의 새가 노을이 불타는 창공을 향해 날개를 퍼덕이며 솟구쳐오르는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작품이지만 그림에서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뿐아닌 그 어떤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정신적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허나 어쩔지 나에게는 그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엄한 전쟁의 불바다속에서 피, 죽음, 결사전... 이런 <화폭>들에 익숙되어온 나였습니다.

처녀의 눈길이 주시하고있었으나 선뜻 입을 열수가 없었습니다. 미술에 조예가 깊지 못한 나로서는 그림에 대한 견해가 일면적일수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풍경화는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만...

<기탄없이 말씀해주십시오.>

고심어린 창작품과 뒤흔 감상자를 번갈아보는 처녀의 어조에는 그 어떤 혹평도 기꺼이 받아들일수 있는 아량과 의지가 숨배여있었습니다.

나의 눈앞에 또다시 뇌리에 새겨진 <화폭>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밤, 어둠을 가위질하는 적탐조등, 땅을 누비는 총포탄, 사자처럼 돌진하는 전사들, 가시철조망, 그우에 엮드리는 병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 피타는 웨침, 그를 밟고 병사가, 분대가, 중대가 돌격합니다. 쇠가시에 찢린 가슴에서는 피가 흐르나 얼굴은 웃고있습니다. 그와 함께 원호물자를 이고지고 불비쏘아지는 온정의 험한령길을 오르내리는 금강산녀인들의 모습도 눈앞을 스치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싸웠던가? 총탄까지가 절그렇거리는 산야에 한몸을 내대며 조국의 승리와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던 유명무명의 그 애국자들의 처절한 모습... 절절하고 격렬한 그 감정을 과연 얼굴 회고 손끝이 초리같은 이 처녀가 알수 있을까?

<전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편의 그림에 어떻게 그 많은 사상감정을 다 담을수 있겠습니까?>

나는 착잡한 심증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처녀는 신중한 기색을 지었습니다.

<주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것이지요. 중대장동진 방금 다른 화폭을 그려보았습니다. 전선을... 그렇지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예. ... 아니, 그림은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 읊습니다. 전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성랑동문... 전선에 나가보았습니까?>

<전선예요? 저... 전 아직...>

뜻밖의 질문인듯 이번엔 처녀가 당황해하며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범벅이 된 조색판을 내려다보며 해쓱해 진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고뇌로 가버운 경련조차이는듯싶었습니다. 전쟁과 죽음이라는 잠재의식이 심산속에 호수같이 고요히 간직되어있을뿐 그 표상조차 상상하기 꺼려하는듯싶은 대학생처녀에게 그 질문은 아마도 공포의 파편마냥 귀뚜리를 스쳤을가 봅니다. 나는 그에게 묻지 말아야 할 소리를 꺼냈다는것을 느꼈으나 한편으론 그 어떤 반발심이 심술마냥 야릇하게 솟구치는것을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는 이때 나라의 혜택으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 왔다면 그래도 고지에 총탄 한점이라도 나르는것이 공민된 도리가 아닐가? 그것도 향차 실생활을 창조의 원천으로 하는 미래의 예술가가...

그래서 내친김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남강마을녀성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련인들을 전선에 내보낸 그들은 하루에도 열백번 죽을수 있는 위험을 맞받아가며 고지에 탄약과 끼니를 보장하고 부상병들도 호송하고있습니다. 장마철이면 집기둥을 헐어 뼈를 무어가지고...>

흥분된 나의 목소리는 높았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있었는가 봅니다. 처녀는 까딱않고 신중히 듣는듯 했습니다.

그때 산너머에서 느닷없는 포소리가 쿵-쿵-메아리쳐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곳을 쏘아보았습니다. 순간 눈에서 불길의 쏟아져나가는듯 눈곱이 저려왔습니다.

<피로우신가요, 포소리가 들릴 때면?>

갑자기 거칠어진 나의 숨결을 감촉한듯 처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머칠전에도 한 나어린 병사가 달려드는 적땅크밑에 수류탄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승리한후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하던 꿈많은 병사가!>

격해진 나의 눈에는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처녀의 안경밑에서도 무엇인가 번뜩이며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만 먼구슬러웠습니다.

<이것 참,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만 제 기분에만 잠기다보니 ...>

<아니아니, 그래서가 아니예요.>

<어찌겠습니까. 전우들은 목숨바쳐 싸우고있는데 중대장이란 사람은 뜨끈한 온탕에서 썸썸이나 하고있으니 ...>

나는 사위여가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녀는 무릎을 포개안으며 그 어떤 회오의 감정에 잠긴듯 호-하고 한숨을 내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침울한 기분에 도전하는듯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예요. 전투에서 용감했다면 치료에서도 용감해야지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다시 대오에 설수있지요. 그렇지요?>

곧추 바라보는 안경뒤에서 어머니같이 다심하고 강의한 질책의 눈길이 느껴져 어쩐지 속이 찢르르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우리는 자리를 일었습니다.

<저... 한가지 청을 드려도 될가요?>

<말씀하십시오.>

<중대장동진 금강산을 잘 아시지요?>

<자기가 지켜 싸우는 지대를 잘 파악하는건 군인의 의무이지요.>

<그렇다면 매일 시간을 좀 내주실수 없을까요?>

<?...>

<전 이 금강산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절더러 길안내를 해달라는겁니까?>

뜻밖의 제의에 나는 그만 아연해졌습니다. 전선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해주었는데 금강산을 안내해달라?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녀의 눈에는 아마도 내가 중대장이 아니라 병력서에 기입된바대로 <전투능력상실>자, 자기의 창작사업에 길동무로나 데리고 다녀도 무방한 비전투원으로 보인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군, 거절하자. 사실 처녀는 오다가다 만난 길손이 아닌가! ...

처녀의 부락을 일축해버리려던 나는 하도 진지한 눈동자앞에서 잠시 망설이였습니다.

가만, 내가 왜 이렇게 모든것을 회의적으로 대하는가? 전쟁이라고 해서 모두 총을 잡고 전호에 설수야 없지 않는가! 매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재능을 가지고 해당 시대를 위해 복무할 공민적 권리가 있다. 때문에 전선에서 한치의 땅을 두고 피의 결사전을 벌리고있을 때 농민은 벼의 평당 무게를 속구구 하는것이고 공장에서는 밤그릇과 수류탄을 생산하고 무대에서는 예술인들이 승리를 추동하는 노래를 부르고있다.

바로 그 모든것이 전쟁승리를 위한 정신적 및 물리적인 힘으로 융합되어 전사의 총대에서 멸적의 총포탄으로 튀어나가는것이 아닐가! ...

나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국을 떠나 멀리에 가있는 그로서 금강산에 대하여 잘 알게 되면 애국의 감정도 보다 깊어질것이고 또 작품의 새로운 상을 얻는 측면에서도 좋은것이 아닐가! 한편 군의들이 나에게 치료와 함께 운동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만큼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신의 육체적준비 상태에 대한 강도시험을 하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초조한 낮빛으로 나를 지켜보던 처녀는 막혔던 숨을 탁 터치듯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병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치료를 마치시고 오후 첫시간, 이 수건은 매일 돌려드려도 되겠지요?>

처녀는 푸른 얼룩이 진 세수수건을 돌려주면 마치도 내가 약속을 취소할가봐 겁내듯 등뒤로 감추었습니다. <허허,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 이튿날 나는 처녀를 세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는 불편한 나를 위해 땀시나게 다듬은 지팡이까지 장만해가지고 그 외통길에 나타났습니다. …>

윤철은 잠시 말을 끊고서 성량의 사진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깊은 회억이 실린 그의 눈시울이 가늘게 떨고있었다.

…충암절벽에 가리워 아직 보이지 않으나 세존 봉우에 떠오른 해는 끝안으로 금서까래같은 빛을 대각선으로 비치였다. 새소리, 물소리, 시원한 골짜기에서는 나무와 풀, 꽃뿐 아니라 무뚝뚝한 바위들에서조차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듯싶었다.

성량은 어깨에 화판대신 삼으로 엮은 망태기를 메었다. 로인들이 쓰는 물건이어서 어색해 보일 듯 했으나 오히려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그것은 이 처녀에게 없어서는 안될 어떤 치장품처럼 값 비싸 보였다.

윤철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천천히 걸었다. 처녀는 다심한 어조로 힘들지 않는가, 아프지 않는가고 가끔 물어가며 그를 부축하였다. 윤철은 빙긋 웃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무 일 없으니.》

얼마 걸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빠근하였다. 이마에 땀이 내뿜었다. 문득 성량이 세면수건을 내밀었다. 눈같이 희어진 수건이다.

《고맙습니다.》

수건에서는 금시 탄력있고 신선한 처녀의 체취가 풍기는듯싶었다.

간밤 처녀는 수건을 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감정이 격한 피짜라고 웃지 않았을까, 아니면 침울한 전상자라고 동정이나 하지 않았는지…

성량은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저건 무슨 봉우리인가, 이건 무슨 바위인가 끊임없이 물었다. 그런가 하면 이슬에 젖은 길가의 돌맹이를 주어들고 신기한듯 살피다가 그 자리에 놓기도 하고 빨간 단풍잎을 뜯어 나팔꽃처럼 물이 들지 않을가 손바닥에 대고 탁! 도장을 찍기도 하였다. 동심에 잠긴 발랄하고 꾸밈없는 그에게 끌려 윤철이도 소년처럼 즐거워지는것이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금강산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년전에 인디아에서 발생한 불교의 <화엄경> 이라는 책에는 <조선에 금강산이 있는데 1만2천봉우리> 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19세기 말 영국의 세계적인 여행가이자벨라 이소프녀성은 우리 금강산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의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쓴 책들은 한갓 목록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아름다움의 모든 요소로 가득찬 이 대규모의 협곡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사람들의 넋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또한 같은 시기 한 도이칠란드인은 <금강산의 웅대한 전경, 산체의 대담한 구성, 매달린 절벽, 아

직 도끼질한 일이 없는 숲과 소에서 나타나는 광선과 색채의 변화… 아아, 이 세상 그 어디에 이것과 비교할만 한것이 있겠는가?>라고 감탄했습니다. …》

마치 대학연단에서 학술토론을 발표하듯 열정에 넘쳐 말하는 윤철을 성량은 경탄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정말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복돋아주는 찬사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진정 금강산…》

푸드드득! 별안간 깎아세운듯 한 가까이의 절벽 위에서 낭비돌기가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어마나!-》

깜짝 놀란 성량이 저도 모르게 윤철의 팔을 덥석 잡았다.

《저 돌, 돌이 떨어저요.》

쳐다보니 초대같은 바위우에 닭알같이 둥그런 바위돌이 얹혀 간들거리듯싶었는데 《아-》하고 소리만 쳐도 금시 굴러떨어질듯싶었다.

윤철은 껄껄 웃었다.

《내 시 한수를 읊을가요?》

《어서 그러세요.》

성량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위태롭다 저 바위우 돌

떨어지려 한지 몇천년이드뇨

《이건 한 이백년전의 이름난 해학시인이었던 김삿갓(본명 김병연)이 지은 시랍니다.》

《아이 어찌면 그렇게도 생동하게 지었을까요. <떨어지려 한지 몇천년이드뇨.>》

성량은 거듭 외워보면서 감탄하고 웃었다. 청량한 그 웃음소리는 웅크리고 쪼그리고 엎어진 각이한 모양새의 회푸른 바위들에 부딪쳐 메아리를 일으키며 잔향되였다. 웃음소리에 놀란듯 비단 바람이 한줄금 지나 가면서 길가의 버람에 드리운 빨강고 노란 단풍잎이며 청청한 나무며 실비가 지나간 뒤여서 덤부렁한 풀잎들에 맺힌 이슬을 후르르 뿌려주었다.

멀리 흘러간 동요시절, 햇비를 맞으면서 즐겁게 떠들던 소년처럼 두팔 벌리고 빙그르 돌며 이슬을 함뱉맞은 성량의 구름같은 머리와 어깨는 진주구슬을 장식한듯 무지개빛으로 령롱하게 빛났다.

《금강산엔 버섯이랑 많지요?》

《많습니다. 송이버섯, 싸리버섯, 느타리… 봄이면 참나물, 곰취, 고비도 많이 나는데 낫으로 벨 정도이지요.》

《그래요. 우리 그만 걷고 송이버섯을 딸가요?》

《그렇게 합시다.》

윤철은 앞서서 소나무가 무성한 옆골짜기로 들어갔다.

쭈리쭈리-

술새들이 귀엽게 우짖으며 포롱포롱 날아옴다.

숲속은 싱그러운 송진내와 풀과 꽃향기로 웅크되어 손을 휘저으면 금시 푸르고 걸쭉한 공기가 옛물처럼 묻어날듯싶었다.

《버섯!》

말없이 뒤따르던 성랑이가 다보록한 풀속에서 송이버섯을 따들고 소리쳤다. 갓이 퍼지지 않은 동송이었다. 처녀는 희귀한 보물을 얻은듯 자세히 살펴보고 냄새를 맡았다.

버섯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온 윤철은 처녀가 꽤 눈이 밝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 이 냄새 좀 맡아봐요. 얼마나 향기로운가!》

성랑은 윤철의 코끝에 송이를 가져다 대었다.

깨끗이 뺀 백포냄새와도 같이 독특한 향기가 폐부에 흘러들었다. 아니, 그것은 처녀의 손끝에서, 몸전체에서 풍기는 싱싱한 생의 희열이 은연중 침울한 이 전상자의 가슴에 깃들면서 일종의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제인지도 모른다.

윤철은 짐짓 눈섭을 쫓기하며 탄전을 부리었다.

《글쎄, 모르겠는데...》

《음- 고지에서 화약내에 절어 후각이 마비됐나 보군요.》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버섯을 따기 시작했다. 성랑은 윤철에게 무리하면 안된다고, 무조건 알아서 실것을 《명령》 하였다. 했으나 윤철은 처녀가 오솔길 건너편으로 사라지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버섯을 따리웠다가 방학이 끝나서 성랑이 돌아갈 때 가지고 가면 좋을것이다.

윤철은 웃옷을 벗어 단추를 채우고 헝겊으로 목깃을 졸라매어 자루처럼 만든다음 송이를 따서 넣었다.

나무들사이로 멀어졌다 가까와졌다하면서 버섯을 따다가는 경치를 둘러보는 성랑의 청신한 모습이 언뜻언뜻 비쳤다.

해가 숲 정수리에 올라섰다. 가다가다к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볕에 몸을 맡긴 숲속은 별에 취해 조는듯 고요했다.

허리가 뻣근해난 윤철은 바위들에 걸터 앉았다. 몸상태가 시원치 않다는 어두운 생각이 갈마들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치료받아야 하겠는지...

배가 볼록한 망태기를 추스르며 성랑이 다가왔다. 처녀의 몸에서는 버섯내와 풀내가 엷어진 싱그러운 향취가 풍기었다.

《어마나 <명령>을 어겼군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버섯이 든 《자루》를 보고 놀란 성랑이 윤철의 앞에 무릎을 꿇고앉으며 낫색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니 괜찮습니다. 운동삼아 따본걸요. 허허...그래 감상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곳에 아예 눌러앉아 꼬부랑할머니가 될때까지 오래오래 살고싶군요.》

《하하! ... 그럼 됐군요.》

이젠 내려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시다.》

무지개빛 맑은물이 츠름츠름 차넘치는 옥류담 주변은 온통 물소리와 새소리로 가득찼다.

성랑은 망태기에서 보자기에 싼 당과류와 사과

를 꺼내놓았다.

《힘드셨죠? 천천히 들면서 좀 쉬세요.》하고는 손짓으러 못가에 내려간다.

《어마나, 물이 어찌면 이렇게도 맑을가!》

건드리면 금시 흐려질가봐 저어되는듯 처녀는 주춤거리며 환성을 질렀다.

《그래서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가 아닙니까.》

윤철이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어앉으며 말했다.

파란 하늘에선 배꽃같은 흰 구름이 몇점 떠서 남쪽으로 서서히 흐르고있다. 모든 소음이 정지되는 순간인가 귀전을 울리던 물소리며 새소리가 점차 사라져간다. 아늑한 고요가 깃드는듯싶은 속에 성랑이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못가에 들어선다. 잔잔한 파문이 일면서 물속에 비친 처녀의 모습이 춤추듯 흔들거린다. 잠시 그대로 서서 쪽빛하늘이 담긴 파란 물속을 들여다보던 처녀는 허리를 숙이며 두손 모아 한웅큼을 정히 떠올렸다. 마치 천군 나가는 물체를 들어보는듯 천천히 무겁게...

해빛이 반사된 흰 물그림자가 그 녀자의 얼굴에서 눈부시게 어리광쳤다. 그 어떤 추억에 잠긴듯 조각상마냥 굳어졌던 성랑은 이윽고 손에 담긴 물을 얼굴에 천천히 끼얹었다. 사무치는 그 어떤 정에 겨운듯 한번 또 한번 ...

그는 다시금 떠올린 물을 꽃보라인양 천천히 머리위로 짹 뿌려던지었다.

봉긋한 가슴앞으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칼이 소슬한 바람결에 흐트러지며 해빛에 밝은 밤빛으로 오리오리 투명하게 반짝거렸다. 흘날리는 머리칼사이로 엿보이는 처녀의 크고 검은 눈에서 맑은것이 번뜩이었다. 그는 울며 웃고있었다.

《너는 물이 아니라 피야, 피... 이 나라 산천에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고 영원한 생을 주는 조선의 맑은 피!...》

순간 윤철은 가슴을 쿵! 울리는 북소리를 들었다. 다는 알수 없으나 처녀에게서 그 어떤 신성하고도 숭고한 감정의 선물이 울려왔던것이다.

누가 말했든가, 비 뿌리는 이국의 남의 집 처마밑에 서봐야 제 나라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된다고! 물론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이국에 사는 사람보다 제 나라, 제 땅에 살면서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송두리채 바치는 고결한 녀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는가. 하다면 저 처녀가 품고있는, 무엇인가 그치없이 숭고한 정신세계의 씨앗은 어디에 토양을 둔것일까?

돌에 깔린 한그루의 꽃나무를 두고 그리도 애처로와하던 처녀, 한줌의 물을 두고 그리도 무겁게 떠안아보는 처녀...

《부상자리가 몹시 아픈 모양이지요? 내가 너무 제 욕심만 부린것 같애요.》

성랑이가 곁에 와 앉으며 걱정하는 소리에 윤철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빙긋 미소했다.

《아니... 성랑동무가 이렇게 기뻐하는걸 보니 어서 빨리 전선으로 달려가고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군요.》

이 아름다운 금강산을, 조국산천을 빼앗으려는

미체 침략자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금강산이랑 조국의 명승을 다 돌아보게 해야 하겠다는 군인된 사명감에 어깨가 굽절 무거워집니다.》

처녀의 흰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다.
길다란 속눈썹이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리었다.
《그래요, 고마워요.》하고 나직이 외우며 처녀는 먼하늘가에 눈길을 보냈다.

명상에 잠긴듯 한 성량을 바라보며 윤철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렇다.
조국의 명산을 지켜 싸운다는 남다른 긍지를 가지고있는 나에게는 이 처녀와 같이 이름모를 풀 한포기, 물 한방울을 두고 자기의 피와 살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구체적이고도 섬세한 감정이 있었던가?

과연 저 처녀는 어떤 여자인가?...
새삼스러운 의혹이 갈마들었다.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자리를 일었다.

《오늘은 참 즐거웠어요. 일생 잊지 못할것 같군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듯 계곡을 다시한번 둘러보던 성량이 우산마냥 머리위에 드리운 단풍나무를 보면서 웬일인지 《저...》하며 머뭇거렸다. 버섯망태기를 들던 윤철은 의아한 눈길을 돌렸다.

《?!... 말씀하십시오.》
처녀는 타는듯 한 눈길로 윤철을 바라보았다.
《저... 저한테 단풍잎을... 따줄수 없을까요?》
《네? ...아니 별걸 다 가지고...》

얼른 돌아서 윤철은 단풍나무가지에 손을 가져갔다. 순간 그는 저도 모르게 흠칫 굳어져버렸다. 여기에 흔한것이 단풍잎이다. 처녀는 제 손으로 마음에 드는것을 얼마든지 골라 딸수 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힘겹게 말을 번지며 부탁했을까? 과연 나에게 요구하는것이 저 단풍잎만일까?...

가슴이 급작스레 두근거렸다.
방학이 끝나면 그는 다시 외국에 공부하러 갈것이다. 나 역시 건강만 회복되면 전선으로 떠나간다. 우리는...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목구멍으로 불시에 쇠물처럼 뜨거운것이 콧구멍으로 솟구쳤다.

아니, 딴 생각을 말자, 그는 어디에 가든 제 고향, 제 나라의 향취를 품고싶어 그러는것이리라.

자기를 지켜보는 처녀의 눈길을 등뒤에 느낀 윤철은 《이건 먼지가 앉았구만.》하며 다른 나무에 다가갔다. 마음 같아선 금강산에 핀 모든 단풍잎을 다 따다가 한일두일 뒤지여 제일 크고 붉고 살진것을 골라주고싶었다.

《허참, 이거 어느 일을 따라 할지 모르겠군.》
진정 어려운 일에 부닥친듯 윤철은 난처한 기색으로 성량을 돌아보았다.

《아이 그걸, 그걸 따주세요.》
성량은 농치기라도 할가봐 겁내듯 윤철이가 잡고있는 나무잎을 가리켰다.

《그러지요.》
윤철은 나무밑에 소담하게 핀 연보라빛의 들국화도 한송이 꺾었다.

《고마워요.》
성량은 단풍잎과 함께 들국화송이를 옥양목손수건에 정히 포개 싸서 잠바주머니에 넣었다.

《더 요구되는것이 없습니까?》
《없어요. 후담에...》하고 고개를 소곳한채 무슨 생각엔가 움해서 걷던 성량이 갑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있어요. 저의 작품합평에 참가하는것.》
아마도 지난밤 그 풍경화를 다 완성한 모양이었다.

《언제 ... 말입니까?》
《오늘 저녁 일곱시!》
《오늘 저녁!》
《왜? 안되겠어요?》

윤철은 선뜻 장담할수가 없었다. 군의소에 돌아가면 별다른 정황이 없겠는지...

처녀의 크고 시원한 눈시울이 바르르 떨며 초조한빛을 뿜었다.

《가지요. 꼭 가겠습니다.》
생각을 굴리던 윤철은 마침내 동의하였다. 처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다니던 그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 기와집 한채가 있어요. 오누이를 군대에 내보낸 우리 이모네집이에요.》

음- 정찰병처럼 몰래 들어오세요. 지각하지 말고

...아시겠지요?》

하지만 윤철은 시간을 지킬수 없었다.
군의소에 도착하니 면회를 온 특무장과 연락병이 배낭을 안고 침대에 걸터앉아 말뚝잠에 들어있었다.

왼쪽눈에 붕대를 감은 입이 건 대대통신참모가 말했다.

《이 친구들이 피짜요. 처음엔 다투어 중대장동무의 병세가 어떤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가, 언제 퇴원하는가 끈끈스레 걱정하더니 기다리다 못해 나중엔 자기네를 보고는 규률을 잘 지키라 하고는 돌아서서 꺼리낌없이 자유주의 한다느니 관료주의자라느니 하면서 험담을 퍼붓다가 꺼떡꺼떡 조는게 아니겠소. 게다가 지독한 구두쇠들이 더군.》

《몇시에 왔소?》
《점심시간을 맞추어서 왔더군. 내 그래서 요즘 동무네 중대장은 바람이 나서 물리치료갑네 하고는 원땅보러 다니느라 동무들 생각은 싹 잊었으니 어서 배낭을 풀라고 하는데도 원, 소귀에 경읽기더군.》

통신참모는 외눈을 밍지않게 흘기더니 《기상!》하고 소리쳤다.

특무장과 연락병이 동시에 눈을 떴다.
《야, 중대장동지!》

《원, 이런 아침쟁이들이라구야.》
통신참모는 허를 차며 꺾꺾 웃었다.
특무장이 배낭을 끄르고 떡이며 파일 등 여러

가지 음식들을 퍼놓았다.

《같이 들자구.》

윤철은 저가락에 떡 한개를 꺾어 연락병에게 쥐여주었다. 화락한 분위기가 차넘쳤다.

파묵한 특무장은 말없이 그저 윤철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기만 하고 어린 연락병은 무엇인가 설새없이 이야기하였다.

윤철은 그간의 중대형편이며 궁금하던 소식을 묻고 듣노라 시간 가는줄 몰랐다. 이윽고 기쁨속에 아쉬움속에 그들을 바래주고나서 맥없이 침대에 누워있던 윤철은 그만에야 《아차》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목시계를 보니 일곱시가 지났다.

마당가에 선채 초조히 기다리고있을 성량의 모습은 눈앞을 스치었다. 약속한 시간을 어기여 미안스러운 마음으로 성량의 이모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여덟시가 다 되였었다.

《어이구, 인제야 오시는구먼》 빨래줄에 건 옷가지들을 거두던 이모가 반색하며 다가왔다. 윤철은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중대에서 면회를 오다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랬을테지. 어서 들어가자구.》

너인은 옷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림은 보이지 않고 방가운데 밥보를 씌운 두리반이 놓여있었다. 성량도 보이지 않았다. 잠간 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윤철은 구들에 앉았다. 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초조해났다.

《에이구, 좀 빨리 오지. 얼마나 기다렸다구...》

너인이 밥보를 벗기며 허를 찼다.

《성량인 떠났네.》

《떠나다니요?》

속에서 무엇인가 쿵 떨어진다.

《좀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대학에서 급히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다질 않겠나. 마침 평양으로 올라가는 군대차가 있어서 그걸 타구... 갔지.》

《방학이 벌써 끝났는가요?》

《글쎄... 가만, 무슨 편지를 써놓구 갖는데...》

움쭙 일어난 너인은 정지칸으로 나가 장롱에 전사한 편지를 가져왔다.

《귀한 손님이 오는데 음식은 제손으로 해야 한다면 갖가지루 쟁겨놓구 기다렸는데...》

너인은 무척 아쉬운 모양 허를 차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윤철은 아무런 필적도 없는 흰 봉투를 스쳐보고나서 서둘러 속지를 꺼냈다.

...오늘은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더디고 빠르게 흘러갈까요.

윤철동지와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요. 불편한 몸이지만 한순간도 전선으로 달려가지 못해 피로와 하시던 그 마음에서, 남강마을의 아름답고 억센 녀성들과 전우들에 대해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에서 그리고 금강산의 빨간 단풍잎과 한송이의 들국화에서 저는 조국애를 다시금 더 깊이 간직하게 되는가 봅니다. ...

반드시 오고야말 전승의 그날을 위하여 그리고 동지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대오에 꼭 다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떠나니 용서해주세

요.

부디 안녕히 !

너인이 그의 앞에 곱돌장사귀를 옮겨놓았다. 빨간 고추장물에 송이버섯을 찢어넣고 끓인 국이였다.

《식을가봐 부엌아궁에 넣고 떠났다우. 더운걸 트리라구 신선당부하면서...》

너인이 축축한 소리로 말했다.

더운 김이 피어오르는 장사귀를 바라보는 윤철은 어쩐지 눈앞이 흐려왔다.

성량이가 쳐다본다.

《더 요구되는것이 없습니까?》

《...있어요. 저의 작품합평에 참가하는것, 지각하지 말고 ... 아시겠지요?》

장난군소녀같이 얼굴에 피는 웃음...

불과 몇시간전 일이다.

《그리구 저건 약초라우. 중대장의 병치료에 보탬을 주겠다고 켜것인데 ...》

방구석에 깨끗이 다듬어 말리운 약초가 무드기 쌓여있었다.

윤철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

《저는 끝내 병마를 이겨내고 대오에 다시 섰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해 가을 어느 일요일날 나는 너맹위원장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의 어려웠던 그 나날 우리 군인들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말도 하고 또 성량동무의 소식도 알고싶어서였습니다.

방안에서 처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계십니까?>

옷방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처녀가 내다보았습니다.

성량이였습니다! 일년전보다 달라졌다면 가무스레 탄 얼굴에 가쁜한 군복차림을 한것이였습니다. 나는 군화를 신은채로 퇴마루에 성큼 뛰어올랐습니다.

<누구신가요?>

성량의 큰 눈에 의혹의 빛이 어렸습니다. 나는 굳어져버렸습니다. 처녀는 간호원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된 성량동무의 이모네 딸이였습니다. ...

그후부터 그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해보았습니다. 전쟁도 끝났으니 류학을 마치고 돌아와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내놓았을수 있어 화점들을 구해다 뒤져보았고 또 미술박물관과 미술가동맹에 김성량이라는 녀류화가가 있는가 수십차례 편지도 띄워보았습시다만...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파연 그는 어떤 녀자입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은 탁상에 세운 팔에 이마를 고이며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손님은 묵묵히 피로운 눈길로 성량의 사진을

들어다보고있었다.

척척 척척... 비가 내리는지 창밖에서 락수물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얼마전에.》하고 손님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해외에서 한 동무가 이런것을 가지고왔습시다.》

손님은 가방에서 자그마한 쇠붙이를 꺼내어 윤철에게 넘겨주었다.

라이타였다. 기억속에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피우 사납던 어느날 밤 전선을 넘어간 녀인에게 지도를 소각하라고 주었던 바로 그 만년필모양의 라이타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날밤 소좌동무가 전선을 넘겨준 녀성은 바로 성량동무였습니다.》

《예?》

산마루, 총소리, 푸른 번개빛, 봄가을의 투자락을 날리며 달려가는 처녀 ...

《저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가입니다. 번개치는 순간에 자기에게 날아온 적탄을 막아준 윤철동무의 모습을 그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잠시 비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손님이 말을 이었다.

《성량동문 <금강산>이라는 대호를 가진 조선인 민군 경찰군관이었습니다.

동무의 안내로 전선을 넘어간 후 다시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 부대에 돌아온 그는 겹쌓인 피로로 하여 잠시 금강산에 휴식차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동무 만났습니다. 그때... 적구에서 부상당한 동무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긴급한 임무의 절박성과 그후 금강산에서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터놓을수 없었던 성량동무의 심정에 대해선 동무도 이제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적들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활동하던 <금강산>은 정전을 며칠 앞두고 놈들의 수사에 걸렸습니다. 위급한 순간 성량동무는 함께 공작하던 동지를 빼돌리고 적들과의 총격전끝에 영웅적으로 자폭하였습니다.

성량동무의 소지품을 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온 그 동무는 놈들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멀리 해외로 에돌아 여러해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실은 그 동무가 보고해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지요. ...

적들과의 소리없는 전투속에서 성량동문 밤에 가끔 그 라이타를 꺼놓고 소묘하기를 즐겼답니다.

그가 그린 소묘중에서 우리는 류다른 초상 몇 점을 발견하고 동무를 찾았던것입니다.》

윤철은 그가 내놓은 그림을 급히 받아쥐었다.

학습장규격의 종이에 그린 소묘였다.

첫장은 피뢰군대위복을 입은 윤철이가 피흐르는 다리로 힘겹게 일어서며 적들을 쏘아보는 모습이었다. 다른 한장은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있

아 어딘가 멀리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듯 한 모습인데 밑에다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지각생?》라고 썼다.

윤철은 저도 모르게 아직도 그 녀자의 온기가 스며있을듯싶은 라이타를 꼭 그러쥐었다.

창가에 다가선 손님이 갈린 소리로 말했다.

《성량동무는 동무가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조국이 기다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승리한 조국땅에서 재능있는 녀류화가로 명성을 떨쳤을겁니다. 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허나 그 모든 꿈을 고스란히 남겨둔채 서슴없이 한목숨 바쳤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속에는 녀성으로서의 개인적인 사랑과는 대비할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 짙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이었지요. 그 사랑속에는 동무와 함께 돌아본 금강산의 풀 한 포기, 꽃 한송이, 돌 하나...

그리고 윤철동무에 대한 사랑도 함께 고이 간직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 단풍잎을 따줄수 없을까요?》

타는듯 한 눈길로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떼던 성량이였다!...

《소좌동무, 성량동무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를 해주어 고맙소. 정말 감사하오.

동무의 이야기까지 듣고보니 적구에서, 더우기 녀성의 몸으로 성량동무가 발휘한 그 용감성과 침착성, 자기희생성 ...

그리고 조국앞에 세울수 있었던 군공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

사진이며 소묘, 라이타... 그 모든것을 바라보는 윤철의 불깃한 눈시울이 가늘게 떨고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순간에 탁 쉬어버린듯 한, 심장의 아픔을 짜내는듯 한 갈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저는 그러한 녀성의 사랑을 받았다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조국이... 금강산이 저렇게 솟아있는데... 어찌 죽을수 있단 말입니까!》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적셨다. 윤철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뿐만 운무속에 거연히 솟아있는 금강산이 안겨온다.

금강산! 유구한 세월 갖은 경난과 환난을 다 겪어온 조상전래의 산, 어제도 래일도 변함없이 솟아있을 굳센 의지의 산, 지혜와 근면, 피와 땀을 바쳐온 슬기로운 인민의 이야기로 나날이 더 풍부하고 아름다와질 전설의 산-금강산!...

성량이가 보인다. 소술한 바람결에 구름같은 검은 머리칼이 흐트러지며 해빛에 밝은 밤빛으로 오리오리 투명하게 반짝거린다.

두손모아 물 한웁큼 떠올린 성량이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울며웃고있었다. ...

우수한 우리 말 - 평양문화어

우리 말은 고대시기로부터 조선민족의 발생과 더불어 세대를 이어 발전하여온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특히 우리 말은 1444년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서사생활을 고유한 우리 글자로 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세련되게 되었다.

우리 말(평양문화어)은 민족고유어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시대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된 언어이다. 평양문화어라고 할 때 그것은 어휘와 문법, 발음법, 띄어쓰기 등 모든 규범들을 다 포괄한다.

평양문화어는 그 어느 민족어와도 구별되는 가장 우수한 말이다.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은 먼저 말소리의 발음이 유순하고 풍부하며 모음과 자음이 조화롭게 발달된것이다. 때문에 누구나 알아듣기 쉽다. 어휘표현이 풍부한것도 평양문화어의 또 하나와 특징이다.

평양문화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단어만 해도

수백개나 된다. 또한 평양문화어는 섬세하고 다양한 어휘표현들로 레의범절을 나타낼수 있는 우수성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자다》라는 표현만 보아도 대상에 따라 《주무시다》, 《쉬다》 등으로 달리 표현하여 레절을 표시할수 있다. 이러한 언어레절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을 잘 반영하고있다.

평양문화어는 이밖에도 문법구조가 짜여있고 특히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어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한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우리모두는 앞으로도 외래어와 한자말을 비롯하여 우리 말이 아닌것을 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섬으로써 당의 의도에 맞게 언어생활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다.

작가일화

의사로부터 작가가 된 사연

로신은 중국현대문학의 개척자의 한사람이며 중국현대문학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논 작가이다.

일본에 류학하여 센다이의학전문학교에서 남다른 포부를 안고 의학에 전심하던 로신이 2년만에 그것을 포기하고 문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어느날 로신은 시보영화를 보았다. 영화에는 한 중국사람이 일본군인에게 잡히어 목을 잘리우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을 열빠진 표정들을 한 수많은 중국사람들이 멍하니 구경하고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것을 본 로신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로신의 심정은 칼로 저미는듯 아팠고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수 없었다.

《난 문학예술을 배울 작정이다. 그래 저런 사

람들을 의술로 고쳐낼것 같은가?》

이렇게 되어 로신은 그 일이 있던 후 의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투쟁의 길, 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로신은 그때의 자기 심정을 후에 단편소설집 《웨침》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릇 우매한 국민은 몸이 제아무리 건장하고 씩씩하다 할지라도... 조리돌림감으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경군으로밖에 될수 없으니 병으로 얼마간 죽는다 하여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의 의식을 개변시키는것이며 그 중요한 수단이 문학예술일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문예운동을 제창하게 되었다.》

로신의 창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단편소설 《축복》과 중편소설 《아큐정전》이다.

조선로동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

전국문학축전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진군의 불길속에서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진행하였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설문학부문

1. 단편소설 《건국의 첫기슭에서》 문학예술출판사 기자 조창근
2. 단편소설 《한 녀인에 대한 추억》 조선작가동맹 강원도위원회 작가 조인영
3. 단편소설 《풍요한 수림》 조선작가동맹 자강도위원회 현직작가 오운서
4. 혁명전설 《태양절에 핀 회령백살구꽃》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우경
5. 실화문학 《보금자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라순

△시문학부문

1. 장시 《2월의 환호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만영
2. 서정시 《정일봉은 웨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김만영
3. 시초 《조국은 총대로 시작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류동호
4. 서정시 《개선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석주
5. 서정시 《사진속의 봄날이야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신문경
6. 서정시 《우리는 백두산을 내리지 않았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창식
7. 서정시 《10월에 만나자》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오필천
8. 담시 《동갑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문동식
9. 단시 묶음 《어머니에 대한 단상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의사 강옥녀
10. 서정시 《우리 동네》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11. 가사 《통일 6.15》 평안북도 신의주방직기계공장 초급당부비서 광명철
12. 가사 《조국은 너를 알게 되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계관인 류동호
13. 가사 《빨찌산추억》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은숙
14. 가사 《군인선서 다진 날》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윤정길
15. 가사 《백두의 붉은 단풍》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천걸
16. 가사 《송년축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주광일
17. 가사 《백두밀림은 푸르러》 문학예술출판사 부사장 박영
18. 가사 《너도나도 붉게 피었네》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작가 한원희

△아동문학부문

- 1.련속단편소설 《우리 나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반상서
2. 실화문학 《소학시절이야기 몇토막》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기석
3. 동화 《류다른 이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박문
4. 동시 《이름을 바꾸재요》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성연일

5. 동요 《군대누나 우리 누나》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백광명
6. 유희동요묶음 《줄넘기노래》 황해남도 청단군 학생소년회관 지도교원 최성희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작가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작적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 94(2005)년 제 9 차 《조선문학》 축전상 시상모임이 있었다.

입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김만영

단편소설 **《공격》**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사 부장 **《김일성상》** 계관인 박 윤

단편소설묶음 **《해뜨는 계곡》** 함경북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 리 명

시조 **《그대 위한 내 사랑》** 강원도학생소년회관 작가 김정곤

론설 **《선 군 시 대 에 새롭게 정식화된 음악의 인간학적본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
위원장 최길상